(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95 796 1982년 4월 12일(월) 13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Tuesday, April 12, 13, 1982

RETURN ITEM TO EAST ASIAN LIBRARY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북한에 정치범 10만이상

8개 강제수용소, 굶주리며 중노동

(서울12일=연합) 현재 북한에 억류된 정치범의 수는 적어도 10만5천명에 이른다고 12일 한국의 고위정보관리가 말했다.

정보관리의 이같은 언급은 11일자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확인한 것이다. 한국정보통을 인용한 뉴욕타임즈지는 정치사상범들이 8개소에 투옥돼 있다고 말했다. 철망과 지뢰밭으로 둘러싸인 강제수용소에 투옥된 사상범들은 굶주리고 병든자가 많으나 중노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북한에서는 주석 김일성 및 아들 김정일체제와 노동당(공산당)에 반대하는 자, 반「혁명」분자들과 가족들은 「사상불손 반동분자」로 낙인찍혀 박해를 받고 일부는 강제수용소로 보내진다. 이 중에는 제일교포로서 이북에 갔다가 환멸을 느낀자도 포함된다.

강제수용소에 대한 정보는 최근 남한으로 귀순한 3명의 북한인에 의해 확인됐고, 미국의 공중정찰이 이를 뒷받침했다. 최근 김정일의 주석세습 반대자에 대한 숙청이 계속됨에 따라 투옥인사의 수가 급격히 늘었다.

부수상및 국방상이었던 김창동, 70년때 초 남북회담의 북한측 고위대표였던 유장식씨등 전직 고위관리도 중노동을 하고있다.

북한에는 일반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가 25개나 된다.

헨리·스톡스 뉴욕타임스 동경특파원은 최근 3명의 북한 귀순자및 중앙정보부 고위인사들과 인터뷰를 했다.

남한측은 수년간 강제수용소 소재지를 확인하려 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확신을 갖게된 것이다.

72년 일본에서 남파되기 전 강제수용소를 방문했던 간첩 신영만은 "수용소가 동굴 같은 헛간이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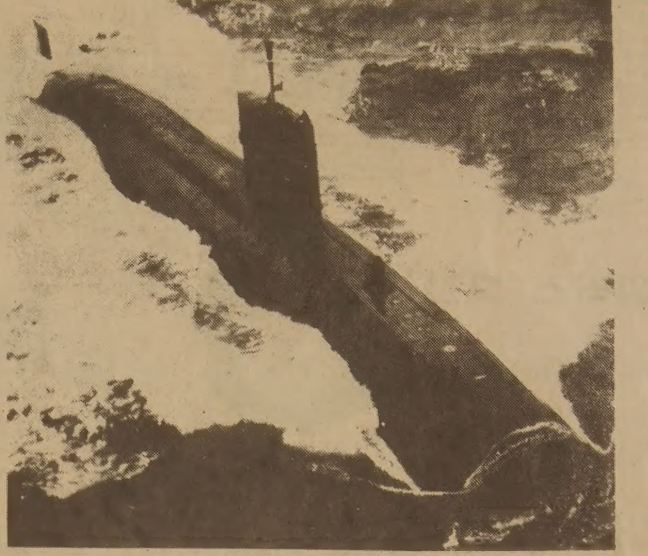
신씨는 일본서 활동중 최근 남한으로 귀순했다. 신씨에 의하면 "수용자들은 찢어진 누더기 옷을 걸쳤고 영양실조, 과로로 쓰러질것 같았다"고 말했다.

귀순자 신영준(30)은 함성북도 온성군에 있는 수용소의 담은 높았고 「위위! 접근금지」등의 표말이 군데군데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김은 78년 신미주미 와 이러번 이 수용소를 방문했다.

북한 최대의 이 수용소에는 2만7천명이 있다고 남한측은 추측했다.

2번째로 큰 회령수용소에는 2만명, 역시 함북의 심심한 수용소에는 1만5천명, 함남 이덕면에는 1만3천명, 함남 청평에는 1만명이 있다.

평북의 2개소에는 5천및 1만5천명, 장강도(새로운 도)에는 수미상의 정치범들이 수용돼 있다.



◆접근하는 영국잠수함-11일 자정부터 발효된 포클랜드 봉쇄에 대항하는 아르헨티나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 항진중인 영국핵잠수함 스플렌디드호.

미인대회 출마를 권한다

……캐라반위원회……

제7회 캐나다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회는 캐나다지역의 최고 "미의 축제"로서 "진" 미녀는 모국 미인대회에 진출하고, "선" 미녀는 민족대표가 되어 이곳 캐라반미녀대회에 출전, 50여개국 이민그룹의 미녀들과 미·지성미·육체미등을 겨루는 뜻 깊고, 보람있는 일을 맡는다.

누누히 보도되었듯이 미인대회는 "얼굴"만이 심사대상이 아니고, 잘 다져진 육체미와, 교양, 지성미, 태도(발랄하면서도 예모있는 품), 재치, 특기, 인기도등 종합적 관찰로 평가하여, 현대적 우수여성을 뽑는 것이니, 흔히 말하는 "미모에 자신이 없어서 출전 엄두를 못낸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또한 본인은 미인대회에 출전해 보고 싶으나 부모가 완고, 반대해서 젊은 시절의 한때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식이다.

"결혼할 나이도 가까운데, 어찌 그런데로 내보내느냐?"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었다.

그러나 현명한 부모라면 시대감각에 민감해야 할 것이다. 미인대회를 마치 처녀들의 전시장으로 오해하는등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딸을 좋은 데로 시집 보내기 위해 미인대회에 내보내지 않는다는 말은 협소한 주관에 불과하다. 바야흐로 우주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오직 중매결혼이나 맞선보기로만 자식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 자유로운 젊은이들의 교제로 장래의 배우자를 선택토록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다.

아름답고 기품있게 몸과 마음을 닦은 미녀는 미의 축제인 미스코리아대회에 당당히 도전하여 공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폭넓은 선을 보이고, 훌륭한 혼인처를 얻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본인이나 부모에게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금년도 이곳 미인대회는 24일 열리며 응모마감은 17일로 다가왔다.

출마희망을 품은 본인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과감히 출마해 주기를 거듭 부탁 드린다.

제일여행사 한국왕복권제공

로렉스시계 · 진주목걸이등

올해의 전국 한인계의 정상미녀를 뽑는 제7회 캐나다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보름 앞둔 10일 현재 여러 교포업체들이 상품들을 기탁해와 준비위원들을 북돋고 있다.

10일 현재 기탁된 상품및 기증자는 아래와 같다.

- 한국왕복 항공권(제일여행사)
- 로렉스 여자용손목시계(은하보석상)
- 진주목걸이, 진주반지, 진주귀걸이(14K Gold) 고급화장품 3세트(미도파)
- 고급여자용 썬글라스2개(불란서제)(블루아안경점)
- 녹용($150상당)(동양한약상사)
- 휴·쎄트($100상당)(블루어 하드웨어)
- Webster 사전(3권)(신용목)
- 고급벽시계(신종조 종합보험)
- 금일봉($100)(광재필)
- 참가자 전원에게 꽃다발(코리아타운 번영회)
- 20" Panasonic Color TV1대(아카데미 TV및 파나소닉사제공)
- 이태리안 3Colour 금목걸이 (Young-Sook's Jewellery)

영·아르헨 위기넘겨

헤이그 중재차 런던에

2일 새벽5시를 기해 포크랜드 군도 2백해리 인내에서 발견되는 모든 아르헨티나선박을 격침할 것이라는 영국의 선전포고에 강경히 맞섰던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해군함정들을 분쟁지역에서 잠정 철수,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겼다.

런던과 아르헨티나를 왕복하며 협상중재를 벌이고 있는 미 헤이그 국무장관은 「포크랜드」군도를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방안을 놓고 영국 대처수상과 협의차 12일 아침 런던에 도착했다.

헤이그가 내놓은 특별방안은 아르헨티나가 포크랜드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영국도 아르헨티나 해역의 해군함정을 철수시키고 유엔군이 동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크랜드군도는 지난 약 150년간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으나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을 주장 지난2일 새벽 약 7천명의 공수부대로 무장 점령했다.

영국은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군인들이 포크랜드에서 떠나지 않는한 절대로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강력히 대응해 왔다.

헤이그장관과 만났던 아르헨티나군부는 헤이그에게 중재를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동지역의 아르헨티나함정들을 일시 철수시킨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EC(유럽공동시장)는 영국의 요청으로 아르헨티나에 대해 무기금수조치와 함께 평화적해결을 바라는 UN의 권고안을 촉구했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 금주의행사 ▷

(4월12일~18일)

16일(금)하오5시 실험교육세미나
곳: Inn On the Park Hotel(Oak Room, Leslie & Eglinton E.)

16일(금)~17일(토) 저녁8시 연예인들의 찬양과 간증의 밤
곳: 순복음캐나다교회(1030 Albion Rd, Rexdale)
연락처 743-4813

16일(금)~18일(일)저녁7시30분 탁명환교수 신앙강좌
곳: 연합교회(300 Bloor St. W.)

17일(토)하오2시 배재동창회 볼링대회
곳: Newton Blook Bowlerama(5837 Yonge St.)
연락처: 781-5083

17일(토)저녁7시30분 해밀톤한인회 춘계친목의 밤
곳: St. Cyril Parish Hall(204 Park St. Hamilton)

17일(토)저녁7시30분 해병대창설기념식및 정기총회
곳: 크링톤하우스(693 Bloor St. W.)
연락처: 652-0370(김명정 총무)

18일(일)하오1시30분 장로·집사 취임예배
곳: 한인교회(West Minster United Church, 69 William St.)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大學地下서클 申告토록

문교부, 과거활동 不問에 붙이기로

(서울본사전화) 문교부는 9일 전국대학의 미등록 음성서클의 양성화방침에 따라 대학별로 지하서클 일제신고를 받고 신고한 서클이나 회원에 대해서는 과거활동내용을 포함한 일체의 잘못을 묻지않기로 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 지하서클 가운데는 과거의 행적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한 경향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문교부는 전국97개 대학에 이같은 방침을 시달하고 10일 대전에서 학생처, 과장회의를 소집 이를 강조할 방침이다.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 은, 증권, Bonds, 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강 상 욱
증권투자의 핵심은 시기의 선택으로 싸이클의 Bottom(최저수준)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는 요사이처럼 증권값이 하락할때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값이 연일 폭등하여 일반대중이 서로 사겠다고 모여 들때는 갈고 잡을수 없다.

"中共, 서울五輪 참가할듯"

IOC委長, 한국스포츠시설 돌아봐

(서울) 국제올림픽위원회(IOC)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위원장은 9일 1988년 서울 올림픽 경기가 성공적일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마란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은 IOC위원장으로 이곳에서 모든 올림픽 준비사항과 각종 스포츠 시설을 시찰하고 88년 서울 올림픽 경기가 성공적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사마란치 위원장은 「한국의 올림픽 준비와 시설에 아주 만족한다」고 말하고 「경기 6년을 앞두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국가를 과거에는 보기가 힘들었다」고 평했다.

중공과 북한을 다녀온 사마란치 위원장은 중공도 서울 올림픽에 참여 할것 같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북한과 같은 ~~나라~~ 나라들은 현재 84년 LA올림픽 경기에 신경을 쓰고있어 88년 서울올림픽경기 참가여부를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올림픽은 「개발도상국가」도 올림픽경기를 주최할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의가 크다고 전제하고 한국의 호신술인 태권도가 88년 올림픽에서 시범경기로 선택될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둘 이하

의료비 면제혜택

(서울12일=연합)한국정부는 둘 이하의 자녀만 갖고 불임시술을 하는 부모의 자녀에는 국민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를 면제한다고 12일 보건사회부가 발표했다.

의료비면제는 입원·수술비를 제외한 진료, 주사및 조제비에 해당된다.

두번째 출산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의 자녀도 혜택대상이 된다.

한국일보 토론토
구독은
533 2361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브랜돈운동구점 봄맞이골프 SALE

세일기간 : 4월말까지

15종류 고급골프채와 초보자를 위한 골프채 준비

30가지의 골프 CART와 골프백들을 다량입하!

그리고 세계최대 GOLF 신발 메이커제품인
ETONIC 골프신발과 TRETORN 골프신발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특히 여자들을 위한 골프의상이 준비
되어 있으며 동시에 남자용 GOLF T-SHIRTS
및 골프 세타가 준비되어 있읍니다.

BRANDON SPORTS 337 BLOOR ST W. 598-3732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궂은 날씨에도 불구, 4백여명의 신도들이 모여 주의 다시사심을 축하했다. 새벽6시 써니브룩·팍에서 〈글·사진 김종환 기자〉

여명에 울린 부활찬송
4백여명 부활절 야외예배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새벽의 여명을 가르며 우렁차게 퍼지는 찬송은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한 신도들 가슴 깊이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었다.

11일 새벽6시 써니브룩 공원에서 열린 토론토지구 시내교회연합부활절 새벽예배는 영하의 추위와 눈발이치는 좋지않은 날씨에도 불구, 4백여명의 신도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사심을 축하했다.

토론토제일한인장로교회(목사:김용출) 주관으로 열린 이번 연합예배는 김용출 목사의 사회, 조이식 목사(캐나다 순복음 교회)의 기도, 조성관 목사(시민교회)의 성경봉독, 박준하 목사(서머나 감리교회)의 설교순으로 진행됐다.

박목사는 "눈을 들어 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절망의 심연에 떨어진 그당시 예수의 제자들과 그를 좇던 무리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일생 최대의 기쁨과 소망을 선사했다"고 하며, "우리도 예수의 부활에 기쁨과 소망으로 동참하자"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헌금순서가 있었고, 박경남 목사(충현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걷힌 헌금은 다음 교역자회의에서 의논, 한국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전액 쓰여진다. 작년에는 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인「사랑방선교회」와「맹인선교회」에 헌금을 나눠 보냈다.

순교영화상영
"초대받은사람들"

토론토한인천주교회는 모국에서 대종상을 수상한 순교영화 감상회를 실시한다.

한국카톨릭 선교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영화「초대받은 사람들」은 오는 16일(금), 17일(토) 하오7시 30분 던다스성당 지하강당(941 Dundas St.W. Tor)에서 상영한다.(관람무료)

동국대 동문회
제5차 정기총회

동국대학교 동문회는 지난 3월27일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열린 제5차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새 임원진을 뽑았다. 이날 총회에는 회원8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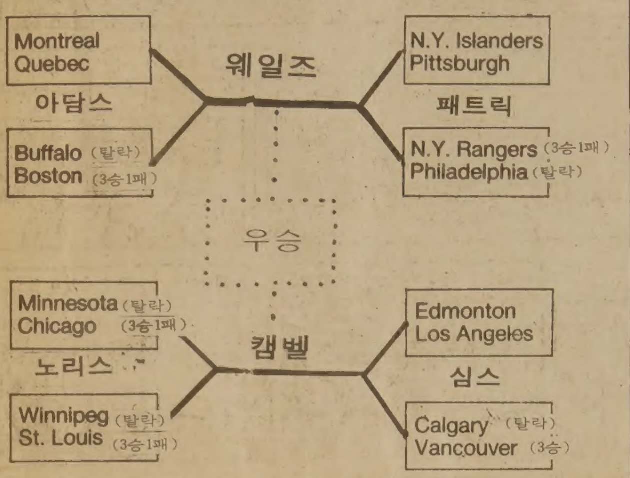
◆고 문 : 천윤기(유임)
◆회 장 : 정관풍
◆부회장 : 오창섭 · 박창숙
◆총 무 : 김국조
◆섭 외 : 김규칠
◆문 화 : 이정구

교 민 동 정

◆김지일(심리학박사)=지난 4일 하오3시 토론토한인천주교회노년회 월례회에서 "마음의 병과 믿음" 주제로 강연을 했다. 약 11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강연을 듣고 위안과 격려(용기)를 얻었다고.

◆장연탁(조각가)=5월22일~6월10일, 뉴욕의 웨스트브로드웨이화랑에서 열릴 조각개인전 준비차 오는 12~15일 현지방문한다. 출품작은 대리석 조각 12점 예정이라고.

플레이 오프 대진표



1회전 : 5전 3선승제 4월 7,8,10,11,13일
2회전 : 조별우승전 (7전4선승제) 4월15,16,18,19,21,23,25일
3회전 : 컨퍼런스 우승전 4월27,29일, 5월1일 또는 2,4,6,8,9,11일
결승전(스탠리컵 우승전) 5월13,15 또는 16,18,20,22 또는 23,25,27일

아일랜더, 몬트리얼, 오일러스 고전
플레이오프 이변속출, 위니펙 미네소타탈락

스탠리컵을 향한 NHL플레이오프 1차 시리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강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되던 뉴욕·아일랜더스, 몬트리얼·캐네디안, 에드몬턴·오일러등은 고전을 겪고 있고, 다크호스 로 지목됐던 위니펙·제트, 미네소타·노스스타즈등이 떨어져 나갔다.

16강이 겨루는 프레이오프 1차 시리즈의 빅카드는 역시 몬트리얼대 퀘벡·노르딕. 지난 10일 퀘벡에서 가진 경기에서 번세, 타이트한 수비에 눌려 2:1로 패함으로써 1승2패로 궁지에 몰린 캐네디안은 11일밤 퀘벡을 6:2로 눌러 종합전적 2:2 동률로 13일의 마지막 5차전을 남겨놓고 있다.

또 하나의 이변은 뉴욕·아일랜더대 피츠버그·펭긴스. 뉴욕에서 가진 1,2차전을 가볍게 이긴 아일랜더스는 피츠버그에서 3,4차전을 놓쳐 역시 승률 2:2 동률, 13일의 마지막 5차전을 남겨놓고 있다.

이변중의 이변은 에드먼턴대 L.A.·킹즈. 하키영웅 그레츠키가 이끄는 오일러팀은 L.A에서 가진 10일밤 경기에서 3피리어드까지 5:0으로 리드하다 5점을 연달아 내준뒤 연장전 써든데드(Sudden Death)에서 골을 놓쳐 6:5로 패했다. 이로써 오일러는 1승2패로 탈락 일보전에 있다.

기대되던 위니펙이나 미네소타는 각각 1승3패로 세트루이스, 시카고에 떨어져 나갔다. 각조 결승진출팀과 앞으로의 대진표는 다음과 같다.

〈영화 안내〉

「Victor, Victoria」
여장 남자와 동성연애다룬 코메디

영화 '10', 'S.O.B'등을 제작한 브래이크 에드워즈의 새영화, 「Victor, Victoria」는 30년대 독일의 Reinhold Schunzel감독의 영화를 리바이벌 한 것으로 줄리 앤드류스가 주연.

1934년 파리.

빅토리아(줄리 앤드류스)는 추운 겨울날 며칠째 굶은 몸을 이끌고 카바레 가수 오디션을 받으나 거절당하고 호텔로 돌아온다.

같은날 이 카바레의 싱어로 일하는 토디(로버트 프래스톤)는 노래중 손님과 언쟁을 벌이고 카바레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해고된다.

토디는 해고된 후 길을 걷다 우연히 레스토랑에 혼자 앉아 저녁을 먹는 빅토리아를 보고 그곳에 들어간다.

빅토리아와 토디는 돈 한푼없는 처지에 닭고기, 소고기등 요리를 실컷 시켜먹은후 미리 준비해 온 카크로치를 꺼내 트집을 잡는 중 로치가 딴 손님 다리로 기어 올라가고 식당은 난장판이 된다.

몰래 빠져나온 둘은 비를 흠뻑 맞은후 토디집에 가서 몸을 말린 후 옷을 입어 본 빅토리 아는 바싹 줄어 입을 수 없게 된 옷을 보고 울음을 터트린다.

결국 토디의 젊은애인 옷을 입은 빅토리아의 모습에서 토디는 아이디어를 제안, 실지로는 네가 남잔데 여자 남자인체 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그러면 금방 유명한 엔터테이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득, 머리를 잘라주고 큰 카바레 주인에게 가 오디션을 받은 후 그자리에서 직장을 얻게 된다.

데뷔첫날 아름다운 드레스에 멋있는 노래와 춤을 선사하는 빅토리아를 보고 남자들은 입을 벌린채 황홀해 한다.

그중에서도 시카고 갱출신으로 큰 나이트클럽 소유자인 킹 마샨(제임스 가너)은 완전히 넋을 잃은채 반해버린다.

그러나 쇼가 끝나고 가발을 벗고, [illegible]로는 빅토르였다는 사실을 안 킹은 실망과 모욕감으로 일그러진 표정을 바로잡지 못한다.

킹은 빅토르가 여자라는 확신을 갖고 그녀의 호텔방에 잠입, 결국 그녀가 여자라는 것을 알아내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그후 킹과 빅토르는 사랑에 빠지고 이 장면을 목격한 킹의 보디가드도 자신도 동성연애자라는 것을 밝힌다.

이런 와중에 혼자 쇼크를 받은 것은 유일한 Straight Guy인 킹.

영화는 빅토르는 빅토리아로 되어 Mrs. 마샨이 되기를 원하고 토디가 빅토르의 역을 카바레에서 하는 것으로 해피엔딩.

남성적인 곳이란 없는 줄리앤드류스를 쓴 것이 무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만든 영화이다.

'81 기업세무보고 전략

경제생활과 우리 ⑰
세무상담편=김명숙 회계사무소제공

우리 교포사회의 역사가 길어 짐에 따라 교포들의 사업규모도 커지고 따라서 많은 분들이 주식회사(Corporation 혹은 Limited Co.)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요즈음 교민들의 관심대상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이에 의한 최소세금전략의 요령 등을 다루어 보자.

첫째 캐나다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연방정부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에 의해 설립하는 경우와 주정부법(Ontario Business Corporation Act)에 의해 설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사업의 성질과 규모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즉, 사업의 규모가 광범위해서 캐나다국내(National) 혹은 국제적(International)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법에 의해 설립을 해야 하겠고 사업의 규모가 작아서 한 주(예를 들어 온타리오주)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주정부법에 의해 설립을 하게 된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우리 교포들은 주정부법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에 관심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캐나다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가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가 있으며 한국과는 달리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는 게 특징이다. 퍼브릭 코퍼레이션(주식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 아닌 경우에는 혼자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를 프라이베잇 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주수상에게 제출함으로서 이루어 지는데 이 절차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간단하게 될 수 있다.

정관에는 주식회사의 이름과 주소, 회사의 설립 목적, 주식의 발행내용, 주주의 이름과 주소, 이사의 이름과 주소등이 적혀 있으며 사업운영 도중 이상의 내용이 바뀌어 지면 반드시 그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상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쉽게 이행이 되므로 필자는 최소의 세금전략에 많은 중점을 두고저 한다.

주식회사란 주주와는 완전히 별개의 법인(Person)으로서 주식회사의 수입에 대해서는 주식회사가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고 주주는 다만 회사에서 받는 월급, 보너스, 주식배당금 등의 수단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유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인세금보고를

주식회사 과세대상액 조정
연방법 또 주법에 따라 설립

따로 해야 한다. 언뜻 생각하면 세금을 이중으로(Double Taxation) 내는 것 같으나 주식회사 설립의 가장 큰 혜택이 바로 이 월급과 주식배당금의 책정에 따라 좌우된다.

개인사업이나 합자회사(Partnership)의 경우에는 그해의 사업성과에 따라 그대로 세금을 내게 마련이나 주식회사의 경우는 사업성과의 기폭이 심할 경우에는 보너스의 책정으로 과세대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혜택으로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율이 25%인것을 이용하여 주식회사로 하여금 싼세금(25%)을 내도록 하고 주주는 그 나머지를 주식배당금으로 받아서 주식배당금의 1.5배를 수입으로 보고하는 대신 보고금액의 25%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텍스 크레딧(Federal Dividend Tax Credit)을 받는데 있다.(계속)

◇김명숙씨

제1부 에서는 개인 세금보고요령을 다루었고 제2부 에서는 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한 최소세금전략(Tax Planning)과 정부의 세무감사에 대비한 방법을 요약해 본다.

야구시즌 개막
블루제이스 계속 고전

스포츠시즌에 접어들자, 야구, 축구시즌도 활짝 열렸으나 토론토, 몬트리얼, 디트로이트등 북부도시들의 봄을 시샘하는 추위로 초반전부터 연기되는등 스케쥴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신임감독 바비·콕스를 맞나, 쉽기일전하려는 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소속인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지난주말 토론토와 밀워키에서 번갈아 열린 밀워키와의 3연전에서 2차전을 10회 연장전끝에 3:2로 겨우 눌렀으나 1차전, 3차전은 15:4, 14:5로 대패, 금년도 전망을 흐리게 했다.

11일 토론토 익스비션스타디엄에서 열린 3차전에서 블루제이스의 이적행위자로 기대되던 쇼스톱 알프레드·그리핀, 수비에서 2개의 실수에 이어 공격에서도 번트미스로 더블플레이를 당하게 하는등 실수를 연발했다.

블루제이스는 14일 수요일 디트로이트와 16일 보스톤에서 어웨이 경기를 벌인다.

한편 또 다른 캐나다팀이며 작년도 내셔날리그 동부 우승팀인 몬트리얼은 3차전에서 필라델피아에 1:0으로 패했으나 2승1패로 동부의 2위를 달리고 있다.

◆얼음판위의 레슬링—NHL하키가 결승으로 줄달음치자, 열전의 열전은 하키외에 레슬링으로도 비화됐다. TV 앞이나 스탠드에 있는 관중들은 하키뿐 아니라, 난투극도 즐길 수 있다.
11일밤 퀘벡대 케네디안의 대전은 초반부터 열전, 패싸움에 관중들은 응원의 함성을, 경기장오르간도 흥을 돋구었다.

해병대 창설 33주년기념식및 제4회 정기총회

삼군에 앞장서는 해병이 카나다에서 33년전 한국 진해 덕산 비행장에서 창설한 찬란한 해병대의 전통을 자랑하는 기 념식과 총회를 갖게 사오니 해병 전우회원 가족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할것

일 시 : 1982년 4월17일(토) 오후7시30분 오후 7시30분
장 소 : 크링톤 하우스 693 Bloor St. W.
회 비 : 10불
연락처 : 김 명 정 총무 (652-0370)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해병 전우회장
남 상 현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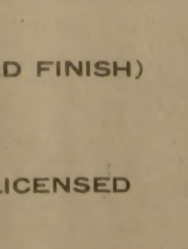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썬그라스

30% off

품목 : 나나리치, 마비스, 로댕스톡, 포라벨, 크리스찬디올, 프레이보이 등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麥酒마시면 배가나온다

量많은만큼 칼로리도 많아 그러나 肥滿의 주범은안주

맥주를 즐기는 사람중에 배가 나온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 살이 찐다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살을 찌게하는 원흉이 맥주냐, 한다면 그건 결코 그렇지가 않다.

만일 맥주를 마시고 살이 쪘다면 그건 맥주 자체때문이 아니고, 같이 다른것들을많이 먹었기 때문이다. 즉「맥주를 마시는 사람이 살이쪘다」고 해도「살찌게 한것은 맥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다.

물론 이 이론에는 반대론도 많다. 보통 정종 한홉과 맥주 한병, 그리고 위스키「더블」 한잔의 알콜량이 거의 같다고 한다. 그럼 이 세종류의 술의 영양가를 비교해 보자.

셋 모두 알콜의 함량은 비슷하다. 그러나 맥주의 칼로리는 위스키의 그것보다 약5할 많은 2배33칼로리다. 이렇게 칼로리가 많은 이유는 알콜이외의 칼로리원인 당질과 단백질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알콜로서는 같은 양의 것이지만 맥주쪽이 훨씬 고칼로리임은 당연하다.

비타민·미네럴등 營養價 아주높아 술마신 뒤에는 食事量조절 바람직

「칼로리가 높은것을 마시는데도 살이찌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하는것이 맥주는 역시 살찌게 만든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사실은 그 어느쪽이 옳고 어느쪽이 틀린 이야기라고 판단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오직 필요할것은 서로 상반되는 양쪽의 사고방식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리느냐는 것이다.

맥주를 한병마시면 위스키의 더블보다 80칼로리나 많은 열량이 섭취된다. 이것은 작은 밥공기의 약 반정도 담은 쌀밥의 양에 상당한다.

만일 살이 쪄서 걱정인 사람이라면 맥주를 마실때 이 정도의 밥을 줄이면 되는 것이다.

그런 심적인 배려가 구태여 귀찮다면 대신 위스키를 마시면 된다.

다만〈칼로리〉이외에〈비타민〉이나〈미네럴〉면에서 생각해본다면 맥주의 영양가는 정말 대단하다. 때문에 이런 영양들은 살리는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여기서 80〈칼로리〉라고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맥주 한병과〈더블〉인· 위스키를 비교해서의 이야기다.

우리들이 알콜을 즐길때 그곳에는 반드시 안주라는게 따르게 마련이다. 그안주의 양이나 영양가를 종합적으로 생각할때 이 80〈칼로리〉의 차이는 과연 얼만한 의의를 갖는 것일까 생각해본다.

술은 반드시 자기몸에 맞는것,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것을 마셔야한다. 제3자의 의견으로 술의 종류를 결정하는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다.

◆내 자전거 보세요—소아마비로 두다리를 못쓰는 4살짜리 꼬마소녀 질·스테이너양이 생일선물로 받은 특수자전거를 타고 즐거워하고 있다.「트리시클」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자전거는 발대신 손으로 작동시키게 되어있는데 전국벨시스템종업원기구인「텔레폰파이오니어오브 아메리카」에서 제조, 스테이너양에게 최초로 선사한 것이다.〈메사, 아리조나주 〉

루빅스큐브는 위험 北京신문서 非難기사

〈북경 〉중국인들 사이에 루빅스 큐브붐이 크게 일어나자, 북경신문은 루빅스큐브는 심하면 부부를 이혼하게 하고 비정상적인 생활태도를 비롯 고혈압, 손가락통증을 유발시키는 위험한 장난감이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빵제조업자가 큐빅을 맞추느라 빵을 태운일밖에 불상사는 없었지만 세계각국에서는 이 장난감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한시장은 큐브를 조작하다 손가락에 통증이 생겼으며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루빅스큐브를 선물했던 한 독일여성은 남편이 일도 안하고 이것을 만지는 바람에 이혼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캐나다소설〉 (144)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팔리·모왓 원작·원제홍 옮김

오늘 마니토바의 처칠에서 군의관인 소령이 에스키모들이 굶어죽기 바로직전에 있다고 말했다. 이군의관은 이 참변이 일어난 지역으로 날아가서 한에스키모 병치료를 처칠에서받을수 있도록 되돌려 보냈다.

소령은 에스키모들은 불충분한 음식때문에 피부병을 포함한 여러가지의 병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말했다. 이들에게 식량을 공급받을수 있는 적절한 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최선의 방법은 처칠에서 서북쪽으로 300 마일 떨어진 그 지역으로 약품을 보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에스키모인들은 적절한 설비가 부족한 탓으로 무엇이든지 제때에 구할수있는것이 전혀없다.

이러한 보고는 이대륙에 살고있는 백인들이 북극의 원주민들을 도와주려는 우리들의 노력에 대하여 할수있는 판매박은 발표인데 이런문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사는 우리가 에스키모들을 보호하고 감싸준다는 인상때문에 우리들이친절을 베풀어 보겠다는 열성을 단번에 부숴트리고만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양심을 편하게 위로하려는 상습적인 큰 죄때문에 비난을 받지 않으려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노력인것처럼 보인다.

이 뉴스의 두번째절은만일 독자들이 계획들 이라고 말한것이 뉴엘턴에 생선공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용감하게 들릴것이다. 그리고 이들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1951년 12월 내가 이것을 쓰고있을때 이할미우트를 재생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한번도 더 시도되지 않았다는것을 몰랐다면·말이다.

세번째 절은 이할미우트가 굶고있다는 첫 보고를 1950년봄까지 받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앤디와 내가 1947년과1948년사이에 에스키모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에 직접 써서보낸 보고서를 어떻게 그렇게 까맣게 잊을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다. 이것은 프란쯔가 1947년에보낸 보고서도 그러했고 또 그해 정부가 취한 조처를 보면 당국은 틀림없이 잊어버렸을것이다. 분명히많은것이 잊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모순들이밝혀지고 있다. 마지막 절에서 그 설명과 변명이 나온다. "에스키모들은 적절한 설비가 부족한 탓으로 무엇이든지 제때에 구할수있는것이 전혀없다"그렇다면 우리의 호혜가 실패한다해도 그것은 우리의 탓이 아니다. 우리의 양심이여 우리들은 우리의 최선을 다했으니 편히 쉴지어다.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지만내 양심은 편해질수가 없다.

나는 이사람들에게 진 빚을 이미 이야기 했다. 내가 진 이빚은 우리의 원주민들이 기다리고있는 운명적인 문제의 해답으로서 세상에서 잊고 살아가게 나를 놓아주지는 못할것이다. 이런 해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나는 키네투아산밑에 쌓여있는 시커먼돌무덤들이 나에게 말해준목소리를 실질적이고 단호한 목소리로 세상에 들려줄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 그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나에게 빌려주어서 백인들이볼려고 하지않는것을 내가볼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제 내차례가 왔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나의 목소리를빌려주어 자기들 스스로 말할수 없는 이할미우트의목소리를 백인들이 들을수있게 할것이다.

아마 내가 이야기 하는것이 너무늦어서 이미 없어진 민족의 위대한 시절을 겨우 기억하는것에 불과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할미우트의 이야기는 그들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관해서 내가 쓴것중에 많은것이 이대륙의 종횡으로퍼져살고있는 수천의 인디안들과 에스키모에 대하여많은 진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이할미우트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비문을 썼다면 아마 그들의 비극은 비록 쓰디쓴 결실일지도 모르지만 그런대로 결과를 얻을수 있을것이다.

이것은 숨겨진 강가에, 얼어붙은 해변가에 그리고 깊은 숲속에서 살고있는사람들의 생활을 우리들이새로운 담백성을 갖고 관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어떤 특정한 인간들의파멸을 기록하는것만으로 충분한것이 아니다. 우리들자신들의 사회를 격렬하게비난하는것도 그리고 부당함과 우매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것과 우리들의문턱에 놓여있을 태만죄를아무리 비난해도 소용이 없는일이다. 문제는 이할미우트의 비극이 북극의 추운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의 숙명적인 본보기가 되지않도록 어떻게 조처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문제의 해답은 매우 까다로울지 모르[illegible] 어떻게해결이든지 간에 한가지의 원칙적인 사항에 근거를 두지않으면 않된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즉시 에스키모와 인디안들이 만성적인 영양부족과 기아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의연품으로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도와 주어야 할것이다.

자선행위는 문명사회와 똑같이 원시적인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이다. 기본적인 물질을 계속 공급하는것은 번번히 정신적으로 자활하지 못하는 의존벽을 초래하고 만다.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가 원주민들에게공급해준 식량의 종별로 본다면 식량이 아니고 마치 굶주림에서 오는 결과처럼 영양실조에 빠져 신체를파괴시키는 점진적인 독약에 불과했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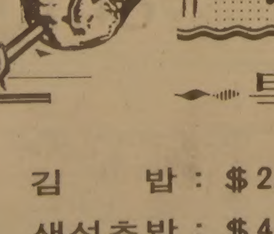
특별단체 관광안내

8.15 경축
모국방문단모집

출발일 : 1982년 8월 10일
귀 환 : 자유
요 금 : 그당시 적용되는 가장저렴한 단체요금
정 원 : 30명 (선착순)
특 전 : 8. 15 경축식 참석
관광및 산업시찰 (3 박4 일)
등록마감 : 1982년 5월 15일
예약금 : 1 인당 $100. 00
※여권및비자일체수속및봉사제공

성지순례단 모집
로마· 이스라엘
출발일 : 1982년5월31일
요 금 : $2,449.00(CAN.
정 원 : 30명 (선착순)
예약금 : 1인당 $200.00
준비물 : 성서와 성가집
쎄타와 가벼운 편한 신발
여행가방은 여행사에서 제공
○로 마 : 4일·한인성직자의 안내로 센·피터 성당, 바티칸 뮤지움등 로마의 성지는 물론 전 시가의 명소지 관광, 입장료, 일류호텔과 교통편 식사, 쇼핑20 % 할인등 포함.
○이스라엘 : 10일. 두성직자의 안내로 성서에 나오는 모든명소 성지 일체 순례함. 일류호텔과 교통편, 식사, 입장료, 호텔 써비스등 일체 포함.
※본 여행사에서는 일체 수속과 출발부터 오는 날까지 동반책임 안내 함
상세한 문의는 전화 : 366-0960, 368-9018 북미여행사로 해주십시요.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at Parliament)
☎: 366-0960, 368-9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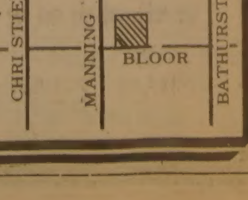


내고향통닭집

특별봉사가격

김 밥 : $2.95
생선초밥 : $4.50
오 뎅 : $3.00
오뎅백반 : $3.75
가끼우동 : $3.00
곰 탕 : $3.50
설 렁 탕 : $3.95
빈 대 떡 : 3개 $1.50
칼국수 : $3.50
뎀부라 : 3개 $1.00

658 ½ BLOOR ST. W.
537—0432 Mrs. Lee



崔基植 神父등 5명 구속

美문화원事件 釜山 3개 경찰서에 分離수감

犯人은닉·資金제공협의 金鉉奬등엔 國家保安法적용

【釜山=方政俊기자】부산 미문화원방화및 불온유인물살포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시경은 8일 주범 文富軾(23)과 金恩淑(24), 이들의 배후조종자 金鉉奬(32)을 숨겨준 혐의로 연행조사중인 천주교 原州교구 사목국장겸 교육원장 崔基植신부(39)를 범인 은닉으로, 나머지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및 범인은닉등 혐의로 각각 구속, 수감했다。崔신부와 함께 구속된 사람은 金鉉奬(32)、文吉煥(37·原州교육원 보일러기사)、金英愛(25·여·原州치악산서점주인)、吳相根(29·가톨릭농민회조사부원)등이다。

이들의 구속영장은 이날상오 부산지검 金斗壽공안부장검사와 崔炳國검사가 서명、신청했으며 부산지법 李賢鎬당직판사와 安相敦 제1형사부장판사가 함께 발부했다。崔신부등 5명은 부산시내3개경찰서에 분리수감됐는데 이들이 부산시경에의해 일괄구속된것은 범인은닉죄와 그 본범의죄는 상호관련된 사건으로 본범의 관할지역에서 구속기소토록 해야 한다는 소송경제의 원칙(형소법제11조)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구속된 崔신부와 및 金鉉奬은 국가보안법위반·범인은닉·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현주건조물방화·계엄법위반등이、金英愛와 文에게는 국가보안법위반및 범인은닉혐의등이 각각 적용됐다。

이들이 구속됨에따라 부산방화사건과 관련、구속된사람은 모두 14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치안본부도 이날 상오9시30분께 崔신부등의 구속사실을 서울에서 공식발표했는데 이로써 부산미국문화원 방화사건수사는 사건발생 21일만에 일단락 됐다。

경찰은 崔신부등과함께 金鉉奬, 文富軾등을 숨겨준혐의로 연행했던 李昌馥씨(43·전 가톨릭농촌청년회장)와 鄭仁藏씨(37·가톨릭농민회 부회장)등 2명은 이날 일단귀가시켰으나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소환, 혐의가 뚜렷하면 추가로 구속할것으로 알려졌다。

◇金鉉奬

◇金英愛

◇文吉煥

◇吳相根

苦惱에 찬 司祭

◇부산으로 이송돼 南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기직전의 崔基植신부。수사관들에 의해 팔짱을 낀채 고뇌에 찬 표정을 짓고있다。【釜山=朴泰弘기자】

나머지 神父8명 不拘束 수사키로

또 光州美문화원 방화주범 丁淳苗(27)과 학원사태주동자 朴啓東(30)등을 은닉해준 혐의로 조사를받아온 安東교구 鄭鎬庚신부등 8명의 신부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수사키로했다。

崔신부는 지난 80년5월 순 金鉉奬이 光州사태주동자인줄 알면서도 原州교육원보일러실 밀실에은신처를 제공했고 80년12월중순부터 金으로하여금 대학생의식화 수련회를열도록하여 全州 釜山 原州동지의 대학생27명에게 학습교재를제공, 합숙교육을 시키도록했으며 또 지난3월 19일에는 金이 釜山 방화사건을 조종했다는고백을 하자 도피은신자금으로 50만원을 준 혐의를받고있다。

崔신부는 文富軾과 金恩淑도 은신시키고 81년9월公州師大 금강회사건으로 도피중인 李相憲(23)을 長省성당 李炳敎신부(41)에게 소개 은신시켜준사실등도 밝혀졌다。

金鉉奬은 방화주범 文富軾에게 한미관계를 이간시키기 위해 美문화원에 방화하라고 지시했고 불온전단에는 북침준비완료등 문귀를 작성토록 교사했으며 原州로 도피해온 文과 金恩淑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했다는것。金은 또 평소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국가체제를 변혁,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평소 북괴방송을 들으며 북괴선동에 동조해왔고 80년5월 19일 光州사태와 관련、불온유인물을 제작했으며 80년12월부터 81년12월까지 6회에 걸쳐 27명의 학생에게 불온서적을 읽게하고 토론을통하여 한미관계를 이간질해야하며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로전환해야한다、북침준비를 하고있다는등 좌경의식화 시켰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原州교육원 보일러기사 文吉煥(37)은 교육원에 金鉉奬을 숨겨 주었으며 金으로부터 의식화교육을 받고 반국가단체활동에 동조、文富軾등을 숨겨주고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다。

原州치악산서점 주인 金英愛(25)는 金鉉奬으로부터 의식화교육을받고 대학생을 金에게소개、교육을 받도록했으며 金에게 도피자금을 주고 文富軾등의 도피를 도와주었다는것。

한국가톨릭농민회 조사부원인 吳相根(29)은 金鉉奬을 80년 5월부터 9회에 걸쳐 1~2일간씩 은신시켜주어 범인은닉혐의로구속됐다。

◇불구속입건 신부

▲鄭鎬庚신부(安東주교관) ▲宋基寅신부(三浪津성당) ▲柳康夏〃(大邱희망원) ▲金琰式〃(榮州〃) ▲趙正憲〃(三千浦성당) ▲金鳳熙(全州교구사목국장) ▲李炳敎〃(長省성당)

敎皇廳대사에 政府입장 통고

정부는 8일 상오 루치아노·안젤로니 駐韓로마敎皇廳대사에게 釜山美문화원 放火사건및 崔基植신부등에 대한 수사경위와 정부입장을 事前통고했다。

정부는 안젤로니대사에게 崔신부등 가톨릭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순수한 국내 實定法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종교활동의 자유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앞으로 모든종교의 활동을 계속보장할것임을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全대통령이 사마란치 IOC위원장에게 훈장을 수여하고있다。

國産전투기 領空수호

全대통령 空士졸업식서 강조

空軍力막중… 올해는 新紀元이룩

全斗煥 대통령은 7일『우리는 그동안 중화학공업과방위산업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最新鋭전투기의 자체조달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고 밝히고『그 결과 금년은 우리 손으로 제작한 우리의전투기가 우리의 領空을 지키게되는 空軍史上 일대 新紀元을 이룩하는 해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空士 제30기졸업식에 참석, 諭示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월등한 空軍力을 주축으로 初戰에 勝敗를 가름하는 速戰速決의 현대전에 있어 공군력이 군사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중한것이기때문에 세계 모든국가들이 최신예 항공기의 개발에 많은 財源과 노력을 경주하고있다』고 설명했다。

全대통령은 또『우리의 생존권확보에있어 최대의 敵은 바로 전쟁이며 전쟁을 막는 유일한길은 전쟁을 일으키려는 敵보다도 훨씬 강한 힘을 우리 스스로가 보유하는것』이라고 지적하고『우리가 강한힘을 갖게될때 우리를 武力으로 굴복시키려는측도 그 기도를 포기하게 될것이므로 힘의 備蓄은 전쟁을 막는 길임과 동시에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空士졸업식이 끝난뒤 空士교장실에서 空士현황을 보고받고 周永福국방장관, 尹誠敏합참의장, 3軍참모총장등과 약1시간동안 오찬을나누며환담했다。

사마란치에 훈장

全斗煥 대통령은 8일상오 청와대에서 88년서울올림픽대회준비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訪韓중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후안·안토니오·사마란치위원장(스페인人)을 접견하고 체육훈장靑龍章을 준뒤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함께 오찬을 베풀며 서울올림픽준비현황등에 관해 의견을나눴다。

美 브레진스키敎授 全대통령, 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8일상오 청와대에서 前美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이었던 즈비그뉴·브레진스키씨(美콜럼비아대학교수겸 조지타운 대학교 전략및 국제문제연구소 수석자문위원)를 접견하고 환담을나눴다。

英、戰爭구역 宣布

아르헨도 作戰지구로 대항

【런던7日AP聯合】영국은 오는12일하오1시(한국시간)를 기해 아르헨티나와 領有權분쟁을 빚고있는 南大西洋 포클랜드군도주변 2백해리 해역을 전쟁구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존·노트영국국방상이 7일 발표했다。

노트국방상은 이날 下院에서 포클랜드사태를에워싼 7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을 종결지으면서 아르헨티나가 강점한 포클랜드군도에대한 영국의 주권을 거듭 확인하면서 전쟁구역선포에 따라 12일 정오이후 이해역에서의 여하한 아르헨티나 함정도 적대행위로 간주되어 영국군의 공격을 받을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8日AP聯合】아르헨티나 군사당은 8일 존·노트 영국국방상이 포클랜드 군도주변 2백해리해역을 「전쟁지구」로 선포한 지 수시간만에 아르헨티나해안과 포클랜드주변 2백해리의 해역을 「남대서양 작전지구」로 선포했다。

改新敎元老등 劉總理 만찬會

劉彰順국무총리는 7일하오 서울三淸洞 총리공관에서 韓景職목사, 姜元龍목사등 改新敎의 元老목회자및 敎界대표등 18명과함께 만찬모임을 갖고 환담했다。2시간동안 계속된 이자리에 …

地下鐵공사장 大慘事

무악재서 버스추락

셋死亡 10여명매몰

기사 6면

百濟땅에서 伽倻유물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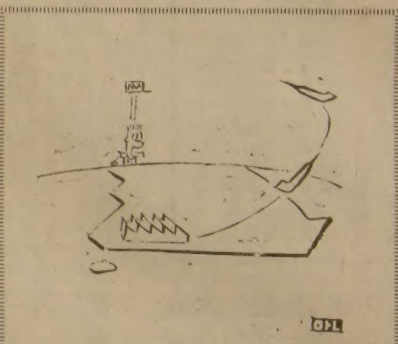
옛 역사문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수수께끼같은 나라의이름들이 눈에 띈다。그러나 몇줄의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이어서 역사학자들조차도 베일속에 가려져 있는 이런 나라들의 정체를 대부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바로 이같은 잃어버린 어떤 나라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고분이 전북南原에서 발굴되고있다。전북 南原郡阿英面 淸溪里에있는 고분군이 바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의 유적。

지난 5일「阿英고분」발굴현장에는 金元龍박사(서울大) 金正基박사(문화재연구소장) 金三龍교수(圓光大부총장) 李白圭교수(全北大) 全榮來발굴단장(全州시립박물관장)등 30여명의 학자, 문화재전문가들이 참석, 고분의 정체를밝히는 회의를 갖고 ①백제가 들어오기전 가야부족국가였다 ②아니면 三國史記등에 이름만나오는 己汶國 ③혹은 백제영토이면서도 가야와 문화교류가 많았던 부족장을 묻은무덤으로 추정했다。

Y—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수입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社會漫評


「國産전투기」곧 登場

地平線

『벚꽃이 피고 벚꽃이 지네/함박눈인양 날리네 갈리네…』韓河雲이 읊은 「踏花歸」의 한귀절。그 영상대로 벚꽃은 활짝 피면 서로 진다。湖岩 文一平도 「花下漫筆」에 이렇게 적는다。『일시에 피었다, 일시에 지는 것이 이 꽃의 두드러진 특징인 바, 필때보다도 질때가 더욱좋다』▼그는 또 이렇게도 말한다。『과거에 있어 꽃이라면 흔히 桃李杏花(복숭아·오얏·살구꽃)를 의미하니 만큼, 조선의 봄을 독차지 한 것은 桃李杏花였지만, 근래에 와서는 그 대신에 벚꽃이 봄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고있다』그 例證은, 한때 벚꽃名所로 알려졌던 서울 牛耳洞의 벚나무도 사실은 孝宗의 北伐계획때 활만드는 나무를 얻기위해 심었지, 꽃을 감상하려고 심은 것이 아니라는 故事。▼그가 「근래에 와서는」이라 한 연대는 아마 멀리 잡아야 20년대, 가까이는 30년대 이후일 것이다。昌慶苑만 해도, 일반공개가 1909년, 그 6년뒤부터 일본사람들이 궁안에 벚꽃을심기 시작하여, 24년에 처음 밤벚꽃놀이가 있었다고 기록에 보인다。전쟁통에 문을 닫는등 우여곡절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昌慶苑밤벚꽃 놀이는 50년을 넘었다。▼올 밤벚꽃 놀이는 돌아오는주말 10일부터 시작된다。꽃이 늦게 피었던 재작년보다는 1주일이나 빠르다。올벚꽃 花信이 일찍 닿은 것이다。暖冬위력이라 그런가도 싶지만, 봄꽃의 개화기는 겨울아닌 2~3월 평균기온에 가장크게 상관된다고한다。이른 꽃은 따뜻한 봄을 말함이다。벚꽃놀이가 늦었던 재작년에 冷夏가 들었던 일을 생각하여, 올봄의 이른 花信이 다행스럽게도 들린다。▼활짝피면서 지는 벚꽃은 많은 나무를 일시에 볼 때가 「一大美觀」이라고 湖岩은 말한다。그러나 벚나무의 자연생태는 낙엽수숲에 틈틈이 자랄뿐 무리를 이루지 않는다。그래서 벚나무는 한데 모아 심고 가꾸어야 「一大美觀」을 이룬다。본고장을 자처하는 일본의 벚꽃名所도 자연림은 아니다。내버려두면, 벚꽃名所는 나무의수명이 다함과 함께 사라지게 마련이란 얘기나 같다。▼牛耳洞벚꽃은 그렇게 사라졌다。原産地인 濟州에서도 왕벚이 멸종위기란 말을 들으며, 이젠 스스럼 없이 벚나무 숲을 가꿀만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그렇게 해서 왕벚나무 原産地다운 名所한군데쯤 있었으면한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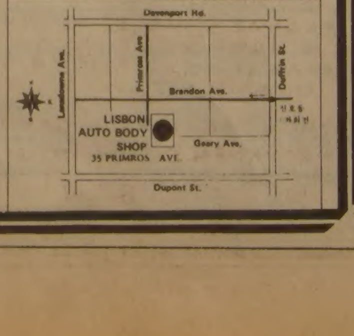
SunLife OF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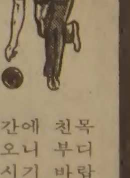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당신의 비지네스를 돕는 비데오
$ EARN EXTRA CASH $
★빌려 드립니다
레스토랑, 술집, FAST FOOD,
버라이어티 스토아,
커피샾등 장소에
적합합니다.

※흥미있으신분
연락바랍니다.
☎ : 429—3929
요코하마 코인 머쉰 LTD.

LISBON AUTO
COLLISION INC.
⊙A급 BODY MAN
⊙A급 페인터.
⊙수리중 차대여
⊙사고후 보험처리—책임보증.
⊙TOWING 써비스
⊙철저한 신용

※완전 BODY WORK !
주소 : 35 PRIMROSE AVE. TOR.
전화 : (B)533—8507. 8508
(R)439—6548. 266—8925
이영두. 이건학 형제


배재동창회
볼링 대회

아래와 같이 배재동창회원들간에 친목을 위한 볼링대회를 갖고저 하오니 부디 많이 참석 하셔서 하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거의 개인연락을 취할수없으므로 참여희망 동문들 께서는 연락처로 즉시 신청하여 주시면 여러가지 준비관계상 많은 도움이 되겠읍니다.
일시시 : 1982년4월17일(토)오후2시정각
장 소 : NEWTON BLOOK BOWLERAMA
5837 Yonge St.(2블럭 North of Finch)
참가비 : 선수당(남,녀) $10(볼링 FEE, 슈조및 음료수 포함)
상 품 : 남1등~5등(트로피)
여1등~5등(트로피)
연락처 : 부회장(송우진 781—5083)
총 무(김정현 924—3905)
체 육(라명운 533—6702)
재 무(이학현 563—6334)
기 획(이동규 929—0630)
토론토 배재동창회회장손명수

中共 한반도安定에 기여

홍콩紙 보도 北傀도발 抑止역할 비쳐

"東아시아 平和유지협력

美、臺灣에 무기販賣계속땐 위험"

【홍콩6日=聯】중공이 한반도를 비롯한 東아시아지역의 평화유지와 지속적인 안정을위한 주요세력으로서 기여하고있다고 6일 홍콩의 중공계석간「新晩報」가 보도했다。이것은 중공이 북괴의 한국에 대한 군사도발의도에 抑止역할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음을 처음으로 시사한것이다。

신만보는 이날『대만을 장악함으로써 중공을 견제한것인가?』제하의 분석기사에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관매를 비판하고 미국내에는 중공을 견제하기위해 東아시아뿐만아니라 세계적위협의 원천이 되고있는 소련에 대한 견제력을 약화시키려는『어리석은자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레이건 대통령은 한반도와 東아시아에 대한 중공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을수있다는 말인가?』고 반문했다。

이신문은 또 대만문제에관한 美·中共회담이 지난5일 워싱턴에서의 헤이그국무장관과 柴澤民駐美대사간의 비공식회담에 이어 가까운장래에 北京에서 공식 개막된다고 밝혔다。

◇記者에 둘러싸인 핌英외상 프란시스·핌신임英國외상이 6일 포클랜드群島위기를 논의한 각의에 참석한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수상관저를 나오고있다。【런던 6일 AP電=聯】

"戰術核 선제사용 排除못해

헤이그 현수준凍結은 위험한상황"

【워싱턴6日AP·聯=本社】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은 6일 美國은 세계평화에 필수적인 전쟁억지력을 유지하기위해 전술核무기의 선제사용을 배제할수없으며 현수준에서 핵무기를 동결하는것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 빠져드는 모험을 하지않을 것이라고말했다。

헤이그장관은 레이건대통령이 실질적인 核군축을 협의하기위한 브레즈네프 蘇聯공산당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한지 하루뒤 이날 조지타운대학부설 국제전략연구소에서「힘을 통한 평화」라는 제목의 연설을통해 이와같이 말하고 미국과 소련간의 核균형은 세계평화와 서방의 안전을위한 관건이며 세계평화와 현실적인 핵감축목표를 달성하자면 서방동맹들은 힘의 입장을 유지해야만 될것이라고 역설했다。

헤이그장관은 핵전쟁을 막고 소련으로하여금 핵감축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안은 서방진영이 강력한힘을 유지하고 도발을 받게될 경우 核무기를 사용할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民間人 1만명逮捕
우간다 게릴라掃湯

【나이로비7日AP=聯】우간다 보안군과 경찰은 反政府게릴라에 대한 대규모 소탕작전을 벌이면서 7일 수도 캄팔라 지구에서 1만여명의 민간인을 체포했다고 캄팔라소식통들이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잠거리전화를통해 보안군과 경찰이 이날새벽을기해 수도와 주변지역의 가택을수색 15세이상의 주민들을 대량으로 트럭에태워 캄팔라중심가에있는 경찰학교 연병장으로 연행해갔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우간다군경은 체포된자들의 신분증을조사하고 검문검색을했다고 말하고 정오현재 아직 한 사람도 풀려난 사람이없다고 덧붙였다。

캄팔라와 접촉을 갖고있는 나이로비주재외교관들은 이같은 대량검거가 80년12월 밀턴·오보테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최대규모일뿐 아니라 우간다사상 최대규모가될것이라고말했다。

우간다군경은 지난 2월23일 반정부게릴라가 캄팔라의 주요 군병영을 습격한이래 3개게릴라단체에 대한 소탕작전을 강화해왔다。

美、아르헨支援안해
英포클랜드 攻擊땐

【워싱턴7日UPI=聯】미국이 美洲국가들에 대한 방위를공약한 리오조약에 의거、영국의 포클랜드군도 공격시 아르헨티나를 지원하게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없다고 캐스퍼·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이 7일 말했다。

와인버거 장관은 이날 NBC·TV의「투데이·쇼」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아르헨티나가 미국에대해 리오조약을 준수하라고 요구할경우 미국이 어떤반응을 보일것이냐는 질문을받고『나는 현단계로서 이 조약에 의거、행동을 취하게될 어떤 가능성도 없는것으로 생각한다。우리는 포클랜드점령에 군사력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염두에두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점령에 따른 영국、아르헨티나간의 분쟁을 중재하려고 시도중이나 양국 모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2개의 조약사이에 끼여있다。

미국은 지난62년체결된 협정에따라 英國에 대해 대서양상 아센션섬의 공군기지사용권을 부여하도록 약속했으며 리오조약에 의거、美洲국가들이 공격을 받을경우 이들을 지원할것을 공약하고 있다。

中小業투자 稅制지원

羅재무 財務委답변 再割비율80%로

국회財務委는 8일 하오羅雄培재무장관으로부터「최근의 經濟動向과 財政金融정책방향」에 관한보고를 듣고이에 따른 일련의 질의를 벌였다。

이날 羅장관은 中小企業육성과 資金難완화책과 관련、『중소기업의 자금지원 확대를위해 중소기업발행 어음의 韓銀再割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한편 大企業의 것은 50%에서 40%로 낮췄지만 이것이 실효성이없을경우 중소기업의 再割비율을80%로 높이고 대기업은 더낮출 방침』이라고 밝히고『또 대기업은 單資、社債 발행등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토록 유도하는한편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토록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羅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활성화하기위해 稅制上의 지원도 고려하겠다』면서『이번 金利인하조치로 모든 기업들은 총3천억원의혜택을 받게되며 이중 中小기업은 1천억원의金利인하혜택이 돌아가게될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總通貨와 통화량증가의 괴리현상은 총통화에는 포함되지만 통화량에는 포함되지않는 저축성예금증가폭이 컸기때문이며 이같은 현상으로 구매력이 감소되고상품의 在庫가늘어 경기가 활성화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羅장관은『앞으로는 총통화뿐 아니라 통화량도 종합관리하여 자금의 흐름이 梗塞되지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지난 3월20일부터 3월말까지 자금이 경색된 이유도 이 시기가 자금의 盛需期인데반해 2월말까지 많은 자금이 나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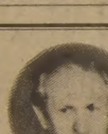
그는『신탁은행의 預貸이자마진이 높은것은 이미 2~3년의 高金利신탁자금을受託받았기때문이며 앞으로 수면 신탁금리도 낮추겠다』면서『또 신탁자금은 84년부터 他시중은행에도 취급할수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羅장관은 또 3월말까지의 반·特計、기금등의 재정적자규모는 2천50억원으로 작년同期의 3천4백40억원보다 1천3백90억원이 줄어들었다면서『그러나 이때문에稅金공세는 취하지 않겠으며陰性稅源의 양성화등의 방법으로 稅收결함을 보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櫻內외상 5월訪韓
60억달러經協 협의

【東京8日=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는 사꾸라우찌 외상을 5월연휴(3일 헌법기념일, 5일 어린이날)에 派韓、양국현안인 60억달러경제협력문제를 타결할 방침으로있다。

사마란치 IOC委員長
5分인터뷰



올림픽 경기種目 육성에 적극 지원
中共참가할듯…北韓 태도 아직몰라

『88년 서울올림픽은 미래에 도전한다는 측면에서 한국민에게는 매우 중요하지요。한국체육지도자들의 열의를 볼때 훌륭한 올림픽을 치룰수있을것으로 확신합니다。나 자신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9월30일 국제올림픽(IOC)총회에서 서울올림픽 개최를 선언했던 후안·안토니오·사마란치(62. 스페인)(사진)IOC위원장이 7일저녁 서울에왔다。

80년7월 모스크바 IOC총회때 위원장에 피선된후 한국을 첫 공식방문한 사마란치 위원장은『서울올림픽대회 준비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한국정부및 올림픽관계자들을 만나 상호의견을 교환、IOC와 서울올림픽준비기관과의 협조를 증진시키기위해 방한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평양 북경을거쳐 마닐라 홍콩 대북등에 들렀던 사마란치 위원장은『中共은 서울올림픽에 참가할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아직 참가여부에대한 결정을 짓지 않은 상태가 아닌것같았다』고 전했다。그러나 IOC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마땅히 북한도 서울올림픽에 참가해야된다』고 밝혔다。

사마란치위원장은『세계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어도 올림픽에대한 국제적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여태 올림픽중 가장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겠다는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올림픽개최에 필요한 기술요원양성과 한국에 지금까지 보급안된 올림픽경기종목을 육성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IOC 1백48개회원국가운데 54번째로 한국을방문했으며 올림픽이 88년에 개최될때까지 매년 서울에와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영학을 전공한 사마란치 위원장은 스페인의 항구도시 바르셀로나시의회 회장을 지냈고 77~80년까지 소련및 몽고대사를역임했다。모국어는 물론 영어 독일어 불어 노어등 5개국어에 능통하며 스페인내 50대재벌에 속하는 사업가、하키 골프및 축구에도 뛰어난 스포츠맨이다。취미는 예술및 스포츠관계 우표수집。【安準燦기자】

9人小委 중단

民韓、속기록요구로

국회 外米도입 진상규명小委는 8일 10차 회의를 갖고 小委활동을 決算하는 보고서작성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民韓黨의원들이 그간 4차례에 걸친 회의의 속기록 배부를 요구하여 회의가 중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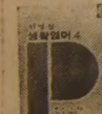
이날 民韓黨의원들은 회의에앞서 모임을갖고 ▲농수산장관、조달청장등 관련책임자 인책 ▲外米의 高價·過多도입에대한 정부측의 사과 ▲금년에 도입키로된 美國쌀 37만톤의 국내반입중단 ▲양곡수급 결정과정에 국회의 참여등을 반영토록 요구하고 뇌물수수에대한 단정적인 결론을 보고서에 싣지않을것을 요구키로 했다。

北傀 권력序列

【서울=聯】北傀는 지난5일 平壤에서 소집된「최고인민회의」제7기 1차회의에서 그들 정권기관의「주석」「부주석」「중앙인민위원장」「정무원총리」「부총리」등 요직을 몇몇部署를 제외하곤 대부분 留任시킨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北傀가 밝힌 「요직」현황은 다음과같다。

◇主席=金日成 ◇副主席=(3)金一·康良煜·朴成哲 ◇중앙인민위원회서기장=林春秋(留) ◇중앙인민위원(15)=金日成·金一·朴成哲·康良煜·林春秋·徐哲·李鍾玉·吳振宇·崔賢·(新)尹基福·吳白龍·金萬金·李根模·(〃)姜希源·(〃)金煥·洪時學·桂應泰 ▲政務院 ▲總理=李鍾玉(留) ▲副總理(13)=姜成山·桂應泰·許錟(외교부장겸임)·洪成龍(계획위원장겸임)·崔光·洪時學(채취공업위원장겸임)·孔鎭泰(무역위원장겸임)·金煥·김창주(농업위원장겸임)·金會一(교통위원장겸임)·金斗英(건재공업위원장겸임)·金福信(女·경공업위원장겸임)·鄭浚基(과학원장) ▲기타政務院부서 인민봉사委(林亨九)·文化예술부(李昌善)·무역부(崔定根)·전력공업부(金영채)·자원개발부(李智燦)·체신부 …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 ▲위원장=黃長燁(留) ▲부위원장(2)=許貞淑(留·女)·洪起文 ▲事務長=金二勳 ▲委員(15)=黃長燁·許貞淑·洪起文·金二勳·金寬變·(新)鄭東喆·(新)廉泰俊·(新)李영수·(新)金聖愛·(金日成現妻)·金鳳孫·千世鳳·李용익·李煥·柱成弼 ◇豫算審議위원회 ▲위원장=金煥(新) ▲위원(6)=金창주·洪成男·孟태위·朴승일·張允弼·李승성 ◇法案審議위원회 ▲위원장=尹基福(留) ▲위원(6)=方學世·李鍾洙(新)·金성학·韓상규(〃)·朴守東(新)·韓승학 ◇司法기구 ▲中央裁判所長=方學世(留) ▲中央檢察所長=韓상규(新)



민병철 生活英語 4권
파티등 50여상황 表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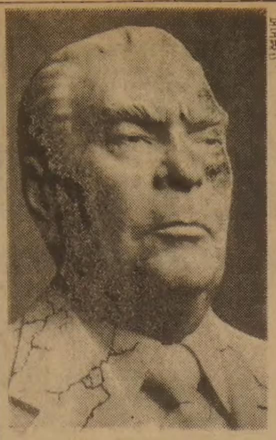
민병철생활영어 제4권(사진)이 출간됐다。

제4권의 내용은 1권~3권에 미처 담지 못한 실제생활에서 이용되는다이얼로그들을 모은것。해외여행、파티석상、이웃사람들과의 회합、취미와 레크리에이션등 일상적인 장면에서 대표되는 50가지 상황을 모아 재미있는 이디엄(관용구)을 사용해서 펼쳐 나갔다。

終末임박·「브레즈네프」

黨中央委회의 5월하순 연기의 背景

"체르넨코 후계자경쟁서脫落" 전망
KGB 首腦도 야심…경쟁치열할듯



◇소련지도체제의 붕괴를 상징하는브레즈네프흉상。【뉴스위크誌】

소련지도자들은 브레즈네프후계작업에 시간을 갖기위해 지난주 열기로 예정했던 당중앙위원회회의를 5월하순으로 연기했으며 브레즈네프는 이 당중앙위원회의에서사임하게될것이라고 뉴스위크지가 美정보보고서를 인용、보도했다。

오는12일자로 발행된 이 잡지는「브레즈네프의종말」이란 커버스토리에서 브레즈네프후계 위기기간중 소련지도자들은 국내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겠지만 갑자기 균형을 잃어 약화된 소련의 인상을 씻어버리기위해 국제문제에서 더 공격적으로 나올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잡지는이어 前브레즈네프비서였던 콘스탄틴·체르넨코 정치국원(70)이 후계 물망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이미 다른 주요경쟁자들의 반대를 받고 있으며 5월의 후계싸움에서는 결코 승자가 될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는한편 소련 비밀경찰(KGB)의 우두머리며 정치국원인 유리·안드로포프(67)가 체르넨코를 브레즈네프후계자로 올려세우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고있으며 안드로포프자신이 제1인자가 되려는 야망을 오래동안 품어왔다고 소련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안드로포프KGB의장

체르넨코정치국원

우스티노프國防相

그러나 KGB두목 안드로포프는 KGB의 경쟁자인 소련군부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며 소련군부지도자들은 크렘린의 전력변동에 과거에도 발언권을행사해왔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드미트리·우스티노프국방상(73)을 후계후보로 내세울 것이지만 우스티노프는 건강이 좋지않은 편이라고 전했다。

뉴스위크지는 또 KGB의 안드로포프나 군부의 우스티노프는 상호균형과 견제로 권력투쟁에서 배후조정역할을 하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경우 크렘린권좌는 보다 젊은지도자들에게 넘겨지는 기회도 열릴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기사는 그밖에도 젊은 크렘린 지도자로 농업담당 담서기 미하일·고르바초프(51)가 유망주로 꼽히고 있으나 당장 브레즈네프후의 정권담당자로 현실성이 짙은것은 역시 브레즈네프세대며2、3명의 늙은 지도자가 과도정부를 1、2년간 형성했다가 보다 젊은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는것도 한방법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7日=曺洋煥특파원】

인사이드

日서 世界최대 해저터널 건설

쓰가루海峽 총연장 54km
18년간工事…年 8百억엔 投資
올가을 開通 1·6km 남겨

스위스가 자랑하는 총연장 20km의 심플론 터널을 능가하는 세계최대의 海底터널이 현재 일본의 훗까이도(北海道)와 혼슈(本州)를 잇는 쓰가루(津輕)해협에서 건설되고있다。

훗까이도의 후쿠시마(福島)와 혼슈의 다빠 곶(岬)을 잇는 세이깐(青函)터널은 총연장이 무려 53·85km에 달하며 해저부분만도 23·3km에 달하는 세계최대、최장의 터널이다。

이 공사를 맡은 일본國鐵은 현재 마지막 1·6km구간의 해저터널공사를 남겨놓고 오는가을까지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피치를 올리고 있다。

國鐵측은 해저 1백m、해면에서 2백40m 아래에 건설되고 있는 이 터널이 개통되면 오는85년부터 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며 이 터널을 운행하는열차를 탄환열차인 신깐센(新幹線)으로 선택할것도 고려중에 있다。

현재 아오모리(青森)와 하꼬다데(函館) 사이의 쓰가루해협을 잇는 교통편은 항공편을 제외하면 4시간이 소요되는 여객선이 전부인데 이 여객선도 1년이면 80일간은 풍랑으로운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에 新幹線이 투입될경우 도오꾜(東京)에서 훗까이도의 삿뽀로(札幌)까지 16시간50분 걸리는 여행시간이 5시간40분으로 3분의2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日本의 세이깐터널에 대한 日本국민의 기대는 그만큼크다。

지난54년에는 한여객선이 이 해협을 통과하던중 몰아친 바람에 1천1백여명이 몰사한 일이 있었다。

특히 53·85km의 초구 변방인 훗까이도의 개발도 촉진될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있다。

國鐵은 당초 64년에 공사를 시작、74년에 터널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기술상의 문제와 끊이지않는 해저사고 그리고 엄청난공사비부담때문에 공기를 않아왔다。

착공당시 2천억엔으로 예산했던 공사비가 18년간 3배로 늘어났으며 또한 세이깐터널의 효용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의가 제기되므로써 國鐵측은 어려움을 겪었다。

國鐵은 지난 64년이후 1백여엔의 공사비와 7백여엔의 인건비를 합쳐 매년 8백억엔씩 투자、사실상이 액수만큼 적자를 기록한것으로 알려졌다。

세이깐터널공사에만 이미 1조엔의 예산을 투입한 日本정부도 더이상의예산할당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마을의 주택이 개량되고 하수도가 시설되는등 마을이 발전한것은 다행이지만 이에따른 주민들의사치성향으로 마을지도자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전통유지에 고심하고 있다。【후꾸시마=AP聯】

海外토픽

5일간 눈속에묻혀
★20代아가씨 극적구조

22세의 스키 리프터인 안나·마리아·콘래드양이 지난달 31일 北캘리포니아스키場의 눈사태로 5일간 눈속에 묻혀있다가 6일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7명의 사망자를 낸 이사고에서 콘래드양은 발견당시 스키복과 털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머리를 다쳤으나 그동안눈을 먹으며 목숨을 부지해왔다는것。【알파인메도즈(캘리포니아州)=聯】

◇첫女性 地下鐵운전사 이본느·부르커라는 파리의 아가씨가 女性으로서는 처음으로 地下鐵운전사로채용돼 자랑스러운듯 포즈를 취하고있다。【키스톤=聯】

포클랜드 交通혼잡
★侵攻軍·住民 규칙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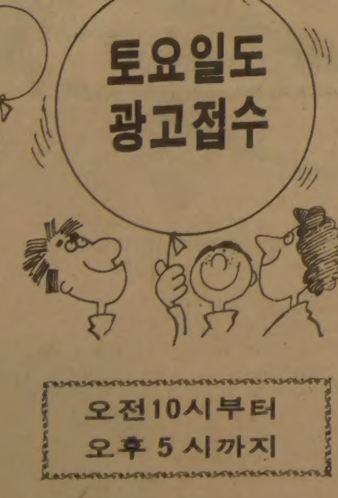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군도를 무력점령한후 현지의영국계 주민들과 아르헨티나침공군은 서로 그들 고유의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있어 포클랜드군도의 교통질서가 난장판이됐다。

이같은 교통질서파괴는 영국계 국민들이 자동차운전을 좌측통행으로 하고 있는반면 아르헨티나 점령군은 그들의 지프와 장갑차및 탱크를 몰때 항상 우측통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으로 아르헨티나 당국이 조만간모든 차량의 우측통행을 골자로 한 단일 교통법규를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보도했다。【부에노스아이레스=AP聯】

「사업成功法」출간
★책발행인은 빚지고파산

독자들에게「사업성공법」을 소개해온 한 잡지사발행인이 자신은 그만 3백만달러의 빚을진채 파산신청을하고 말았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간되는「기업가」라는 잡지사를 운영한 처이스·레블 사장은 항상 이 잡지를 통해 성공한것을 주장해왔는데 이번 파산신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을 겁내고 있다。【로스앤젤레스=UPI】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 국 일 보 광 고 부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금,토,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 883-9407
●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주간女性

절찬리에 판매중인 주간 여성지

새 가격 $2.50

(한국에서 송료 상승으로 인해 4월초부터 소매가격 50¢씩 인상을 알립니다.)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시내버스·大型크레인 3臺추락

地下鐵 철판붕괴…15명 매몰

어제 서울 峴底洞…18m 곤두박질 死傷者늘듯

서울의 지하철공사장에서 첫대형사고가 발생했다. 8일하오 5시45분께 서울 西大門區 峴底洞90 서대문구 청사앞 지하철3호선의 3-8공구(시공업자 삼호주택 현장소장 이인한)에서 덮개철판 수백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위를 달리던 시내버스1대와 작업중이던 대형크레인2대등 차량3대가 지하 18m 밑으로 떨어졌다.

이날사고는 3백톤급 대형 크레인 2대가 땅속의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하는도중 서울5사2550호 146번 버스(운전사 임정호·38)가 철판위를 달리다가 무게를 견디지못한 철판이 무너져내려 크레인과함께 아래로 굴러떨어져 일어났다.

이사고로 버스승객및 크레인운전기사등 3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2~3명이 매몰된것으로 알려졌다. 사고후 靈泉일대에는 왕복교통이 모두마비되었는데 경찰은 구호차를동원, 사상자의 긴급구호에 나서는한편 현장수습을위해 대형 크레인등도 동원 밤늦게까지 구조작업을 폈다.

그런데 무너져내린 철판이외에도 인근철판들이 들떠있고 철근구조물이 뒤틀려 이날하오6시현재 구조차량이 제대로 접근치 못하고있다.

한편 사고원인을 조사중인 경찰은 현장감독 권만수씨(45)진술에 따라 TNT발파작업중 철판을 받치고있던 암석이 떨어져나가 철판이무너져 내린것으로 보고있다.

이날 현장근처에서 사고를 목격한 峴底洞78 구멍가게주인 李虎寅씨(57)는『갑자기 우르릉소리가나서 가보니 철판과함께 지반이 무너지면서 버스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사고로 弘恩洞―도심지간의 교통을 洗劍亭·金華터널등으로 우회하도록 긴급조치했다.

붕괴된 공사구간은 총길이 1백여m, 폭30여m로 해빙과함께 지반이 약해진데다 대형크레인과 버스등이 한꺼번에 지나다 노반이 무너지면서 함께 빠진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하의수도관(직경50㎝)이 파손되어 공사장은 물바다가 되었으며 무악재―독립문사이의 50여개점포 상인들이 가게문을닫고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지반이 계속 더무너져 내릴것으로보고 하오6시30분현재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인근 주민 상인들의 대피를 종용하고 있다.

爆藥 터질우려 현장 접근못해

사고직후 현장 지하공사구간에있는 일부 공사용폭약이 폭발, 구조차량및 복구작업반이 접근을하지 못했으며, 사고당시 공사장밑에는 발파조 10여명과 착암조 10여명등 모두20여명이 있었는데 4~5명은 사고전에 지상으로올라왔으나 15~16명이 행방불명이어서 매몰된것이 아닌가보고 구조작업을 펴고있다.

서울의 지하철공사는 대부분이 공사비관계로 [illegible] 대신 오픈컷을 채택하고있어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한편 사고당시 지하구간에서 발파작업을 하고있던 삼호주택 소속 발파조직원 3명과 철골조직원6명이 하오 6시현재 행방불명이되어 경찰은 이들9명이 매몰된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구조된 철골조원 李秀世씨(44)에 따르면 사고순간 자신은 지상에 있었고 나머지 동료들은 지하구간에서 발파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쾅소리와함께 철판이무너져내려 피하려했으나 미처 피하지못해 빠졌다가 구조되었다는것.

◇어제하오 서대문구현저동 지하철공사장 철판이내려앉아 시내버스와 대형크레인이 그밑으로 추락,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은닉罪만 적용 愼重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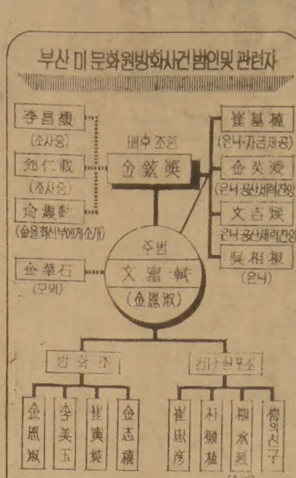
崔신부에, 서울서 釜山까지 5명의 13시간

다신 이런事件 없어야

徹夜…令狀마라톤 검토

崔신부는 수감때 手匣안차

성역(聖域)으로까지 불러왔던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은 崔基植신부가 8일 구속됨에 따라『국사범을 비호, 은닉해주고 도피자금까지 대준 행위』에 대한 처벌에는 예외가 없다는 판정이내려졌다. 며칠동안 시중의 톱뉴스로 부각됐던 이「사건」이 일단매듭단계로 접어들자 시민들은 안도의 빛을감추지 않으면서 앞으로 제2의 崔신부, 제2의 金鉉奬이 다시 나타나지 말아야할것이라고 입을모았다.



구속영장발부 崔신부등 5명이 부산으로 호송되기에앞서 이들에관한 관계서류는 7일하오7시 서울로부터 비행기편으로 부산에 급송되었다. 서류를 인계받은 부산시경은 7일밤9시께부터 서류검토를 시작했고 구속영장은 8일새벽5시 부산지검공안부에 접수되었다. 영장접수전에 미리 나와대기하고 있던 金斗壽공안부장검사와 崔炳國검사는 45분간 영장을 검토한후 상오5시45분 영장에 서명, 부산지방법원에 영장을 신청했다.

이때법원은 당직 李贊孝판사가 5시께부터 영장을 기다리고있었고 이어 安相敦형사1부부장판사가 출근, 2시간동안검토한후 8시10분께 영장을발부했다. 판사들은 영장을 발부한후 영장발부에 대해 법원장에게보고하기위해 법원장 관사로 황급히 떠났다.

한편 구속영장을발부한 李贊孝판사는『崔신부의 혐의사실이 너무나명백해 구속영장을 심리하는데 어려움이없었다』고 밝히고『재판과정에서도 崔신부가 성직자라는 점이 실정법상 크게논란이될 여지는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李판사는 영장심리에 2시간 이상이 걸린데 대해『사건이 중요하고 기록이 방대해서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법조계인사들은 사건의 내용으로보아 경찰이 崔신부에게「범인은닉」만 적용한 것은 사건을 신중하게 다룬 흔적이라고 논평하기도했다.

수감 崔신부등 5명은 영장이 발부될때까지 5시간30분동안 부산시경 별관에서 대기했다. 상오 8시10분 영장이 발부되자 崔신부는 金英愛와함께 부산南部경찰서에, 金鉉奬과 文吉煥은 釜山鎭경찰서에, 吳相根은 影島경찰서에 각각 수감되었다.

영장발부와 함께 崔신부를 제외한 4명에게는 수갑이 채워졌으나 崔신부는 南部서에 수감될때까지 수갑이 채워지지 않았다. 경찰서에 도착한 崔신부는 치안본부 수사관에 의해 유치장으로 인도되었고 경찰서측에서는 미리 수감준비를 해놓아 1호실에 崔신부를, 2호실에 金英愛를 각각 수감했다. 한편 金鉉奬은 보도진의 플래시에 태연한 표정을 지어 보였으나 文吉煥은 계속 두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호송 崔신부등 5명은 부산 이송에앞서 7일밤 9시7분께 경찰마이크로 버스편으로 그동안 조사를 받아오던 치안본부를 떠나 서울龍山경찰서에 도착, 경찰서앞 마당에서 7분간 대기했다가 부산으로 향했다. 이들을 태운 마이크로버스에는 수사관7명이 동승, 崔신부등 5명의 창문쪽 옆자리에 붙어 앉았다.

호송차는 8일 새벽3시 부산톨게이트를 통과할 때까지 고속도로 순찰차8대의 구간별 릴레이식 에스코트를 받았고, 그 뒤로 서울에서부터 뒤쫓는 보도진들의 취재차량이 잇달았다. 호송차는 永同을지나 금강휴게소와 慶山아래 평사휴게소에서 2차례휴식을 했고 금강휴게소에서는 고 매점에서 사온 빵과 우유를 나누어먹는 모습도 보였다.

崔신부는 호송되는 동안 한번도 졸지않고 옆자리의 수사관과 이야기를 하기도했고 담배를 나누어 피우기도 했다.

金鉉奬은 서울에서부터 수갑을 차고 있었고 金英愛는 시종 입을 다문채 앞쪽을 쳐다보고있었고 文吉煥과 吳相根은 피로운듯 고개를 숙이고 카메라플래시를 피했다.

이따금 손흔들고 호송차가 8일새벽 부산톨게이트에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부산지역등의 보도진30여명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며 접근했고 호송차는 이들의 추적을 받으며 곧장 [illegible] 부산시경 별관으로 향했다.

한편 항공기편으로 부산에 공수된 관계기록은 호송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시간에 부산시경, 부산지검, 법원등 관계기관에 [illegible] 검토됐다.

이날 崔신부는 호송에서 수감될 때까지 이따금 손을 들어 머리에 대고 생각에 잠기는 표정이 엿보였다.

池學淳주교講論 "공정히 處理되길"

【原州】8일 성유축성미사에서 池學淳주교는『原州교구파문으로 물의를 빚어 미안하다』고 밝히고『이번 사건이 법에따라 공정하게 처리된다면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池주교는 강론을 통해 이같이밝히고『최근 천주교가 마치 용공분자 양성소인것처럼 인식되고 있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말했다.

池주교는『유신론을 이념으로하고있는 가톨릭이 어찌 공산주의자들을 돕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북한과 중공에서 신부들이 희생된 사실을 회상시켰다. 池주교는 또『사제들이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있는지를 신자들은 잊지말아야한다』고 당부하고『사제의 개인적인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제개인의 실수로 돌려 관대히 봐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소 9시면 교구청에 출근하던 池學淳주교는 상오11시 圓洞성당에서 있은 성유축성미사때까지 교구청에서 약2㎞떨어진 주교관에머문채 외부인과 접촉을 피했다. 池주교는 7일에는 상오9시께 교구청에 정상으로 출근, 金鍾泰총대리신부와 가톨릭농민회 原州분회장 嚴東根씨(45), 사회개발위원회 金영규 실장등과 사후대책을 논의했으며 상오10시께에는 原州경찰서장 孫用權서장과 만나 20여분동안 대화를 나눴다.

金추기경 聖油축성미사 "이번사건 社會의아픔 司祭職 시련과 犧牲의길"

金壽煥추기경은 8일 상오10시 서울明洞성당에서 열린 성유축성미사를 집전하면서 강론을 통해『이번 崔基植신부 사건은 정치문제와 너무나 깊이 관련돼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확실히 우리사회의 아픔이라』고 말했다.

金추기경은 또『매스컴이 이번 사건을 가톨릭교회가 [illegible] 처럼 [illegible] 보도를 하는데 이런 보도태도가 과연 사회와나라에 이익이 되는지 묻고싶다』고 말하고『교회가 속죄의 양이 돼 사회의 안정이 이룩된다면 기꺼이 달게받겠다』고말했다.

金추기경은『崔신부가 수배중인 범인을 은닉했기때문에 구속돼 물의가되었다』고 말하면서『만일 예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떤 태도였을까』고 말했다. 金추기경은 [illegible] 실히 다할것을 다짐하는 이날 성유축성미사에서『지금은 어려운때』라고 말하고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간절한 때 사제와 신자들은 더욱 열심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金추기경은 성유축성미사를 끝내고 신부들과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신부들에게『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말고 사태의 진전을 지켜보자』고 당부하고『정부와의 대화는 언제든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光州사태 主動혐의 崔雲龍도 검거

光州사태주동자로 공개지명수배된 崔雲龍씨(38·무직)가 7일상오 8시45분 서울西部경찰서 형사대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崔씨가 고교선배이며 맹인인 孫훈씨(39·서울市區墨井洞29의27)집에 사업을이유로 자주 드나든다는 첩보를입수, 孫씨집 문앞에서 잠복하고있다가 문을 나서는 崔씨를 덮쳐 검거했다.

◇崔雲龍

치안본부

崔신부등에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후 8일 하오 [illegible] 치안본부는 그동안의 수사과정을 발표했다. 「발표」는 하오6시 이후로 늦어졌고 발표내용도 간단한것이었다. 사건의 공식발표는 8일 상오 9시30분께 安應模치안본부장 대신 朴培根4부장이 미리 인쇄된 유인물을 읽는 정도로 끝났다.

河英雄 항소기각 懲役1년6월

서울형사지법항소1부(재판장 許正勳부장판사)는 7일 전龍山경찰서 수사과 河英雄피고인(41)에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河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1심대로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우리는 친구

昌慶苑 불곰에 반한 梁聖旭씨

人間事잊고 1週두번찾아와「對話」

昌慶苑동물원의 바다사자와 곰들은 梁聖旭씨(57·사진·서울東大門區龍頭洞 남성공업사경비원)가 찾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자주는 못오지만 일주일에 두번씩 잊지않고 동물원을 들르는 梁씨와 동물들은 이미 오랜 친구사이.

청어와 고등어등이 든 박스를 들고 그가 우리가까이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바다사자는 점핑을 하며 입을 헤벌리고 곰은 두발로 버티고서서 손짓까지하며 반갑게 인사한다.

빠지지않고 동물원을 찾는 까닭은「거짓」과「술수」로 분칠을 하고 남을 이용만하는 인간보다는『위선을 모르는 동물쪽이 더없이 좋기때문』.

5년전의 일이다. 식유(食油)도매상을하면서 편찮게 살던 梁씨는 돈을 남한테 빌려준것이 화근이돼 집까지 날렸다. 그가족들과 뿔뿔이 헤어져 살아야만하는 생이별의 아픔도 겪어야했다.

그길로 새출발한 직업이 월급12만원을 받는 공장의 야간경비원. 어느날 잠을 제때에못자 퉁퉁부은 눈을 하고 무심코 찾은곳이 昌慶苑동물원이었다. 바다사자와 곰들이 천진스레 놀고있는 우리옆에서 梁씨는 부글부글 끓는 인간의 배신감에 대한 분노를 삭일수가 있었다.『말은못해도 차라리 너희들이 낫다. 너희들과 친구가 되자』 놀란듯 내뱉은 그의 한맺힌 결심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생선을 사들고 동물친구들을 틈나는대로 찾아가 무언의 대화를 나누곤했다. 요즘도 昌慶苑엘 가는 날이면 그는 아침 일찍 淸凉里수산센터로 달려간다. 싱싱한 생선중에서도 배가 단단한 것만을 골라 3천원어치를 산다.

처음에는 자주 배를 만지작거리는 梁씨에 대해 생선가게주인은 신경질을 냈지만 얼마 안가 사연을 이해하고 주인이먼저 맛있어보이는것을 골라 권하기에 이르렀다.

생선을 사쥐 지하철을 타고 鍾路5街역까지 오려면 생선 비린내로 승객들의 눈총을 받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기다리는 동물친구들만 생각한다.

梁씨와 가장 친한 동물은 유럽산 곰.『미련한 곰』이라고 아이들까지 비웃지만 그는 곰의 우직한 일면이 그렇게 마음에 든다. [illegible] 【鄭在龍기자】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김인규회계사무소 개업안내

지난 7년 동안 해오던 회계업무를 더욱 충실히하기 위하여 아래장소에 1월1일부터 사무소를 개업하였읍니다.
Computer, Xerox등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사무실로 아시고 배전의 애호와 편달을 바랍니다.

ACCOUNTING OFF. I. K KIM, RIA
501 Yonge St. Suite 207(Yonge & College)
Toronto, Ont.
☎ : 960－5736(B), 844－0178(R)

약력 : 1964년 서울상대졸업
1975년 RCA RIA
1981년까지 12년간 카나다제조업체에 Accountant, Controller로 근무

공인회계사
김인규 배

캐나다사회를 아는 지름길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 관심 가지신 분 ──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TORONTO) 를 잊지 마십시요.

주6일 발행(금·토요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 월 $9, 6개월 $50, 연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533－2361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구독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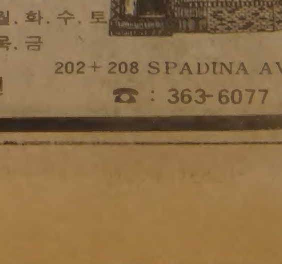
한국일보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 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 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및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MRS. 전
202 + 208 SPADINA AVE.
☎ : 363-6077

癌이 무너진다 <3>

세계의 抗癌前線…本社기자의 現地리포트

癌과의 투쟁엔 오직 攻擊만이 있다

뉴욕 맨해턴東쪽을 흐르는 이스트江을 끼고 뻗어있는 요크路의 67번街쪽에 하얀 대리석基礎를 한 오만한 건물群이 솟아있다.

67번街쪽을 곽채운 지상23층의 外來병동등을 포함, 이스트·리버를 내려 누를 기세를 하고 있는 이 10棟의 대형건물들이 세계최초의 암병원인 슬론·케터링 기념암병원이다.

10棟의 大型건물

병원입구부터 거의 殺氣가 도는 듯했다. 시커먼 색안경을 걸러쓴 2명의 보안원이 방문객을 아래위로 쏘아보면서『코트부터 벗어 맡기고 방문용건을 말하라』고 명령한다.

특무상사계급장같은 보안원 표지를 단 이 두명의 수위뒤에는 따로 사복을한채 짐서를 잡고 있는 감독관이 또 서있다.

예쁘장한 여자안내원 한두명이 병원입구를 지키는 여느 미국병원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병원장 에드워드·비티2세에게『병원이 왜 이렇게 공격적인가』라고 물었다. 비티병원장은『공격적』(Aggressive)이라는 용어를 오히려 만족해하면서 슬론·케터링의 공격성이야말로 지난1백년간 이 암병동을 끌고온 원동력이 됐다고 자랑했다.

『우리는 암에 굴복한 환자를 받지않는다. 슬론·케터링은 죽으러 오는 암환자를 위해 서있는것이 아니며 환자의 생명을 놓고 癌과 싸우기위해 존재하는것이다』

비티원장은 60년대에 치료못하던 암이 70년대에는 치료된것이 많다고 말하면서 암환자의 투쟁에는 오직 공격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첫專門병원

미국에서 대표적인 2개의 암병원을 꼽는다면 흔히 북부의 슬론·케터링기념병원, 남부의 휴스턴 MD앤디슨암병원을 든다.

슬론·케터링은 설립자체부터가 극적이었다. 젊은 外科醫 제임즈·심이 엘리자베드·컬럼여사의 기증금 15만달러를 갖고 맨해턴 1백6번가에 세계최초의 암 전문병원인「뉴욕암병원」(New York Cancer Hospital)을 세웠던것은 1884년5월.

당시 암은「저주받은병」, 「귀신들린병」, 또는「도덕적 부패에서 오는 神의 벌」으로 알려져 갖가지 미신행위가 붙어다녔을뿐 병원에서는 치료 접수도 해주지않던 시절이었다.

특히 유방암, 자궁암등은 부정한 것에대한 보응쯤으로 잘못인식되고 있어 암에 걸린 부인네들이 대문을 걸어잠근채 앓다가 죽어가기만 했다. 혹 동정심많은 의사가 있더라도 마굿간이나 부엌식탁위에 환자를 올려놓고 수술칼을 댈수 있을뿐 암환자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외과의 제임즈·심은 말하자면 이런 사회풍조에 반기를 든 혁명적 인물이었다.

마침 자궁암에 걸린 여류명사 엘리자베드·컬럼여사의 협조를 얻어 뉴욕암병원을 세우고『암은 인류가 묵묵히 받아들여야할 神의 저주가 아니며 오히려 인간이 싸워야할 악마』라고 외치면서 암치료를 과학 아래둘것을 호소했다.

세이커가 첫患者

슬론·케터링병원史에는 하이디·세이커라는 한과부의 이름이 반짝거리고있다. 『가정주부』, 『아홉아이의 어머니』, 『루마니아출생』이라는 단3마디가 붙어있을뿐인 이여인이 사회의 지탄을 뚫고 뉴욕암병원을 찾아온 첫암환자였다.

◇「암은 神의저주」라는 사회적터부를 뚫고 암병원을 설립한 외과의 제임즈·심.

◇알렉산더·해밀턴대통령의 손녀인 여류명사 엘리자베드·컬럼여사.

뉴욕암병원이 지금의 슬론·케터링기념병원으로 개칭된것은 1899년.

세계적인 癌약연구반, 放射線연구소, 肝암연구소등을 갖고 있으면서 이웃 코넬대학, 록펠러대학과 자매관계아래 6백50명의 의학도를 수용하고있다.

肝암연구의 세계적 권위인 조셉·포트너를 만났다. 그는 1970년부터 81년末까지 슬론·케터링병원에서 치료받은 肝암환자 1백8명에 대한 치료결과분석을 막 끝내고 있었다.

수술중 死亡없어

1976년이후 수술중 사망자는 한명도 없었고 제1기 암환자의 수술후 3년생존율은 42%, 그리고2·3기환자의 수술후 평균생존기간은 18개월이었으며 간에 약물투여관인 캐티터(Catheter)를 삽입한 환자 43명중 7명은 수술중 사망했고 다른 6명은 캐티터삽입수술로 인한 炎發症을 일으켰다는등.

포트너는 13명의 간이식수술을 했으며 이중 1명은 지금 9년째 살고있다. 그는 9년동안 살고있는이 간이식환자가 의사생활 30년간에 얻은 가장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13명이 모두 성공적인것은 아니었지만 의학계의 최대관심을 모았던 심장이식수술이 결국 성공을거두지못한 반면 간이식은 괄목할 진전을본데 대한 自負이다.

포트너는 肝암 환자의 생존율이 얼마나라는 질문에 굳이 답변을 하려하지않았다. 그는 일단 암에 걸리면 몇퍼센트살수있느냐의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다만『사느냐 죽느냐의 두가지길밖에 없는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따라서 환자를 맡은의사는 생명을단1분이라도 더건지게하는것이 책임의 전부라고 말했다.

간암은 국소에 암균이 제한되는 제1期에 발견되는경우 수술·약물치료로 대략 7할은 3년이상 산다. 그러나 간의 반이상이 암이 번진 3기에서나 肝외의 직장·결장·쓸개등으로 암이번져간 3기의 경우는 1년을 평균연령으로 잡고 그후는 몇달을 놓고 암과 생명을 다투게된다.

「가장 잡기어려운」肝癌 정복길열어

百年前 "非도덕의 病"풍조깬 世界最古의 歷史자랑

2·3期환자 5년生存率 10년새 倍

◇1884년 처음세워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있는 암 전문병원으로 인정받고있는 뉴욕의 슬론·케터링암병원.

확실히 간암은 아직도 가장 잡기 어려운 암의 하나로 남아 있는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슬론·케터링 암연구소를 가진점으로한 肝암의학계는 적어도3가지면에서 對간암투쟁의 넓은 진전을 기록했다.

첫째는 抗암약의 개발. 슬론·케터링팀은 폐암약으로 주로 쓰이는 빈데스틴, 시스플라틴등을 배합하여 간의 약물거부 속성을 뚫어낼수있는 새 복합암약을 개발했다. 이 새개발약은 아직 만족할만한단계는 아니어서 확대적용할수는없으나 일단 肝의 약물거부속성을 약화시키면서 투약할수있는 새약이라는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포트너는말했다.

특수藥 개발성공

肝은 기능적으로 毒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간기능이 어느정도 발휘될때 약을 투여하면 약물기능을 중화시켜버려 투약효과를 얻지못한다. 뿐아니라 간암은 대부분 경화증을 수반하고있어 일단 간암에 걸리면 간자체가 딱딱해져버려 약물이 들어가지않는다.

플래스틱등으로 만든 가느다란관인 캐티터를 딱딱해진 肝속에 꽂고 이를통해 약을 투입하는것도 이런 肝의 특수성때문이다.

肝의학계는 이런 간의 異물질에 대한 거부성질을 이길수있는 약의 개발을 서둘러왔던 것인데 슬론·케터링이 그 실마리를 풀었다는 것이다.

1978년 슬론·케터링 간암연구소가 만들어낸「사이클로스포린A」는 간이식수술을 성공으로 이끌게했던 큰 교량역을 해놓았다. 肝이식역시 골수이식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간을 옮겨심을때 강한 거부반응(GVH병)이 나타난다. 자체의 면역力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사이클로스포린은 골수이식때 골수이식환자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사이클로포스마이드(CY)나 버설팬(BU)처럼 肝을 이식받는 환자의 면역력을 억압, 간이식후의 거부반응병을 제거하는 특수효력을 갖고있다.

간에 암약을 투여할때 쓰는 캐티터의 질도 크게 나아졌다.

슬론·케터링 기념 癌병원

◇세계적 간암전문의 조셉·포트너。그는 肝저장을 48시간동안 할수있는 새로운 방법을발견, 간이식의 새기원을 마련했다。

4시간만에 수술

두번째 진전은 수술법에서 왔다.

간암은 크게 나눠 肝혈관에서 시작되는 혈관암과 肝세포에서 암이 커져가는세포암으로 나눠진다. 세포에서 암응어리가 생기는 경우 대부분 간전체를 딱딱하게 굳혀버리는경화증세를 일으키며 혈관을 암세포가 침범하는 경우는 肝혈전증을 일으켜 기능을 마비시킨다.

수술은 혈관암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행해진다. 세포암의 경우는 암응어리가 간전체로 번지기전인 局部암으로 남아있을때만 실시한다. 의사들은 開腹후 암이 간전체로 번진것을 발견하면 손을 쓰지않고 그대로 덮는것이 常例.

간수술은 7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암부위를 따로 고립시켜 止血·環流조치를 먼저 취한후 암부위를 제거하던 소위 孤立環流式방법(Isolation Perfusion Tecanique)으로 했다. 그리고 간수술은 가슴을 쪼갠후 실시하는 開胸式을 쓰고 있었다. 수술시간은 약6시간반쯤 걸렸다.

그러나 지금은 가슴을 여는대신 늑골 아래부위의 복부를 열고 갈비뼈를 젖히는 절개확대장치를 이용하여 간을 다루고있으며 止血術의 발달, 超音波절단기등 수술도구의 고도화로 수술시간의 단축(4시간半)은 물론, 적어도 수술중 환자가 죽는일은 없어졌다.

1975년이후 간수술을 받은 35명의 原發性간암환자의 경우 제1기암환자 15명은 수술후 1년생존율이 1백%, 3년생존율 85%, 그리고 5년생존율 75%로 크게 발전됐으며 2·3기 환자의 경우 총20명중 수술후 1년생존율이 73%, 3년생존율 22%, 그리고 5년생존율은 11%로 나타나 70년대전반기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진전을 보였다.

肝암치료의 가장큰 기대를 모으고있는것은 肝이식수술. 조셉·포트너 肝암전문의는 이 세번째방법으로 비록 제한된 여건이긴하지만 肝암은 완전정복되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거부반응病 극복

肝이식은 암걸린 간은 떼어버리고 건강한 타인의 것을 갖다붙이는 것. 자기골수를 유지하면서 이를방사선으로 치료한후 타인의 골수를 이식받는 골수이식보다 훨씬 확실한 암정복임에 틀림없다.

肝증여자의 문제, 수술법등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슬론·케터링은 사이클로스포린A와같은 간이식으로 오는 거부반응병을 이분야에 큰 진전을 보임으로써 간암정복의 새길을 열었다.

9년째 후유증이나 암재발없이 살고있어 肝이식으로 암이 정복된것을 증명해주고있다.

포트너는 오는 6월에 열릴 세계간암학회에 보고할 중대비밀사항이 있다고 언뜻 기자에게 말했다. 그러나 학회에 공식보고할때까지는 비밀로 남겨둬야한다고 금방 입을 딱다물었다.

기자는『기왕 입밖에 낸 정보를 가지고 뭘 그러느냐』며 9천마일을날아온 외국기자임을 들어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졸랐다.

"아직極秘" 肝의 48시간 貯臟法개발…移植수술에 革命예고

『肝을 2일간 저장할수 있는 새 방법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肝이식수술은 혁명적인 진로를 찾은 것이라고 肝癌치료의 세계적 권위인 포트너소장은 밝혔다.

간이식수술은 뇌의 활동은 죽었으나 간세포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의 사망자를 찾아 그 간을 암환자에게 옮기는 작업이다. 지금까지는 이식수술 자체도 어려웠지만 死者의 간도 최고 6시간 이상 저장할수 없었기때문에 간이식수술이 그만큼 까다로왔던 것이다.

48시간동안 간을 산채로 저장할수 있다는 것은 지금막 활주로를 離陸한 항공기를 3만피트의 巡航高度에 올려놓는것 만큼이나 획기적인 肝이식수술의 발전을 의미한다.

포트너는『저장법은 학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하면서 암정복작업이 가장 늦었다고 눈총받던 肝암학회가 이번 저장법개발로『암의 완전 정복者』선두를 달리게됐다고 말했다.

志願봉사 4百50명

슬론·케터링종합암병원의 총인원은 5천2백49명. 이중 2백30명은 免疫學, 미생물학, 인터페론연구, 예방학등 1백2개소에 이르는 갖가지 연구실에 들어앉아 암정복노력을 쏟고있고 5백7명의 의사, 간호원들이 5백35개침대와 35개外來전문반을찾는 年18만8천의 암환자를 맞아 암과 싸우고있다.

1980년도 예산은 1억8천2백79만5천8백24달러. 총수입의 10%인 1천6백29만6천7백99달러가 개인또는 단체의 기증에의한것이다.

4백50명회원의 슬론·케터링지원봉사자 클럽은 이 세계적 암병동의 이름을 더욱 빛내게 하는 모임.

슬론·케터링에서 암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단순히『암과 싸우는 일을 돕기위해』모인 이들은 암에 걸려 절망에 빠진 환자들에게 용기를주고 암병동을 청소하는등 무료로 값진 抗암전 뒷바라지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고양이를 구하자』는 캠페인을 벌여 1만5천달러를 모금, 슬론·케터링동물암실험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케터링賞도 제정

슬론·케터링병원은 제너럴·모터즈재단의 후원으로 암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슬론·케터링賞을 제정, 79년부터 진단·치료분야(케터링賞), 암예방분야(모트賞), 그리고 암기초의학연구분야(슬론賞) 등 3개부분의 賞을 수여하고 있다. 상금은 각10만달러.

슬론·케터링賞 심사위원장을 맡고있는 조셉·포트너 암연구소장은『한국인이 수상자로 떠오를때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쌀쌀한 2월초의 어느날 뉴욕의 반나절은 슬론·케터링에서 보낸후 요크路를 나섰을때 기자는 암과싸우는 美의학계의 공격이 얼마나 피나고 격렬한것인가를 새삼 느낄수 있었다.

【뉴욕=鄭逸和기자】

肝癌은 왜 생기나

原因과 예방법

HB바이러스·곰팡이 섭취로 發病

습기진곳 많은 亞·阿洲지역서 多發

싱싱한 음식물 먹는것이 예방지름길

肝암이 왜 발생하는가 하는 발생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다. 가장 유력한 학설로 아직 남아있는것은 역시 B型간염 바이러스(HBV)원인설과 곰팡이섭식물 아프라톡신 섭취설이다.

HB바이러스는 문명도가 낮고 습기진곳에 많아 아시아·아프리카지역에 HB바이러스로인한 간암이 많은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서도 HB바이러스는 흔하게 발견될수있는 것이어서 병원에는『B型간염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위해 한번쓴 주사기는 쓰지 않는다』는 팻말이 붙어있는 병원이 많다.

북극지방인 그린랜드의 에스키모스들이 유럽인의 10배에 가까운 HB바이러스를갖고있으면서도 정작 肝암은 없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 肝암의학계를 놀라게한 일이 있었다. 의학계는 이 조사보고를 분석한 결과『HB바이러스는 확실히 간암의 원인이 되고있으나 유전학적으로 HB바이러스에 강한체질은 영향받지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담배가 肝암의 결정적인원인임을 분석한美의학계가 줄담배와 독주의 王인 영국재상 윈스턴·처칠의 장수(89세)를『유전학적인 특수체질때문』이라고 푼 논리와같은것이다.

간암환자가 드문 유럽·미국인에게는 인구1천명당 1명정도에 HB바이러스를 발견할수있지만 아시아·아프리카인의 경우는 거의 5명에 1명이 HBV를 보유하고있다.

HB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한 필라델피아암연구소의 바루크·브룸버그는 HBV연구로 1976년 노벨상까지받은바있는데 그는 현재HB바이러스를 잡을수있는 왁친을 개발, 동물실험을 끝낸후 인체실험단계에 까지가고 있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있다.

필라델피아팀은 이 HBV왁친의 개발로 결국 지상에서 肝암을 몰아낼것이라고믿고있다.

60년대 肝암의학계를 흥분케했던 아플라톡신(Aflatoxin B)도 아직 강력한 肝암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아플라톡신은 땅콩이나 쌀과같은 곡물등을 습기찬곳에 오래저장해 두었을때 생기는 아스페르길러스·플라버스라는 곰팡이가 내뿜는 독소.

1961년 의학계에서 처음 논의된후 모잠비크, 케냐, 우간다등 사하라남부 열대지방과 아시아의 泰國에서 대규모로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었다.

이 아플라톡신은 곰팡이섞인 음식물에섞여 간에들어가 결국 肝에 무한한 毒가스를 배출시키다가 경화증을 일으키게하고 시간의경과와 더불어 간암도 일으킨다는것.

1974년에 실시한 한조사는 케냐, 泰國, 모잠비크를 조사한결과 모잠비크인은 일일 평균 몸무게1kg당 2백22나노그램의 아플라톡신을, 泰國은 몸무게1kg당 일일평균 10나노그램, 케냐는 5·8나노그램의 아플라톡신을 먹었으며 이로인한결과는 모잠비크가인구10만명당1년에 25명의 간암환자를, 泰國이 6명을 그리고 케냐가 3명의 간암환자를 낳고있는 것이었다.

한때 한국의 된장에도 이 아플라톡신이 들어있다하여 말썽을 일으킨일이있다.

아플라톡신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큰 음식물은 땅콩이며 조, 콩, 쌀, 옥수수등에서도 생긴다. 특히 이런 식물들을 비를맞히거나 습기찬 창고에 두었다가 음식을 만들면 아플라톡신이생길 가능성이 크다.

유럽·미국에는 1940년께이후 肝암환자가 위암환자와함께 계속줄어 지금은 미국의 경우 간암환자발생률이 전체암의 0·15%에 지나지않는다. (81년의 美전체암발생자는 80만5천명, 이중 약1만4천명이 肝암환자이다)

美간암학회는 전통적으로 간암이환율이 높은 日本人이 미국에 이민왔을경우 肝암이환율이 줄게되고 일본인2세의 경우는 간암이환율이 미국인과 똑같이 낮아지는것을 발견했다. 간암학회는 결국 냉장고를 이용하여 싱싱한음식물을 먹는것과 썩인 음식을 먹지않는 미국인의생활양식이 간암이환율을 낮추는결정적인 관건이라고믿고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61년 아플라톡신발견이후 썩인음식, 특히 땅콩을 썩여만든 음식은 먹지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있다.

영양실조, 알콜은 직접 간암을 일으킨다는 확증은없으나『肝경화증을 먼저 일으켜 결국 간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꽤 강력한 상태로 남아있다.

선천적인 타이로신 代謝장애, 인조색소인 플라보이드類, 염화비닐, 砒素, 經口피임약등이 肝암을 유발시킨다는 상당한 연구도 나와있다.

간암증세는 위의 상부가 아프면서 체중이 이유없이 주는것이 초기현상. 肝암세포가 자동파열하여 腹腔내출혈을 일으키고 메스꺼움, 황달, 微熱등이 따라올때쯤이면 상당히 진행된 肝암 1기쯤된다.

아시아·아프리카人은 보통 肝암에 앞서 간경화증이 먼저오나 西歐人은 경화증없이 곧장 간암에 걸리는것이 특징.

肝조직검사를 하는것은 극히 위험한것으로 최신 확인돼 미국에서는 만성肝암인경우를 제외하고는 肝생검을하지않고있다. 따라서 대신 CT스캐너, X線촬영등의 肝촬영법과 혈청검사를 통한 肝암 조기 발견법이 크게 발달되어가고있다.

Young—Sook's Jewellery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께 최저 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려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금·은 취급
* 품질보장
*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 옛날보석 개조 또는 교환 매매.
* 보증서 발행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Booth No. 10—No. 11
215 Yonge St.
(영×퀸)

점심특별스페샬

기 간 : 1982년4월 말 까지
시 간 : 12시～오후2시까지(월～금)

$3.50 : 냉면, 짜장면, 곰탕, 짬뽕, 게장백반
$5.00 : 유부초밥, 생선초밥, 회덮밥, 김초밥

4월12일부터 해장국 출현
오전9시～밤1시

한국서 일류요리사 한국관에 오다!
한식및 궁중요리사 : 김옥자 • 일식전문요리사 : 김우현

한 국 관　대표 : 나 옥 녀
• 영업시간 •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종합보험

김 홍 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뒤셀도르프 "이게 바로 프로蹴球다"

한국善戰 體力달려 끝내 逆轉敗

韓·獨축구 3-2

에드발슨、오버헤드킥 絶妙

權五孫 25m 슛·邊炳柱추가

프로와 아마의 격차、프로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名演技였다. 西獨 프로축구 뒤셀도르프팀 초청 訪韓 1차전경기가 7일 저녁 서울운동장서 야간경기로 진행, 팀웍과 점유율 자랑하는 뒤셀도르프는 한국 대표팀과 맞서 전반서 FB 權五孫과 FW 邊炳柱에게 골을 허용하여 0-2로 리드당했으나 후반에 접어들자 프로의 위력을 과시, 집중노도의 공격으로 연속 3골을 뽑아내 3-2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뒤셀도르프는 9일 하오6시 釜山 九德경기장서 한국대표팀과 두번째 경기를 벌인다.

1만5천여 관중들은 패색이 짙었던 뒤셀도르프가 전세를 뒤집고 승리하자 『프로는 역시 다르다』며 혀를 찼다.

특히 후반27분에 에드발슨이 오버헤드킥으로 성공시킨 결승골은 이제까지 국내축구무대에서 볼수 없었던 묘기였다. 西獨축구는 69년 보루시아MG의 컨터·네처가 回轉이걸린 코너킥으로 직접득점, 바나나킥의 묘기를선보인후 또 하나의 절묘한 테크닉을 팬들에게 보여주었다. HB볼머가 한국진영 미드필드 오른쪽 깊숙한 지점에서 쩌어올린 볼이 한국수비선수들의 키를넘어 페널티에리어안으로 떨어지자 FW에드발슨이 FB朴成華를 등진자세에서 쓰러지며 오버헤드킥, 볼은 왼쪽골포스트에맞고 골인되었다.

GK 朴英洙가 몸을 날렸으나 골·인된 후였다. 에드발슨은 볼이 높게 날아오자 엉덩이로 朴成華를 밀어 오버헤드 킥을 할수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朴은 에드발슨에 밀려 쓰러졌다.

뒤셀도르프는 후반5분 칠레가 한국문전을 질풍같이 치고들어가 1골을 만회하고 25분에 칠레와 옴슬레브가 2-1패스로 진격, 옴슬레브의 슛으로 타이골을 만들었다. 체력과 스피드가 후반서급격히 떨어져 역전패 당하고 말았지만 한국도 잘싸웠다. 특히 지역방어망을 구축한 뒤셀도르프의 헛점을 간파, 기습적인 속공과 중장거리공격으로 전반서 2골을 빼낸 것은 고무적이었고 한국의 공격이 날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權五孫·전반2분)。25m의 롱렁한 대포알 슛。경기가 끝난후 한국의 趙廣來주장은『근래에보기드문 강렬한슛이었다』며 후배 權의 슛을 칭찬했다. 한국은 전반16분 邊炳柱가 崔淳鎬-丁海遠의 도움을 받아 2점째를 올렸다. 【安奉煥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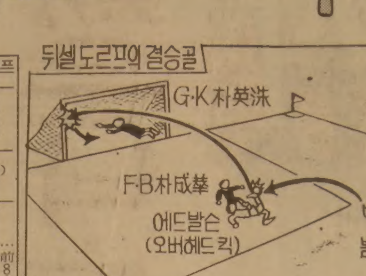
◇제1차전

뒤셀도르프 3 (0-2, 3-0) 2 대한
(1승) (1패)

◇양팀 陣容

한국	뒤셀도르프
①朴英洙 GK	①뷔셔
②權五孫	②로허
⑧朴景勳	③보겐펠트
⑥朴成華	④타이스
⑤崔基奉	⑤두센트
(⑦鄭鍾洙)	
④趙廣來 HB	⑥곽
③崔景植	(⑮옴슬레브)
⑨崔淳鎬	⑦바이를
	⑧봄머
⑯丁海遠 FW	⑨에드발슨
⑪邊炳柱	⑩칠레
⑭姜信寓	⑪벤젤

前	後		後	前
6	6	슛	11	8
0	0	페널티킥	0	0
2	1	프리킥	0	2
2	2	코너킥	5	4
1	0	옵사이드	1	1
7	4	골킥	2	5



프로야구

咸學洙 만루호머

롯데잡아 單獨首位로

MBC、OB에 12대7勝 해태、三美 따돌려

三星라이언즈는 咸學洙의 올시즌 두번째의 만루호머로, 앞서 달리던 자이언츠의 덜미를잡아 4승2패로 단독선두로 뛰어올랐다.

三星라이언즈는 8일 大邱의 홈구장에서열린 경기서 1회말 咸學洙의 만루호머를바탕으로 롯데 자이언츠를6-3으로 완파했다.

해태타이거즈는 釜山에서 벌어진 三美슈퍼스타즈 와의 경기서 전광석화와같은 기습공격을 감행, 1회초 2차례의 더블스틸을포함한 도루5 안타1 四死球3·敵失1로 4득점, 기선을 제압하고 金城漢의 5회초 솔로호머등으로 점수를 추가, 종반맹추격을 벌인 三美를 7-4로 따돌리고 2승2패를기록했다.

서울의 MBC靑龍은 프로야구 7일째인 이날현재 최고타율 (22타수11안타) 최다타점 (12점) 홈런3개를 기록한 감독겸 지명타자 白仁天의 맹활약과 선수들의 특타격으로 OB베이스의 선발 [illegible]을 난타, 프로야구 1이닝 최다득점 (8점)을 기록, 12-7로 대승했다.

◇전기중간순위 (8일)

팀	승	무	패
①롯데	3	0	2
②삼성	4	0	2
③MBC	4	0	3
④OB	2	0	4
④삼미	2	0	4
⑥해태	2	0	2

李德姬、세계9位 루지치 制壓

패밀리서클컵 테니스 3회전 進出

【힐튼헤드아일랜드(美 사우드캐롤라이나州) AP聯】한국의 李德姬는 7일 이곳서 열린 패밀리 서클컵 테니스 대회 2회전서 세계랭킹9위의 버지니아·루지치를 2-1 (7-5, 4-6, 6-4)로 물리쳐 큰 파란을 일으키면서 3회전에 올랐다. 상금 20만달러의 이대회 1회전서 李德姬는 英國의 버지니아·웨이드에게 2-1 역전승,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다.

광고문의
(416) 533-2361

나의 이력서 金蘇東 ㉕

(題字 金蘇東)

동경구단시다에 스또오(須藤)연구소라는것이있다。포리돌 회사가 레코드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은밀히 만들어놓은 녹음연구실이다。소장 스또오氏는 음악을 좋아하는 녹음기사며 나와는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늘 녹음을 하고 그것을 재생시켜서 들어보고 또다른 음향을 녹음해서 분석하고 기록한다。

이연구소를 내것같이 썼다。마치 코리아 레코드 전용취입을위해 만들어놓은 것같았다。

김용환씨와 같이 仁川에 놀러갔다가 발견한 李花子라는 가수가 동경에오고 또 金貞九도 그무렵 동경에왔다。이연구소 스튜디오는 말하자면 당시 이화자 (작고)와 김정구두 가요계의 스타들을 탄생시킨 산실이된 셈이다。

간단한 전속악단을 만들기위해서 동경에 산재한 한국인을 모아서 밴드를 만들었다。이름을「크레지안·재즈밴드」라했다。제일고보시대의 고오리야마선생이 와서 참관하고 나의 활약상을 무척 흐뭇하게 여겼다。자기가 고안했다면서 밴드의 마크와 명칭을 고무인으로 새겨서 보내왔다。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했으나 한국전쟁때 분실했다。지금생각하면 이러한 나의 외도가 우스꽝스러운 한때의 취미생활이긴했으나 대학생신분으로서는 너무 지나치게 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苦笑해본다。

音樂활동 中斷

35年봄 卒業班되자 外道생활에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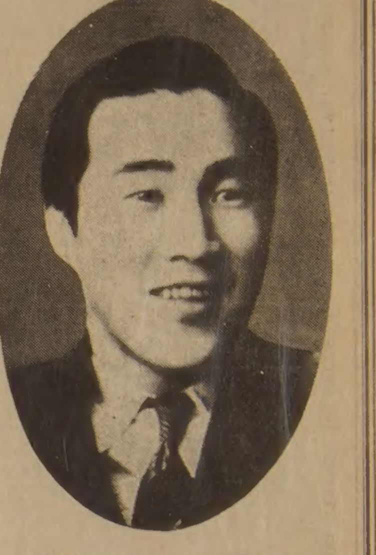
이시대에 가까왔던 음악인들의면면이 떠오르곤 한다。최희남(성악·작고) 김태연(첼로·이북) 박태철(성악·서울) 이재옥(기악·서울) 이상춘(성악·작고) 이근삼(바이얼린·대구) 김대근씨(성악·서울)등의 얼굴이 환히보이는듯 하다。

산산이 흩어져버린 옛추억속에서 뚜렷하게 남은 해학들이 있다。일본말에 능숙치못한 이화자양이 일본여관에서 후동 (이불)의 발음을잘못해서 밤중에 국수두그릇을 먹은 이야기다。잠자리에 눕기위해서 이불좀 갖다달라는 표현을「우동구다사이」라고했다。생각지도 않은 국수한그릇이 왔다。자기전에 먹으라는 것으로 오인하고 먹어버렸다。다시 초인종으로 일하는 여자를 불러서「우동구다사이」했다。국수를 또 한그릇 가져왔다。

이동백옹이 창을 취입하기 위해 동경에 왔다。한복차림에 갓을쓰고 장죽을 들었다。우에노동물원엘 갔다。원숭이들이 아이들이 던지는 비스킷을 마치 야구캐처처럼 받는것이 꽤 볼만했다。

이동백옹이 조약돌을던졌더니 원숭이가 받아놓고 보더니 땅바닥에 집어던졌다。약이오른 원숭이는 철망으로 뛰어올라와서 앞발을 철망 밖으로 내밀어 이옹을 할퀴려했다。당황한 이동백옹은 장죽을 들고 엉겁결에「고멘 구다사이」(미안하다)했다。한국말 어조로「고멘」의 멘을 길게 뽑아 응수하는 일본말발음에 구경하던 일본인과 우리들이 다 폭소를 터뜨렸다。아련한 옛추억들은 다 살아있는데 사람들은 다 가버렸다。

그 분주하고 당황스러웠던 음반활동에서 손을 뗀것은 1935년 졸업반이 되던해 봄이다。왜냐하면 이무렵 중앙대학 학부에서 공부하던 김용식씨 (金溶植·대한적십자사총재)와 김달호씨 (金達鎬·정치인·작고)가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해서 큰 자극을 받았을 뿐더러 더우기 김달호씨는 내고향 尙州 사람이었다。


◇23살때의 金貞九。그는 나의 권유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金溶植등 高文합격보고 큰충격 책사고 새각오로 高試공부시작

어머님께서 편지가 날아왔다。신문보도를 읽으시고 곧 편지를 띄운것 같다。아무개는 재학중에 고등고시에 합격했는데 너는 뭘하고 있느냐는것이다。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기에 이런 편지를 보내셨는가 하고 내심으로 죄책과 부끄러움을 한꺼번에 느꼈다。음악이나 영화니 기타 취미를 말끔히 청산해야 하겠다고 반성과 후회가 마구 밀어닥쳤다。

일제시대때 한국사람으로서는 좀 허황스러운 생각이긴 했으나 내년봄에는 고등고시에응시하되 외교를 택하기로 결심했다。간다에 나가서 영어논문작성법이니 과거의 고시문제 해답집이니 나름대로 수험준비서를 사고 또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다。

그러나 내년봄에 졸업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11과목의 학점이 남아있다。1학기에 5과목、2학기에 4과목、3학기에 2과목을 꼭꼭 패해야겠다고 생각했다。그런 구상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예술활동과 결별할수 있는 가를 곰곰 생각해 보았다。

流星의 賦 〈353〉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孤獨한 英雄 ⑧

전라감사 이광 (全羅監司 李洸)이 4만의 병력을 이끌고 한성을 향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이틀후의 일이다。

계남은 이광의군과 합류하여 일대작전을 전개할 양으로 먼저 척후대를 내어 사정을 살폈다。척후대의 대장으로 조인식이 자청해 나섰다。조인식은 척후의 역할과 함께 이광과 연락할 책무까지 아울러졌다。

3일후 돌아온 조인식의 보고는 다음과 같았다。

전라감사 이광은 5월상순 전라도의 병사 1만8천명을 이끌고 공주에까지 올라왔다가 임금이 북쪽으로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 퇴각한 적이 있다。그러다가 임금이 행재소 (行在所)에 안전하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방장 백광언 (白光彦)이 『공을 세울 많은 병졸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않고 보고만 있을것이냐』고 힐박하는 통에 마지 못해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오는 도중이다。

전라도군은 다음과 같이 2종대로 나누어 북진하고 있다。

우종대의 총지휘관은 방어사 곽영이며, 선봉장은 조방장인 백광언, 중위장은 광주목사 권율 (權慄)。

좌종대의 총지휘관은 이광, 선봉장은 조방장 이지시이며 중위장은 나주목사 이경록。

우종대는 전주—여산—공주—온양。

좌종대는 전주—용안—임천—온양。

이상과 같은 진로를 택했다。

이와 같은 보고가 있자 홍계남이 물었다。

『온양에 집결한 뒤에 어떻게 한다더냐』

『다음의 행동은 온양에 집결한 후 충청도군과 경상도군의 내도를 기다려 정할 작정인가 하옵니다』

『그럼 우리도 온양에 대표를 파견하여 작전의 협의를 맡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응당 그렇게 해야할 것이지만 이광이란자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우리 군사를 전혀 무시하고 같이 싸우려거든 이곳저곳의 하대 (下隊)에 끼어 그 대장 (隊長)의 지휘를 받으란 말이었읍니다』

『이광이 그렇게 말하더란 말인가?』

『이광은 만나주지도 않고 그밑에서 서역 (書役)하는 자의 말이었읍니다。』

『흠』

하고 계남이 팔짱을 끼었다。

이광의 태도는 분명히 계남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이다。계남은 분통이 터질지경이었다。그러나 부하들 앞에서 그런 빛을 보일순 없었다。

『그 사람들의 목표는 한성의 탈환에 있는것이 아닌가』

계남이 침착하게 말했다。

『4、5만의 병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니 마땅히 그런 목적을 가진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럼 좋다。우리는 온양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근처에서 대기하자。이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광군과 적군과의 대전이 시작되면, 적군의 허를찔러 한성을 공략하면 될 것이 아닌가。온양까지 가서의 전만 대립하여 우리 군사의 사기를 꺾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독자적으로 행동하자』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읍니다』

조인식이 동의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81〉

朴婉緖 作 金光培 畵

明暗 ⑮

행인들도 이제 저녁반상에 늦을세라 종종걸음을 치는 소심한 시민들이 아니었다。환락에의 예감으로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 한달의 수입을 내던져도 아깝지않을만큼 대담해져있었다。

불을 밝힌 모든 집이 지금 당신의 시간을 켰길 시간이라고 행인을 충동질하고 있었다。

하다못해 보세세터나 스넥집、양화점의 쇼윈도조차 뚜쟁이의 눈빛처럼 은밀히 퇴폐를 암시하고 있었다。

『귀국한지 얼마 안됐을적인데 수지씨를 한번 뵌적이 있읍니다』

『우린 오늘 초면인줄 아는데요』

『그러시겠죠。그때 난 누님하고 같이였고、수지씨는 올케되시는분하고 같이였죠。난 모든 면에서 자신만만하고 생긴거에대한 자부심도 대단했는데 그때수지씨는 나를 거들떠도 안보더군요。그때 계시(啓示)처럼 떠오른 생각이뭔줄 아세요?』

『글쎄요』

『이 여자를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기욱이 말을마치고 유쾌한듯 파안대소였다。

아무도 거역할수없는 만인의 환락의 시간이기 때문일까? 찍는다는 거친 표현이 귀에 거슬리지않았다。싫지않을뿐더러 관능적인 쾌감마저 느꼈다。우리는 빨리 그런느낌을 지우려했지만 그런 쾌감의 여운은 뜻밖에 감미로왔다。수지는 얼굴을 붉혔다。

『그렇게 호락호락 찍힐까요?』

『찍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나는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의 열렬한 신도가 된 겁니다。그렇지만…』

기욱이 능글맞게 말꼬리를 끌었다。

『그렇지만 뭐죠?』

『그렇지만 이왕 넘어가게 돼있는거 한 다섯번쯤에 넘어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익살스럽게 애걸하는표정을 과장했다。수지 역시 농은 농으로 받아넘길만큼 여유가 생겼다。

『그렇겐 안되겠는데요。자존심에 관한 것이니까요』

『내자존심이 많이 아닌것도 이기회에 솔직 한번 봐주시면 훗날을위해 이로울텐데요』

『숫제 공갈이군요。그렇게 급한가요?』

『요새 내 신세가 볼차탐니다。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졸업한 동생이 벌써 뒤차노릇을한다 이 말씀인가요?』

『하면 여간요。오늘도 난 혹시나 수지씨가 회식하는 장소에 안나타날까봐 어떻게 속이 탔는지 제 정신이 아닌데 그녀석은 소스를 하는둥 마는둥 제 여자친구를 만나러 먼저 사라졌지뭡니까? 사라지려면 말없이 사라질것이지 내 귀에다 대고 형 헛탕 작작쳐슈。글쎄 이러지 뭡니까?』

『왜 동생의 여자친구는 그가 『안넘었나요?』

『어디가요、어림도 없는애기죠。우리부모님은 자식놈에 대해 자유개방주의긴해도 형제간에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만은 용서가 없으시니까요』

『그럼 기욱씨한테는 큰 빽이겠네요?』

『빽만 믿고 떡 앞을 가로막고 버티고 서있자니 뒤차의 구박이 오죽 하시겠읍니까? 부모님앞이라 차마 형을 앞지를테니 비키란 소리는 못하고 [illegible] 책으로 요새녀석이 꽤라는 [illegible]요。이를테면 [illegible]을 하자는 소리죠』

토론토 한국일보사 제정

제2회 한인민족상 모집요항

한인민족상 수상후보를 모집하오니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문

(가) 예술상: 캐나다 한인사회에서 문학·음악·미술·연극·무용·사진등 예술분야에서 특출한 공로자나 특기자.

(나) 학술상: 학술적 저술·발명, 발견·심포지움등 학계·교육계에서 공이 큰 인사.

(다) 봉사상: 공적, 개인적으로 한인사회에 희생적 봉사, 그 결과가 뛰어난 인물.

(라) 공로상: 한글교육·체육진흥등 기타 여러면에서 한인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체육특기등에 공로가 큰 인사.

2. 수 상 자 격

(가) 캐나다 거주자 (한인)

(나) 비한인(외국인)으로서 한민족의 문화선전, 한인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인물.

(다) 개인 또는 단체

3. 추 천 방 법

전국의 각단체가 1명씩 아래 양식에 의해 해당자를 추천하되, 5월15일이내에 본사 필착토록 해주실 것. 개인적으로 추천할 경우, 추천인 5명이 필요함.

1982년 4월 일

한인민족상위원회

위원장 구 상 회

한인민족상 후보 추천서

대상자또는단체 : (연령 : 성별 :)

주소및전화번호 :

시 상 부 문 :

추 천 내 용 : (별지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재, 관계증빙서류, 사진등 동봉요망)

추천인(단체) :

추천인주소·전화번호 :

보 내 실 곳 : THE KOREA TIMES TORONTO
1025 DUPONT ST. TOR. ONT. M6H 1Z7

한인민족상 규약

캐나다 한인사회 및 이땅 문화창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일보사는 이질문화권인 캐나다사회에서 한국문화를 보전하고 한인사회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매작용을 사명으로 삼으며, 더 한층의 봉사를 위해「한인민족상」을 제정한다.

제1조 목 적

캐나다사회 각분야에서 공이 큰 인사에게 매년 시상함으로써 그 노고를 상찬하고, 정진에 촉진며 구실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시상부문

(가)예술상—캐나다 한인사회에서 문학및 예술분야에 특출한 공로자나 특기자.

(나)학술상—학술 과학분야에서 공이 큰 인사.

(다)봉사상—한인 또는 캐나다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인사.

(라)공로상—한인 또는 캐나다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인사.

(바)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부문의 상을 제정할 수 있다.

제3조 수상자격

(가)캐나다 거주 한인계 개인 또는 단체.

(나)비한국계 캐나다인 또는 단체.

(다)도의적, 법적으로 큰 결함이 없는 개인 또는 단체.

제4조 추천방법

전국의 각단체가 1명씩 소정양식에 따라 해당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추천할 경우, 추천인 10명 이상을 요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가)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과 필요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나)운영위원은 약20명으로 하며 임기는 1년, 중임할 수 있다.

(다)차기 운영위원은 회장단및 한국일보사측 협의로 선정한다.

(라)운영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사무국장1명을 둔다.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마)운영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위원5명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바)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을 한국일보사내에 두고, 그 사원이 사무직을 담당한다.

(사)운영위원회는 연2회의 정기모임과 회장단과 한국일보사가 필요로 할 때에 소집한다.

제6조 재 정

시상및 운영 기금은 일반찬조와 한국일보사의 후원으로 충당한다.

제7조 심 사

(가)운영위원회는 추천된 수상후보를 심사하며, 필요에 따라 당해년도에 한해 전문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나)수상후보가 된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심사에 필요한 규정은 별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 개 정

본 규약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2이상 찬성으로 한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神父11명 조사

長期은닉·도피방조혐의 밝혀져

崔神父 拘束여부 내일결정

朴啓東등 2명검거로 捜査확대

수사당국은 5일 부산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주범 文富軾(23)과 배후조종자 金鉉奬(32)을 장기 은닉, 비호해준 혐의로 천주교 原州교구교육원장 崔基植신부(42)등 5명을 연행, 철야심문한데 이어 6일에는 安東, 三浪津, 全州등 전국의 10개성당신부 10명에대해 새로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의 조사가 이처럼 확대되고있는것은 文과 金이외에 光州미국문화원방화사건의주범 丁淳喆(27·검거)과 학원사태의 주동자 朴啓東(30)을 검거, 이들의 도피경위에대한 수사결과를 종합한결과 주로 이들 신부들이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이나 학원소요주동자등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파괴한 주요범죄자들을 장기간 은닉했거나 도피를 도와주어왔다는 혐의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치안본부는 금명간 관계수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8일까지는 崔신부에대한 「강제수사」여부와 나머지 신부들에 대한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수사 간부는 『교회의 특수성을감안,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소수의 사람만 구속 수사하는것을 원칙으로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기관은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光州미문화원방화사건, 학원사태, 가톨릭농민회등과 일련의 연관을 함께 하는것으로 보고 상관관계와인맥등을 집중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치안본부는 崔基植신부가 金鉉奬을 숨겨준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金이 光州사태가담후 金大中의 측근자 소개로 崔신부를찾아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金의 배후에 또다른 불순세력이 있지않나보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金이 文富軾등을시켜 釜山美문화원 방화사건을 조종했으나 金이 단독으로 이같은일을 조종했을까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 배후에서 영향력을미쳤거나 조종한 개인및단체가있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있다.

文吉煥(崔신부 운전사) 자금50만원 제공

金鉉奬의 불순세력 관련도

경찰은 또 原州교육원운전사 文吉煥씨(38)가 崔신부의 운전사로 일하면서 金鉉奬에게 27만원, 文富軾에게 10만원, 金恩淑에게 13만원등모두 50만원의 자금을 MT자금조로 (멤버십 트레이닝 자금) 제공한 사실도 밝혀내고 자금출처를 캐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神父 11명의 혐의사실

방화主犯 文富軾과 배후金鉉奬을 은닉

安東 가톨릭農民會에 丁淳喆 은신부탁

密航실패한 朴啓東에 취직·은신처제공

▲原州교구=방화주범 文富軾과 배후조종인물 金鉉奬을 숨겨준 경위를 캐기위해 崔基植신부가 서울로 압송된외에 치악산 서점주인 金英愛양(27) 原州 가톨릭농민회회장 李昌復씨(42) 鄭인재씨(37) 교육원관리인 文吉煥씨(38)등 모두 5명이 조사를받고있다.

▲全州 교구=金鳳熙신부(41)는 80년5월 光州사태후 金鉉奬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5일하오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또 가톨릭농민회 全北연합회총무 田梓錫씨(36)와 全州중앙교회집사 吳炳根씨(43·인쇄업)도 金에게 유인물을 인쇄해준 혐의로 조사를받고있다.

▲仁川道禾성당=黃相根신부는 지난1월 丁淳喆이 『朴啓東과함께 일본에 밀항하려다 실패했으니 은신처를알선해달라』는 부탁을받고 丁에게 돈을주고 富川시내병원에 입원시키고 병원비를대준 혐의를 받고 있으나 黃신부는 지난2월 1년예정으로 해외유학중이다.

▲水原가톨릭농민회=총무 李庭燦씨는 작년6월3일 丁淳喆이 찾아오자 安東교구 가톨릭농민회에 丁의 은신처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한혐의로 조사받고있다.

▲安東가톨릭농민회=회장 [illegible]씨와 총무 [illegible]씨가 작년6월4일 水原가톨릭농민회 李총무 소개로 찾아온 丁淳喆을 마르코라는 세례명을 주어 安東시내 마리스타 수도원에 숨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丁과함께 大邱에 은신해있던 朴啓東이 검거됨에따라 더많은 관련자가 나올것으로보고 수사를 하고있다.

▲三浪津성당=宋基寅신부는 80년7월 朴啓東을 金海郡生村面 나환자정착촌에 주택공사감독으로 취직, 은신시켜준 혐의를 받고있다.

▲榮州성당=柳康夏신부는 80년11월초 朴啓東을 피부과병원에 보일러공으로 위장시켜 숨겨준 혐의를 받고있다.

▲盈德성당=鄭鎬庚신부가 80년5월20일 朴啓東을 자기방에 20일간 숨겼다가 安東마리스타 수도원에 은신처를 알선해준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다.

▲長省성당=李炳敎신부(41)는 반체제활동을 해온 李相憲군(23·公州사대제적)을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堤川市校洞자택에 숨겨준 경위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5명은 歸家조치

수사대상신부11명중 ▲安東주교관 鄭鎬庚신부 ▲三浪津성당 宋基寅신부 ▲榮州성당 柳康夏신부(43) ▲大邱희망원 趙正憲신부(43) ▲三千浦성당 金英式신부(33) 등 5명의신부는 朴啓東을 은닉시켰거나 도피를 도와준 사실이밝혀져 일단 소환, 사실심문을마치고 귀가했다.

또 金鉉奬의 은신과 불온유인물제작을 도와준 全州교구사목국장 金鳳熙신부(41)와 公州師大불온서를관련자로 검거된 李相憲(23)을 숨겨준 李炳敎신부(33·長省성당)도 조사를 받았다.

丁淳喆의 은닉관련자중 仁川道禾성당 黃相根신부(42)는 해외유학중이어서 귀국하는대로 조사를할 예정이다.

全대통령、陸士졸업식서 强調

"힘의 備蓄만이 平和보장"

北傀 내분감추려 挑發가능성

全斗煥 대통령은 6일 『武力赤化기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는 北韓은 심각한경제의 침체와 族閥世襲체제의 구축으로 빚어지고있는 국제적고립및 내부갈등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엉뚱한 불장난을 저지를 가능성마저 전적으로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확실하게 보장하기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없이 막강한힘의 비축이라고 믿어의심치않는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陸士에서 열린 제38기 육군사관학교 졸업식및 任官式에 참석, 諭示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막강한 힘의 비축은 1차적으로 전쟁을 억지하여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北韓을 대화의 탁자로 끌어내어 줄것』이라고 덧붙였다.

全대통령은 또 『우리는 무슨일이있어도 北韓이 武力赤化의 욕심을 버리고 평화를 위한 대화에 호응해올때까지 튼튼한 군사력을 길러야하겠다』고 밝히고 『우리의 힘의 비축이 완벽하면할수록 武力에만 의존하려는 北韓의 모험주의와 對決주의는 신속히 그힘을 잃어갈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평화는 결코 쉽게 확보되는것이 아니며, 상응한 댓가와 지혜, 다시말해서 전쟁을억지할수있는 막강한 군사력을기르는데서 비로소 평화는 얻어지는것』이라고 설명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욱 막강한 내일의 힘을 비축하기위해 모든 정열을 불살라줄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졸업식이 끝난뒤 陸士교장실에서 육사현황을 보고받고 泰陵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周永福국방장관, 尹誠敏합참의장을 비롯한 3軍참모총장과 오찬을함께 하며 환담을나눴다.

모범豫備軍에 茶菓

全斗煥 대통령은 6일하오 靑瓦臺에서 申東云씨(52·全北裡里 7團예비군연대장) 등 모범예비군 35명을 접견하고 다과를 베풀며 이들을 격려했다.

이자리에는 周永福국방장관과 3軍참모총장, 李鍾[illegible] 中央日報사장이 배석했다.

離任터키大使 叙勳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에르딜·아카이駐韓터키대사의 離任예방을받고 修交勲章 興仁章을 수여했다.

대통령 영부인 李順子여사도 같은시간에 아카이대사부인의 예방을받고 환담했다.

"經協 5월타결 難望"

사꾸라우찌 현상태론 訪韓도불투명

【東京6日=聯】 사꾸라우찌 요시오(櫻內義雄) 일본외상은 오는 5월초의 연휴기간중 한국을 방문, 60억달러 경제협력문제를 타결하기가 현재 상태에서는어렵다고 5일 저녁전망했다.

그는 지난1일 전달된 한국측 회답과 관련, 『5월訪韓으로 타결한다는 전망이어렵게 됐다. 금명간 안된다는 결론이 내려질지도모르겠다』고 비관적인견해를표시했다.

사꾸라우찌외상은 해결전망이 불투명하더라도 방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측이 굳이 오라면 가겠지만 한국이 어떻게나올지 모르겠다. 간이상은 좋은 분위기속에 가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해 타결을 전제로 하지않는 방한은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같은 발언은 경제협력문제가 해결되지않더라도 5월초에 방한할 용의도있음을시사한것으로 풀이된다.

北傀 最高會議 하루만에 폐막

【서울=聯】 5일平壤에서열린 北傀 최고인민회의제7期 1次회의는 金日成을 소위 「主席」으로 再선출한 것을 비롯, 그들 政權기관선거와 81년도 예산결산및 82년도예산승인문제등 3개議案을 처리한뒤 하루만에 폐막했다고 北傀방송들이 6일 보도했다.

그런데 北傀 최고인민회의의 회의日程은 最長 8일간을 기록한 제1기5차회의(50·2·25~3·3)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2~3일간을 계속하는것이 常例였으나 하루만에 끝낸것은 이번이처음으로, 이는 그들 최고인민회의가 金日成또는 黨결정사항을 형식적으로 追認하는들러리기구에 불과한 것임을다시한번 입증한셈이다.

盧外務·日大使요담

盧信永외무장관은 6일하오 마에다(前田利一)駐韓일본대사의 예방을 받고 30분동안 요담했다.

이날盧-마에다 요담은 마에다대사가 7일 본국정부와의 政務협의차 일시귀국하기하루앞서 이뤄진 사실과 관련, 韓日經協의 早期타결을 시사하는 진전의 하나로 풀이되고있다.

이날 요담에서 盧장관은 『서로가 입장을 잘알고 있으니 타결을 서두르도록 서로노력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마에다대사는 『한국정부의 뜻을 관계요로에정확히 전달』할것을 약속했다고 이날 요담에 배석한 한국측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이자리에서는 지난주 崔東鎭외무부亞洲局長이 무라오까(村岡)駐日공사를통해 日側에 제시한 經協의 내역과 사업별 프로젝트와 經協타결의 시기도 함께 거론된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요담에 관해 한 외교소식통은 『타결의 시기가 가까와진것으로 안다』고 분석했다.

이날 요담에는 정부측에서 崔국장이, 日側에서는 야나이(柳井)駐韓公使가 각각 배석했다.

캐나다·濠정부 아르헨大使소환

캐나다와 호주정부는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군도 무력강점에 대한 강력한항의표시로 아르헨티나주재대사를 소환했다고 6일 발표했다.

英、兵力수송용으로 旅客船1척을 徵發

【런던5日聯=外電】 영국정부는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군도점령사건과 관련, 4만5천톤級 정기여객선 1척을병력수송용으로 징발했다고존·비픈 무역상이 5일밝혔다.

비픈 무역상은 이날 하원에서 P·앤드·O회사소속 정기여객선 캔버라호의 징발을 발표하면서 이 조치가 영국정부의 포클랜드 군도재탈환공약에 따른것이며 관례대로 엘리자베드 여왕의 승인을 거쳐 결정되었다고 말했다.

"英 포클랜드海空봉쇄"

아르헨軍 고립화…再奪還 시도

【포츠머드(英國) 6日聯=綜合】 영국은 포클랜드群島에 대한 해상과 공중봉쇄를 통해 포클랜드재탈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영국의 군사전문가들이 6일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봉쇄작전을 통해 포클랜드를 방어하고있는 5천명의 아르헨티나수비대가 고립될경우 영국은 특공대를 상륙시켜 포클랜드군도를 재탈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문제논평가들은 약40척의 함정들로 구성된 영국의 기동타격함대가 아르헨티나해군을 무찌를수있을것으로 믿고있으나 문제는 아르헨티나가 영국함대가 포클랜드군도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2~3주간이라는 기간동안 어느정도 수비대를 강화시킬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英새外相에 핌

【런던5日UPI聯=綜合】 아르헨티나軍의 기습으로 빼앗긴 포클랜드군도를 탈환하기 위해 영국해군의 기동함대가 남대서양으로 출동한것과 때맞춰 5일 캐링턴영국외상, 험프리·애트킨즈부외상과 리처드·루스외무담당국무상이 영국에 『치욕적인 수모』를 안겨준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군도점령을 사전에 방지하지못한데 책임을지고 사임했다.

◇핌 英外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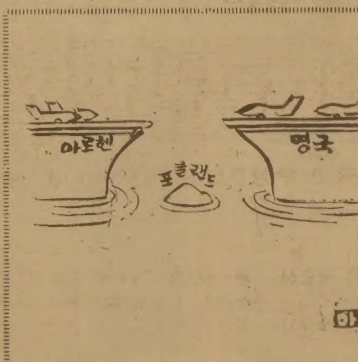
대처영국수상은 캐링턴외상등의 사표를 수리하는한편 위기처리의 명수인 프란시스·핌前국방상을 새외상에 임명했으나 존·노트국방상의 사표는 반려됐다.

포클랜드 紛爭 仲裁역할 용의

레이건 提議

【워싱턴5日UPI聯=綜合】 레이건 美대통령은 5일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포클랜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방안을 찾기위해 「중재 역할」

社會漫評



戰雲

地平線

오늘은 세계보건의 날―지리하게 5시간을 기다리다, 단 5분 진찰을 받고, 또 50분을 약받고 계산하는데 보내야하는 종합병원의 환자들은 좀편한 진료세계가 없을까 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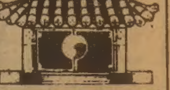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10년내에 컴퓨터진료시대가 열린다고 한다. 환자는 병원에서 의사대신 컴퓨터 앞에 앉으면 되는것이다. 먼저 컴퓨터가 비디오·스크린을 통해 환자한테 질문을 던진다. 키·보드앞에 앉은 환자는 타이프로 대답을 하면된다. 문답이 끝나면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혈액검사, 화학조사, 세균검사, 심전도, 뇌파검사, 病原조직검사를 로보트에 받는다. 컴퓨터프로그램이 끝나면 투약, 처방의 차례다.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사가 만들고 또한 의사의 直觀이 필요한때가 많기는하나 컴퓨터진단을 받으면 우선 시간·비용부터 절약된다. 통신이 더발달되면 집에서 컴퓨터치료를 편하게 받을수도 있다. 또 컴퓨터는 어느 환자에게나 공정하고, 의사가 잊기쉬운 환자의 병력을 모두 기억할수있다. 10대의 성병환자나 未婚姙産가 고민하는 약점을 컴퓨터에 그대로 솔직히 말할수있는 장점도있다. 임상의사는 사람이기때문에 일요일이나 공휴일, 야간에 병원문을닫고 술에취해 진단을못할때가 있지만 컴퓨터는언제나 무뚝뚝한얼굴이나마 환자에게 1백% 친절한봉사를 해준다. 환자를 특별히 돌봐주는 주치의를 누구나갖게되는 세상이 온다는얘기다.

▼호스피스가 우리나라에도 멀지않아 생길지 모른다. 安樂死나自然死를기다리는환자를 입원시켜延命보다 고통을덜어주는데 주력하고 위안도할수있는 시설이 미국같은 선진국에는 벌써 세워진지 오래다. 찌르면 아픈 주사바늘, 특히 집단방역때 부작용이많다고 겁내는 주사바늘의 수독시비도 高壓噴射器가 나와 옛날얘기가돼가는 세상이다. 주사바늘대신 권총형의 고압분사기로 피부에 주사약을 쏘면 저절로 피부에 약이 침투하게끔 되어있다. 집단방역때 1회용주사바늘도 필요없다. 혈액은행, 臟器은행, 레이저메스는 벌써 다아는얘기이고 늙지않는약마저 개발돼가는 현대사회이다.

▼하나 의료보험 확충이다, 무의촌 일소다, 집단 예방주사 부작용이다는등 떠들썩한 화제가 끊이지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보건의날에 위를 쳐다보면서 발아래도 굽어보는 시책이 당장 아쉬운 것은 어쩔수없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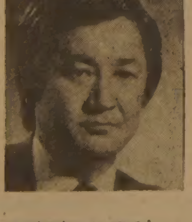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Y—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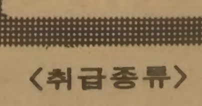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고층 아파트먼트 빌딩들
①12층, 89Unit, 100대의 주차장을 가진 10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2,400,000
②15층, 104Unit, 129대 파킹시설, 3에이커, 실내수영장, 11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3,450,000
③12층, 241Unit, 오타와에 소재
가격 : $5,780,000
이외에 여러종류의 사업체
(버라이어티, 식당, 도넛샵, 기프트샵등)
※메트로 토론토 전역을 카바하는 가옥매매에 대해 문의바랍니다.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이대환 不動産



주택, 건물, 프라자, 아파트 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 부동산회사에 맡겨 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7,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②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 : 4+5 옵숀10년
③주매상 $8,000 아스킹 $109,000 리스 : 9+5옵숀
④주매상 $6,500 아스킹 $65,000 렌트 $500(Mon) 리스 : 11년 20마일. 시외
*도나스 샵
주매상 $9,200 렌트 $3,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 다운페이 $150,000
*햄버거 샵 *드라이 크리닝 *커피 샵등 여러가지 비지네스가 있음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밴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 (B)
439—5030 (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아이들싸움」이 「어른싸움」으로…포클랜드事態

블록間의 對決로 치달아

난처해진 美、협상仲裁役 제의
政權걸려 兩國평화해결어려워

포클랜드를 무력점령한 아르헨티나는 6일 영국과의 전쟁을 대비, 포클랜드 군도에 병력과 군사시설을 추가투입하고 美洲기구(OAS)에 대해서는 『영국 식민주의에 공동대처하자』고 호소했다.

이에 맞서 영국은 EEC(구주공동체), 英聯邦 등과 집단응징책을 찾고있어 포클랜드군도를 둘러싼 분쟁은 블록간의 대결로 그 양상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런 틈바구니에 낀 미국의 입장은 참으로 난처하다.

美洲기구의 리더로서 아르헨티나의 지원요청을 무시한다면 미국은 장차 남북미대륙에서 지도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고 아르헨티나의 지원을 위해 OAS와 행동을 같이한다면 가장 강력한 맹방인 영국과 유럽대륙의 원성을 감당할수 없게된다.

이같이 진퇴양난의 궁지에서 나온것이 레이건의 「협상주재안」 제의.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국 모두 협상의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태는 당장 협상보다는 무력충돌의 위험으로 치닫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협상이 무어진다해도 포클랜드군도로부터 군대를 철수하는 문제는 고려될수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남미국가들을대상으로 과거 유럽 대륙국가들로부터 당한 식민지배의 아픈 의식을 일깨워 영국에 집단대응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政權안보를 위해서도 아르헨티나의 우익군사령부가 포클랜드점령군을 철수시키는 일은 쉽게 고려할 수 없게시리 돼있다. 포클랜드점령하루전만해도 거세게 타오르던 反정부데모가 하루아침에 기세가꺾이고 오히려 軍政지도자들을 영웅이라고 갈채를 보내고 있으니 말이다. 가장 강력한 反정부단체였던 勞組지도자들마저 포클랜드군도의 점령을 『역사적인쾌거』로 부르고 정부에 휴전을 제의했다. 포클랜드의 回軍은 이런 상황에서 政權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것은 자명한 일이다.

영국의 사정은 어떤가. 포클랜드가 아르헨티나의 기습공격을 당하자 鐵의女人 대처수상은 야당과 언론으로부터의 빗발치는 질타를 당했다. 대처의 지지기반인 보수당 의원들까지 비판의 대열에 가세, 대처내각을 궁지로 몰았다. 영국의 여론은 한결같이 이번사태가 국가체면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보고있다.

대처정부가 25년래 최대 규모의 해군력인 40척의 군함을 출동, 포클랜드를 재탈환키로 한것은 이런 야당과 언론의 질타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사태에 영국이 우유부단하거나 주저앉게된다면 英聯邦종주국의 위신과 지도력은 영원히 함몰해버릴지 모를일이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와의 무력대결은 영국으로서는 실로 老帝國의 국운이 걸린 중대한 전쟁이 되고있다.

대처는 캐링턴外相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씌우고 사임시켜 일단 국내의 질타를 막았다. 그러고는 프랑스, 서독등 EC圈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등 英연방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존·노트 국방상에게는 『재정문제는 둘째 문제다. 포클랜드를 재탈환하기위한 조치라면 돈은 얼마든지 써도 좋다』고 對아르헨티나전쟁의 전권을 위임했다.

영국정부의 강경책에 아르헨티나 군사정부 지도자들은 스스로 놀라고있다. 그들은 당초 대부분의 해군이 NATO산하에 들어가 있다는 점, 더구나 경제난국이 전비조달을 불가능케 하고 있다는 등 의영국의 약점을 간파하고 포클랜드침공을 감행했다.

그러나 영국은 해군력동원을 NATO에 통고해놓고는 3억5천6백만달러의 戰費조달을 거뜬히 해결하고 나선 것이다.

아르헨티나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피할수없는 모험의 길을 가고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영국의 공군기가 와닿을 수없는 항구와 도시들에서는 등화관제훈련이 실시되고있다. 병원지붕에는 하얀페인트를 칠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쟁의 승패는 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포클랜드를 향해 항진하고있는 영국함정 40척에 실린 화력이 아르헨티나 해군화력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영국해군병력이 7만3백명인데 비해 아르헨티나의 해군력은 3만9백30명에 불과하다. 아르헨티나해군함정의 대부분은 1930년대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낡고 속도가 느린것들.

영국이 포클랜드를 무력으로 찾겠다고나선것은 對아르헨티나전쟁에서 승리를 자신하고있음을 엿볼수 있다.

영국의 입장에서는 군사력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상에 매달리기 보다는 무력으로 잃어버린 포클랜드를 되찾아 老帝國의 위신과 英연방종주국의 지도력을 과시해보고 싶어하는것이다.

협상의 가능성도 물론배제할 수는 없다. 아르헨티나가 과거의 식민지배의 쓰라린 의식을 불러깨움으로서 라틴아메리카는 물론식민지배의 경험을 공유한전 체3세계권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기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 이런 호소가 먹혀들어간다면 영국의 무력행사가 장기적으로는 영국에 得보다는 失을 더많이 안겨주게 될지도 모른다.

중남미좌익게릴라의 활동을 억제해야 할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무력대결의 사태를 막아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수없다. 이점은 이번사태가 군사충돌에 이르기전에 협상을 통해수습될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고있다.

OAS의 모든 회원국이 아르헨티나를 지지하고 나서는데도영국이맹방임을이유로 미국이 방관자세를지킨다면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제도를 이탈해갈것이며 그 틈사이에 소련의 입김은 스며들 것이다.

그렇지만 영국과 아르헨티나 모두가 명예로운 협상을 내세우고 있는만큼 짧은기간에 간단히 포클랜드사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갖기 어렵다. 영국과 아르헨티나 모두에게 국가위신이 걸려있는 사안이기때문이다. 그보다도 양국 모두의 정권의 안정여부가걸려있는 점이 포클랜드사태의 평화적해결기대를 어렵게 만들어놓고 있다.

포클랜드사태는 잠자는듯하던 블록간 대결을 일깨워 세계를 소란스럽게만들지도 모른다. 【崔相鍋기자】

美洲기구 공동對應策 맞서
英선 EEC·英聯邦내세워

아르헨、뜻밖의 英강경대처에 움찔

◇포클랜드군도를 점령한 아르헨티나해병이 영국군수비대의 기지였던스탠리병원에 중대본부를 설치, 경비를 서고있다. 【AP】

팬더곰夫婦 인공受精
美서 6년째結合시도 失敗끝에

미국의 유명신사가된 팬더곰 싱싱군과 링링양(사진)은 이 6년째걸친 결합시도에실패, 마침내 인공수정을 하게됐다.

지난5일 봄기운이 완연한 워싱턴DC국립동물원에는싱싱군과 링링양의신방이 꾸며졌다.

만10년전인 1972년 닉슨전 대통령의 중공방문을기념해 중공이 미국에 선물한 이한쌍의 팬더는 금년으로6년째의 결합을 시도한것.

온갖 방법에 심지어는 최음제까지 사용해가면서 이들의 결합을 시도했으나 링링양이 왜 이 체격좋은 연하의 싱싱군을 거절했는지 알수없다.

전날저녁 꿀바른 죽순, 사과, 홍당무, 치즈등으로 정력을 가다듬은 싱싱군이 미소를 띠며 접근하자 링링양은 예의 거부를 누그러뜨리는 아량을 보였는데 그것도 잠시, 갑자기 으르렁대며 싱싱군의 얼굴에 일격을가해 서 언덕밑으로 밀어버렸다.

동물원측은 팬더가 6세께에 발정, 15세이전에 폐경기가 된다는 사실을 감안, 할수없이 비상책으로 인공수정을 시켰는데 성공여부는 수개월후라야 알수있다. 【LA支社】

◇美·蘇정상회담 제의하는 레이건 레이건美대통령이 5일 백악관에서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6월 레오니드·브레즈네프蘇聯공산당서기장과 핵무기 협상을 갖게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하고있다. 【워싱턴 5日AP=聯合】

海外토픽

엘女王에 더 忠誠
★포클랜드住民 英國民보다

수일전 아르헨티나軍에 의해 점령된 포클랜드군도의 주민들은 영국국민들보다 더 엘리자베드여왕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지난 76년 포클랜드에서 런던으로이주한 도널드·카메론(28)씨가 4일 말했다.

카메론씨는 『포클랜드주민들의 생활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지난 25년 동안 살인사건이라고는 단 한건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포클랜드주민들의 소박한 생활은 TV수상기1대 없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런던=UPI】

皇太子요트도 파견
★英포클랜드에病院船으로

찰즈영국황태자 내외가 신혼여행시 사용했던 초호화판 요트 브리타니아호(5천7백톤)가 병원선으로 쓰이기위해 포클랜드군도로 향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영국정부 소식통은 브리타니아호가 해군소속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이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을지 모른다고 전했다. 【런던=UPI】

百세老人 새齒牙
★어느날아침 27개나와

중공江西省에 사는 1백세난 한 노인이 어느날아침 눈을 뜨고보니 뻐소 치아라고는 하나도없던 잇몸에서 27개의치아가 새로 돋아나고 있더라고 5일 上海의 文匯報가 보도. 【北京=AP】

헤이그除去 호소
★美首·존즈大총장新禱

급진적 신학색채로 유명한 봅·존즈대학총장 봅·존즈2세는 한기도에서 신에게 알렉산더·헤이그국무장관을 제거해달라고 호소.

존즈2세는 국무성이 과격파인 북아일랜드 신교지도자 이언·페이즐리 목사에게 미국입국비자발급을 거부했기때문에 『신이 그를 제거해줄 것을 기원한다』고말했다고. 【그린빌(사우드캐롤라이나)=UPI】

外信안테나

◆쿠바, 더많은 武器購入

쿠바 대통령 피델·카스트로는 5일 쿠바가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위해 더 많은 무기를 수입중이라고 말했다.

카스트로는 이날 쿠바청년공산당연맹 총회 폐막연설에서 『우리는 지난 수년간 우리의 국방력을 극대화하기위한 노력을 끈질기고 조용하게 벌여왔으며 對쿠바봉쇄, 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아바나=聯】

◆방글라軍政2천여명檢擧

방글라데시 군사정권은 지난24일의 무혈쿠데타이래 최소한 8명의전각료를 포함, 2천여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계엄위반자들을 재판할 23개소의 약식군사재판소를 4일 설치했다고 5일 방글라데시관리들이 밝혔다. 【다카=聯】

◆팔人의 合法的熱望승인촉구

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5일 요르단江서안거주 팔레스타인人들의 『합법적인 열망』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교황은 聖枝주일(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기념일)을맞아 바티칸광장에모인 12만명의 신도들에게행한 강론에서 『지난주 또다시 팔레스타인 거주 요르단江서안으로부터 새로운 고통스런 소식이 들려왔다』고 말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열망』을 수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티칸시티=UPI】

◆波·蘇에 經濟的압력加했어야

재럴드·포드前美대통령은 레이건美대통령이 폴란드계엄사태에 대처, 폴란드와 소련에게 경제적 압력을 가했어야 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지난3일부터 발매된 퍼레이드가보도했다. 【워싱턴=UPI】

美·中共、對臺灣 무기판매
北京서 協商중

駐美中共대사 밝혀

【워싱턴6日AP=聯合】 미국과 중공은 현재 北京에서 레이건 행정부의 對대만군사장비판매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회담을 진행중이라고 駐美중공대사 柴澤民이 5일밝혔다.

柴澤民은 이날 미국무성에서 알렉산더·헤이그장관과 30분동안 회담하고 대만에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문제를 토의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날 회담은 「비공식적」인것이었으며 현재 北京에서 양국관리들간에 공식회담이 열리고 있다고 전했다.

柴는 北京에서 열리고있는 회담의 구체적인 성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회담이계속 될것이라고 말했다.

"對美관계 곧格下"
黃華, 對대만 武器판매반대 固守

【北京5日AP=聯合】 중공외상 黃華는 5일 중공이 미국의 對대만무기판매에 대한 반대입장에서 한치도 후퇴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北京주재외교관들과 중공정부소식통들은 美·중공관계가 곧 격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黃華는 이날 중공을 방문중인 에드워드·히드 前영국수상과 회담한 자리에서 중공이 對대만무기판매에 대한 반대입장을 조금이라도 굽히지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중공은 아직 미국에 대해 美·中共수교에 관한 上海공동선언을 존중할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黃의 이날 발언은 관영新華社통신을통해 보도되었는데 관측통들은 중공당국이 제3국 문제를 다룬 외국인과의 회담내용을 밝히지않는 종전의관례를깨고 黃과 히드씨간의 대화내용을공개한 사실을들어 중공의 對美불만이 심상치않은 것으로풀이했다.

黃은 이날 회담에서 또 美國과 中共이 양국관계와 臺灣에대한 무기판매와 관련한 협상을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北傀 올軍事費 18억 2천萬弗

【서울=聯合】 北傀의 금년도 예산가운데 표면적으로 공식책정된 軍事費는 예산총액(총상 GNP의 90%정도)의 14·5%인 18억2천2백만달러(北傀貨 32억6천9백만원)인것으로 6일 밝혀졌다.

北傀는 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7期 1次 회의에서 채택된 금년도 예산 총액 1백25억6천7백만달러(北傀貨2백25억4천6백만원) 가운데 14·5%를 군사비로 책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에 책정된 군사비 16억7천8백만달러(예산比14·7%)보다 약 8·6%가 증가된 액수이다.

南阿共、또앙골라侵攻
지난해 8월이후처음… 헬機등 동원

【루안다6日AFP=聯合】 남아공군은 지난해 8월이래 처음으로 남부앙골라 깊숙이 공격을 감행해왔다고 앙골라국방상 페드로·마리아·토니·페달테대령이 5일 말했다.

페달테국방상은 이날 라디오방송을통한 발표에서 남아공군이 지난 주말부터 5일까지 헬리콥터와 항공기를 동원, 이지역에 공격을 감행했으며 앙골라에대한 대규모공격을 위해 북부 나미비아에 유럽용병을 포함한 병력과 항공기들을 집결시키고있다고 주장했다.

남아공의 이번공격은 최근 수주간에 걸쳐 남아공최기들의 앙골라상공비행이 강화됐다는보도에 뒤이은것이다.

"브레즈네프 定期휴가중"
外務省대변인 발표

【모스크바5日AP=聯合】 소련외무성은 5일 공산당서기장 최고회의간부회의장 브레즈네프가 현재 『정기적인 겨울휴가를 보내고있는중』이라고 발표했다.

외무성대변인은 이날 브레즈네프가 와병중이며 공산당서기장과 최고회의간부회의장직이 다른사람으로 교체될것이라는 서방으로부터의 보도에관해 질문을받고 그가 휴가중이라고만 말한채 휴가장소와 휴가기간 그리고 휴가가 언제부터시작됐는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 대변인은 소련어로 「오치크(OTOYKH)」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말은 흔히 「휴가」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휴식」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두아르테 參與배제
우파聯政 추진박차

【산살바도르(엘살바도르)6日UPI=聯合】 엘살바도르선거에서 총 60석의 제헌의회의 석중 과반수가 넘는 36석을 확보한 右派정당들은 6일 지난 4일 極右 국민공화동맹당(ARENA) 소속 다비드·뒤테로스의원의 암살사건에도 불구하고 右派연정구성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5개右派정당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있는 집권 基民黨이 연립정부에 가담할수는 있지만 基民黨당수인 두아르테 현 대통령은아무런역할도할수없을것임을분명히했다.

美·蘇 頂上회담 6월열자
레이건 유엔軍縮회담 함께參與제의

【워싱턴5日AP UPI=聯合】 레이건美대통령은 5일 오는 6월 브레즈네프소련공산당 서기장과 미국에서만나 핵무기감축에 관한 美·蘇정상회담을 갖게되기를 바란다고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백악관 출입기자들과의 비공식즉흥회견을통해 자신이 오는6월 유엔군축회의에서 연설을 할것이라고 밝히고 브레즈네프도 이 회의에서 연설할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 브레즈네프에 간접적으로 미국방문초청을 제의했다.

레이건대통령은 군축이야말로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운데 하나라면서 『우리 두사람 모두 유엔군축회의에서 연설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브레즈네프와의 정상회담을 『상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것은 완전한 美·蘇정상회담이 아니라 소련의 국가원수인 브레즈네프가 미국에 있을경우 미국의 국가수반인 자신과만나 공동관심사인 군축에 관해 토의하는 것을 자연스러운일로 볼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와병중인 것으로 알려진 브레즈네프가군축회의에 참석할수있게 될지는 알수없다고 말했다.

그는 헤이그 국무장관이 6일 워싱턴에서 전략무기감축에 관한 연설을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오는6월 초 나토맹방들과의 경제·군사문제토의를 위해유럽을 방문할예정인데 그는 귀국즉시 뉴욕 유엔군축회의에 참석, 연설할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즈네프가 미국을 방문한것은 지난73년6월 닉슨당시 대통령과 회담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회견을 통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 폴란드사태, 인도차이나문제등 전반적인 소련의 정책을 맹렬히 규탄하고 소련이 미국에 대해 핵우위 입장을 견지하고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對蘇관계개선 모색
中共、佛共黨중재로

【파리5日AP=聯合】 중공은 프랑스공산당을 중재자로 이용하여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할지 모른다고 알바니아의 제리·이·포폴리트紙가 5일 보도했다.

파리에서 수신한 ATA통신은 이신문의 논평기사를인용, 『중공이 공식적인 反蘇선전에도 불구, 장차 對蘇관계 개선을 도모한다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것』이라고 말하고 中共지도자들은 親蘇프랑스공산당에게 中·蘇대화를 이끌어갈 조정자의 역할을 맡길수도 있을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신문은 프랑스공산당정치국원 막심·그레메츠의 최근 알바니아방문에관한 기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공과 프랑스공산당이 서로 정치적 이득을 볼수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메아리

요즘에 보는 감각스런 현상은 아니다. TV를 보고 있노라면 말이 지나치게 거칠고 툭하면 때리고 살상이와 주먹다짐 아니면 칼을 내어휘두르는 따위의 폭력이 난무한다.

다툼질과 매질이 너무나 흔해서 그런 거친장면이 나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고 얼른 폭력물을 찾아 채널을 바꾸는 어린이가 적지 않다는 부모의 근심도 자주 듣는다.

누구나가 말로는 시청자들의 사고와 행동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TV란것을 잘 알면서도 막상 방송국을 잡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운동 하나 없으며 또 심의기능도 제대로 구실을 하는것 같지가 않다.

근자 고대신문방송연구소가 주재한 세미나를 위해 국내에서 방영되고있는 TV의 3개프로그램에서 폭력장면을 조사한 결과가 우리의주목을 끈다.

즉 2프로그램에서는 10분당 3건정도의 폭력 건수를 볼수가있었으며 나머지 한프로그램의 경우는 10분당 9·7건의 비율이라니 요즘의 우리TV는 폭력을 마치 조자룡이 헌칼쓰듯 내어두르는 꼴이다.

TV폭력

서울의 경우 지난1월5일부터 2월5일까지 한달동안 경찰이 추적한 학생범죄는 모두 3백60건이었고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무려 1백18건이나 늘었으며 그가운데는 폭력을 휘두른것이 대부분이고 흉기살인만도 3건이나 되었다.

이처럼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의 교내폭력이해마다 늘어나고 폭력을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는 풍조가 TV와 같은 대량전달 매체의 무관심과 상관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위한 조사에 관여한 교수들은 미국에서는 계속되는 사회의 압력으로 폭력적인요소를 줄이고자 자율심의를 보강하고 영국에서는 이미 10년전에 「폭력묘사에 관한 지침서」를 마련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심의제도는 윤리성에 치우쳐 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다고 우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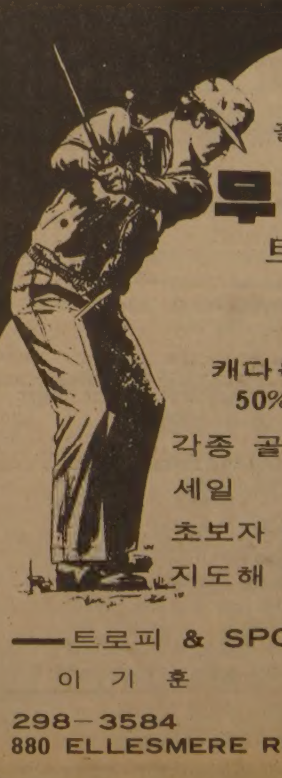
이와같은 사단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율심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시청자들의활발한 참여로TV폭력에 대한 소비자보호주의가 아쉽다고본다.

새로운 언론법에 근거를 두고 발족한지 1년이 된 방송위원회의 기능이 TV폭력물에 개입할때가 된듯하다.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416) 977-8858-9
10AM → 8 : 30PM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트로피 & SPORTS—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한시간동안 네 모습을 보고있구나." "네 자신이 자부심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지 않니?" "아니." "난멋있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하지만 확실히 자부심은 강하지않아!"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韓·美 어업협상 결렬

美, "수산물수입關稅 대폭引下" 요구

北洋어로활동 큰제약

밥상에 값싼생선 오르지못할지도

7월1일 滿期… 15일이전에 타결돼야

3월말까지 타결짓도록된 韓·美漁業協定개정협상이 美측의 태도경화로 좌절돼 정부와 北洋명태遠洋업계를 긴장시키고있다. 지난77년3월발효, 오는 7월1일로 시효가 끝나는 새 韓·美어업협정은 우리나라 연간총어획량의 10%에 해당하는 북양명태의 어획쿼터를 규정하고 있어 협정체결이 지연되거나 결렬되는 경우 일반가정의 값싼단백질공급원의 차단과함께 北洋어선단의 韓船문제등 심각한 사태를 야기시키게 된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새 어업협정개정체결을 위해 金鍾洙수산청장등 일행이 지난 달15일 출국, 워싱턴의 駐美대사관 관계관과 對美협상회담에 나섰으나 美측이 수산물수입에 따른 한국측의 관세장벽을 대폭낮추고 종전 연도별로 정하던 어획쿼터를 매 분기별(3개월)로 배정하겠다고 주장, 한국측이 이를 받아 들이지않음으로써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것이다.

이 美측은 이번 협정개정협상에서 한국측이 현재 최고 25%까지 부과하는 수산물수입에 따른 관세율을 대폭 낮추도록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국내의 영세한 원근해어업계 보호를 위한 장치인 관세부과를 美측이 만족할 수준으로 낮출수없어 거절했다고 한다. 또 어획쿼터를 연도별이 아닌 분기별로 배정할경우 3개월마다 쿼터를 배정받기위한 번거로운 협의가 이루어져야하고 그만큼 美측의 管水域내에서의 어로활동규제가 강화돼 사실상 北洋어로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게된다.

韓美어업협정은 오는 7월 1일로 시효가 만료되나 의회의 승인과정등 양국정부의 협정발효 절차와 계속적인 어로활동에 필요한 사전어획량배정을위해 최소한 3월말까지 협상타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당국은 워싱턴에서의 실무자급 어업협정개정협상이 타결되지않음으로써 양국정부간의 정치적 타결방안이 남았다고 밝히고 정치적타결도 오는15일이전에 끝나야 하반기 북양어로활동에 지장을 받지않게될것이라고밝혔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지난 한해동안 명태를비롯 가자미 청어 14개어종에대해 26만8천5백36톤의 어획쿼터를 배정받아 31척의어선이출어, 93%인 24만8천8백19톤을 어획했고 올해는 오는 6월말까지 8만9천2백30톤을 배정받아 3월말현재 6만2천 여톤을 어획했다.

美國과의 어업협정은 지난 77년 선포한 2백마일 경제수역에서 어로를 하고자하는 국가에대해 美國과 어업을맺게한뒤 美國이 매년할당해주는 어획쿼터범위안에서 고기를잡아가도록규제하고있다.

金正日體制구축 일단失敗

國內外반발 거세… 副主席 못올라

【東京6日=宋孝彬특파원】 金日成은 5일부터열린 북괴의 최고인민회의(國會에 해당) 제7차 대회에서 아들인 金正日을 부주석으로앉혀 명실상부한 세습왕조를 이루려다가 국내외의 강력한반발로 실패했다고 이곳 북한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

金日成은 2월말 인민회의 대의원 6백15명을 선출했을 때 金正日을 처음으로 대의원으로 등장시킨데이어 이번 대회에서 부주석으로, 또 金正日의 추종자인 林春秋를 수상으로 각각 앉힐 계획이었으나 고참당간부및 일부군부와 종주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뜻을이루지 못했다고 일본신문들은 분석했다.

분석가들은 그렇다고 金日成이 父子세습계획을 버린것은 아니며 金正日체제의 조급한 구축계획에서일시후퇴, 서서히 부각시키는 점진작전으로 바꾼것으로 평가하고있다.

生必品값 안정勢

50개品目중 15개만 올라

작년4월부터 공정거래법이 시행된이후 서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50개 주요생필품의 소비자가격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大韓商議가 공정거래법실시 1주년을 맞아분석한 『주요생필품가격동향』에 따르면 기간중 쌀·쇠고기·달걀등 50개 생필품가운데 15개품목만이 오름세를 나타냈을뿐 21개품목이 내리고 14개품목이 보합세를 나타낸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격이 오른 품목은 일반미가 중품한말(8kg)에 5천5백원에서 6천원으로 9% 오른것을 비롯 ▲쇠고기(22.8%) ▲마늘(16.7%) ▲달걀(20%) ▲소주(33.3%) ▲우유(20%) ▲프로판가스(8.3%) ▲연탄(33%)…

품목은 콩이 1되 상품한말에 7천원에서 6천5백원으로 7.1%가 하락한것을 비롯 ▲돼지고기(12.5%) ▲배추(20%) ▲콩나물(25%) ▲김(2%) ▲무우(20%) ▲고추(42.8%) ▲생명태(11.1%) ▲파(60%) ▲낙화생(26.7%) ▲소금(33.3%)등 21개품목에 달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린 품목가운데는 설탕이 3kg들이 1부대에 3천5백원하던것이 2천9백원으로 17.1%나 내린것을 비롯 ▲식용유(5.3%) ▲세탁비누(4%) ▲연성세제(7.1%) ▲메리야스내의(16.7%) ▲합판(3.1%)등 주요공산품들도 상당수 포함돼있다.

반면 아기과자 값이 내린 15개품목은… ▲백등유(29.2%) ▲분유(7.7%)등…

제16회 端宗祭 어제 개막

寧越 莊陵서 30개行事진행

【寧越】 端宗의 넋을 기리고 향토의 문화유산을 가꾸기 위한 제16회 端宗祭가 6일 상오10시 寧越邑 莊陵(端宗陵)에서 3천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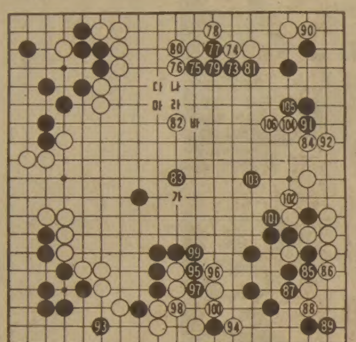
端宗제향·신제향 제악과 헌무등 고유제행사에 이어 신선발·가장경연·국악경연·궁도대회·대왕행차·한시 백일장등 30여개 종목의 문화행사가 7일하오까지 계속된다.

이에앞서 5일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동안은 전야제행사로 불꽃놀이(낙화암) 향화봉송(충신봉) 나화제(낙화암) 연예인의밤(읍민관)등도 있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6局 第6譜 73~106 (각 5시간 덤 5집반)

白(7段) 徐 奉 洙 <3勝1敗>
黑(6段) 張 秀 英 <3勝1敗>



黑은 덤이 부담인데…

때는어느새 하오5시께. 한국기원 특별대국실 서쪽유리창에 쥐꼬리만큼 비치던 저녁햇살이 꼬박 가려졌는데 盤面에는 아직도 백개미만의 돌들이 쥐죽은듯 널려있다. 현세도 오리무중이고 진행도 지지부진. 리그戰최장의 시간을 기록할것같다. 상변을 黑73이하 81까지로 싸바른데서 白82는 노타임. 黑이 83으로 받아주지 않을경우 白「가」의수가 준엄해진다.

白84와 黑85는 소위 「맞보기」의곳이라하지만 85는 『우상귀를 90자리에 지켜서 충분했을 것』이라고 국후에 張6단은 아까운 표정으로 술회했다. 또 평에서는 黑93과 白94도 맞보기라 지적하면서도 이해득실면에서 93은 94가 유리했을 것이라고한다. 아리송한 국면이고 결과적으로 한집반의 승부였던 만큼 당사자로서는 컴퓨터 같은 계산이 필요할 것이다.

黑95에는 白96이 강경한 반발이다. 굴복 黑97을 당하더라도 白100까지 한점을 잡는 계산이 서었기 때문이다. 張6단은 6분간을 소비한끝에 黑101로 붙여 103. 매우도 어려운 장면이지만 중앙쪽을 확보해야 크다고 본모양이다. 그러나 사실은 103으로 黑「나」白「다」黑「라」白「마」黑「바」쪽을 먼저 결정짓는편이 유리하잖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것에서의 계산은 기분에도 좌우되는법. 따라서 객관적인 평이 냉정한 만큼 설득력이있다고 생각된다. 白104, 106쪽을 젖혀놓고 보니 아무래도 黑이 5집반 덤을 내기 어렵다는 얘기들인데 그러나 張6단은 침착했다. 어쩌면 이길자신이 있던걸까. 【一九】

나의 이력서 金蘇東 (題字 金蘇東) ㉔

慶州태생의 裵基獻씨가 자금을 마련해서 코리아·레코드사가 창립되었다. 취입스튜디오를 에디슨레코드사와 계약했고 프레스작업까지 에디슨공장에 맡기기로 했다.

이무렵 서울에서 朴基采감독이 「春風」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 복혜숙, 이경선, 문예봉, 김일해등이 출연한 흑백무성영화다. 어느날 이병일이 「春風」의 주제가를 작곡해달라고 갑작스럽게 부탁했다. 어리둥절해서 각본을 받아가지고 하숙으로 돌아왔다. 밤을 새워가면서 몇번씩이나 각본을 읽어보고 영화 「春風」에 담긴 사연과 감정을 충분히 파악했다.

그러나 영화를 보지도 않고 주제가를 만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한일이었다. 서울에서는 빨리 레코드로 만들어서 재차편으로 보내라는 전보가 날아왔다. 하숙으로 찾아와서 수삼일내로 취입이 끝나야한다고 독촉이 성화같았다.

작사·작곡, 엄청한 편곡까지 했다. A면에 「송별의 밤」, B면에 「깨어진 정열」을 담았다. 김용환의 누이동생 김안라양이 속성으로 취입했다. 레코드라벨에 영화 「春風」 주제가라 찍어서 작곡·작사 金牧園이라는 이름으로 첫번째 레코드제작이 완성됐다.

코리아레코드 시절

映畵주제가 처음으로 作詞作曲취입

이 무모한 작곡가가 남의 영화를 망치면 어쩌나하고 심각한 걱정속에서 전전긍긍했다. 서울에서 편지가 왔다. 노래도 마음에 들고 가사의 감정도 영화내용에 잘 부합된다는 감사를 표한 내용이었다.

이것이 내가 영화에 직접 관여한 첫번째 활동이다.

「강남달이 밝아서 님이 놀던곳 구름속에 그의 얼굴 가리워졌네」 아마도 나이 든 분은 이노래를 기억하리라고 믿는다. 1927년 李龜永감독(작고)이 만든 「落花流水」라는 영화의 주제가다. 기생과 화가의 슬픈 로맨스를 내용으로한 신파물이다.

1920년 한국영화초창기에 李世甚감독이 「長恨夢」을 만들었고, 1926년에 다시 李慶孫감독(현재 태국)이 두번째로 「장한몽」을 만들어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시대는 이러한 유의 신파연극이 관중의 심리를 사로잡던 때다. 이 영화 「落花流水」 역시 신파조의 내용으로 기생의 슬픈 사랑사연을 담은 영화다. 단성사에서 개봉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후일 「落花流水」의 사연이 담긴 레코드가나오자 장안은 온통 「강남달이 밝아서」 일색으로 한동안 유행해서 영화주제가 구실을 했다.

그러나 영화 「春風」의 주제가는 개봉당시에 의도적으로 기획된 나의 영화음악적 성격을 띤 주제가라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약간의 보람을 느꼈다. 한국의 영화음악에 처음으로 참여했다는 意義를 자랑스럽게도 생각한다.

해방직후 한국에서는 陳영호씨가 제작한 「푸른 언덕」이라는 음악영화가 나왔다. 黃文平씨가 음악을 담당해서 우리영화의 토키음악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그 제작작업을 당시 내가 주재하던 영화과학연구소에서 담당했다. 그때 노고를 극복한 황문평씨의 공헌은 바야흐로 큰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화음악의 출발점이 된 셈이다.

◇해방직후 진영호씨가 제작한 우리나라최초의 음악영화 「푸른언덕」. 黃文平씨가 음악을 담당했다.

「아리랑원곡」 「바위고개」 좋은 반응

金貞九발굴 東京에 데려가 스타로

코리아·레코드에서는 그후 李瑞求씨(전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의 「아리랑 원곡」과 김안라씨의 「바위고개」등을 취입했다.

내가 김용환가족과 같이 강운천리에 갔을때, 김정구의 독특한 창법을 발견하고 가수되기를 권했다.

그러나 그의 형 김용환씨의 적극적인 반대로 한동안 그는 모든 것을 단념하기도 했다. 그후 나는 김정구를 서울에서 기다렸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족몰래 서울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코리아·레코드에 취입할것을 약속하고 그를 대동하고 동경으로 왔다. 시험취입을 해봤더니 그 음색과 기교는 기성가수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스타탄생이 된셈이다.

내가 만든 곡들을 김정구, 蔡奎燁등이 불렀다. 「방랑의 한숨」, 「봄노래」등 내곡이 목청을 맞췄다. 몇장의 레코드가 서울로 갔다. 그후 朴孤松(연극배우·작고), 崔仙(연극배우·작고)등을 동경으로 불러들여 레코드에 드라마를 취입시켰다.

킹스컵 권투

5명 4强에 한국 銅5개확보

【방콕5日=聯】 한국의 洪基鎬(청주사대)는 5일밤 방콕 국립경기장에서 벌어진 제8회 킹스컵 아마복싱대회 라이트 헤비급 준준결승전에서 케냐의 다니엘·오냥고를 2회RSC로 제압하고 4강에 진입했다.

그러나 웰터급의 張潤鎬(한체대)는 케냐의 피터·가마우에게 2회RSC로 패했다.

한국은 이로써 金光善(라이트플라이) 文成吉(밴텀) 李南儀(미들) 蘇培元(헤비)을 비롯한 모두5명이 준결승에 진출 최소한 5개의 동메달을 확보하게 되었다.

洪基鎬는 오냥고와의 대전에서 집중노도와 같은 인파이팅전법을 구사, 통쾌한RSC승을 거두었다.

强敵웨이드를 격파

李德姬2회戰 진출 패밀리 테니스

【힐튼헤드 아일랜드(美사우스캐롤라이나주)5日UPI=聯】 한국의 李德姬는 5일 이곳서 벌어진 제10회 패밀리 서클 여자테니스대회 1회전서 77년 윔블던대회 챔피언이며 금년도 세계랭킹 47위의 버지니아 웨이드에게 2-1(4-6, 6-4, 6-1)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이대회에는 크리스 에버트·로이드를 비롯하여 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 안드레아·예거등 세계 여자테니스상위랭킹 10위가운데 8명이 출전했으며 2만달러의 상금이 걸려있다.

流星의 賦 <35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孤獨한 英雄 ⑦

광주(廣州)의 산속에 일시 근거를 두고 전세를 살피고 있던 홍계남이 옥포(玉浦)에서 우리 수군(水軍)의 대첩이 있었다고 들은것은 5월 그믐께였다. 5월7일에 있은 승전 소식을 5월말에 들었다면 너무나 늦은 느낌이 있지만 통신망이 두절되어 있던 상황으로선 도리가 없었던 일이다.

왜적의 육상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고 있는 동안 그들의 수군은 등당고호(藤堂高虎), 구귀가륭(九鬼嘉隆), 협판안치(脇坂安治), 가등가명(加藤嘉明) 등의 지휘아래 가덕도(加德島) 부근에서 전투태세를 정비하는 한편 인근의 마을을 겁략(劫掠)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경상우수사 원균(元均)은 전일 중과부적으로 부산포에서 철수한 함선을 재정비하여 적의 기선(機先)을 제할 작전을 세웠다. 이 작전에 따라 원균은 전라좌수사 이순신(全羅左水使 李舜臣), 전라우수사 이억기(全羅右水使 李億祺)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합세를 요청했다. 한편 조정에서도 원균의 장계에 따라 원균과 합세하여 적을 무찌르라는 명령을 이순신을 비롯한 각지의 수령들에게 내려놓았었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우리의 연합수군은 5월7일 가덕포로 향해가던중 옥포(玉浦) 앞바다에서 적선을 포착하여 이를 기습하고 적의 함선 26척을 대파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러한 초전(初戰)의 승리는 우리 수군의 사기를 앙양하는 것으로 되어 이윽고 연전연승하는 전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북으로 전해지자 국민들의 사기도 크게 진작하는 결과가 되었다.

홍계남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옆에 있었던 조인식을 보고

『내가 뭐라고 하던가. 우리 국운이 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

하고 크게 기뻐했다.

주간女性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80>

朴婉緒 作 金光培 畵

明暗 ⑭

『우리 누님이 무슨 거짓말을 시켰게요?』

『댁이 순진해 빠졌다면서요? 여자 앞에선 쩔쩔 맬 줄 밖에 모른다면서요? 미국 가서도 연애 한번 못 해봤다면서요? 우리 올케의 거짓말이나 댁의 누님의 거짓말이나 피장파장이니 서로 비긴셈치고 우리 그만 헤어져요』

『피장파장이라뇨? 천만에 대이 숫보기가 아니란 증인은 많지만 내가 미국서 연애 한번 못해 보지않았다는 증인은 어디 있읍니까? 안그래요? 아무도 내가 연애한걸 증명하지 못하면 나는 연애하지 않았읍니다』

『전 서른살이 되도록 연애 한번 못해본 남자 매력 없어요』

『그래요? 그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의기가 투합하는 군요. 나 역시 남자하고 키스는 커녕 손목 한번 못 잡아본걸 재산목록처럼 내세우는 노처녀는 구역질이 납니다』

『연애 한번 못해본 시간을 번역하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아니죠. 아무도 증명할 수없는 시간은 자유로운채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누님은 누님의 취향대로 그 시간을 상상했듯이 수지씨는 수지씨의 취향대로 그 시간을 상상하십시오. 아무튼 그시간의 증인은 영원히 없을테니까요.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죠』

수지는 그 빈틈없이 자유로운 어느 한시기의 자신의 어느 한 시기에 대한 질투를 느꼈다. 그 질투는 수많은 증인을 가진 자신의 어느 한 시기에 대한 후회에 시작도 되었다. 그래서 그 질투는 막연한 질투 곤 상당히 쓰라렸다. 후회야말로 안해야 될 생각이었다.

만인의 축복속의 그 영광될 조금도 의심해본 적이 없는 오늘의 …

수지는 알고 있었다. 후회가 얼마나 집요한 흡인력을 갖고있나를. 인재와의 일을 한번 후회하기 시작하면 걷잡을수 없을 것 같았다. 의리가 있지. 수지는 가장 통속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의리라는 말을 떠올리고 싶어했다. 그녀가 의리를 지켜야할 대상은 이미 인재가 아니라 인재와의 사이에 있었던 그 밀어온 사람에 대해서였다. 그들의 사랑을 지켜본 수 많은 관객에 대해서였다.

유리벽 밖에선 번화가가 환락가로 바뀌어가고있었다. 그 변신은 마치 여자의 화장처럼 빠른듯하면서도 느리고 느린듯 하면서도 빠르고, 보는 사람을 깊이 사로잡는 마력이 있었다. 광화문쪽에서 흐르는 불빛처럼 을 못추던 상가의 불빛이 그자락을 활짝 펴서 낮을 대신하려 들고 높은 곳에선 네온이 한참부로 야한 윙크를 뿌리고 있었다.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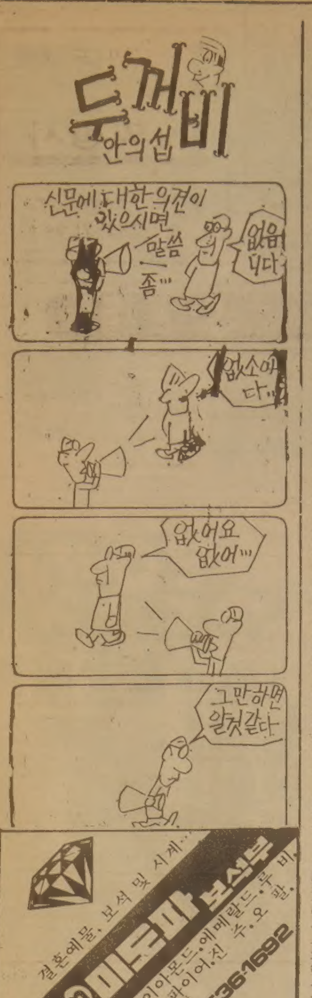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Bay
Temperance St.
Ⓟ
Yonge
King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전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일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釜山 大學街에 "自省"바람

放火사건계기 "다시는 地下서클 발못붙이게" 다짐

故 張군엔 弔慰金 부상자엔 誠金

釜山大학생들을 포함, 3명의 사상자와 전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부산美문화원방화사건을 계기로 사건이 발생한 대학생들 스스로가 반성의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6일 사건의 전원지인 부산지방을 돌아본 문교부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됐는데 부산 高神大를 비롯한 각 대학생들은 『좌경의식화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준 아픈 교훈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학원내에서 다시는 이같은 지하서클과 불순분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스스로 노력할것』을 다짐하고 나섰다。

주범文富軾등 범인5명이 재학중이던 高神大는 6일낮 12시10분 전교생7백20명이 모여 학원수호결의대회를 열고 방화사건으로 희생된 고張德述군(東亞大3년)과 국민에게 사죄한다고밝히고 『이같은 불행이 일지않도록 반성과 자숙을다짐하며 대학본연의 자세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학교측도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부산美문화원장등 관계기관에 발송하는 한편 『불순세력의 유혹에 흔들리지않도록 최선을다해 교육시키겠으니 학부모들도 보다관심을갖고 학생들을 지도해달라』는 공한을 학부모에게 발송했다。

또 부산지역의 각대학학생 간부들도 최근 모임을갖고 사태수습을 논의했으며 일부대학에서는 張德述군등 돕기모금운동을벌여 성금을 전달했다.

고高神大도 지난달31일 「자숙과 반성을위한 기도회」를열고 이자리에서 학생들로부터 모금한 15만2백80원과 교직원들의 성금등 90만원을 張군유족에게 전달했다。

釜山女大 학생들도 문화원 방화사건으로 중화상을 입고 입원중인 東亞大 여학생을위해 성금으로 각출했다。

한편 방화사건및 불온비라 살포사건과 깊이관련된 釜山女大서클 「심우회」는 지난 5일 전교생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보내고 회원모두가 자진탈회하고 학업에 전념할것을 결의했다。

또 釜山大 東亞大 釜山産業大등은 각각 학원수호결의 대회를 열고 『대학본연의 자세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로 발표했다。

放火희생 張德述군 추모祭

5백여명焚香… 故人넋 기리며嗚咽

【釜山=權周動기자】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희생된 고張德述군을 추모하는 천도제(薦度祭)가 6일상오 9시 부산西區東大新洞 도솔산 內院精舍에서 金武然 부산시장등 부산지역 기관장과 체리·R·랭크 부산미문화원장, 鄭樹鳳 東亞大총장을 비롯한 부산시내 26개대학및 전문대 총·학장, 학생대표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열렸다。

고인의넋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기위한 독경이 울려퍼지는가운데열린 이날 천도제는 고인의 약력소개에 이어 유족·東亞大총장·부산지역학생대표·부산미문화원장·부산시교육감·반공연맹 부산시지부장의 헌화와 급우였던 薛榮彬군(27·東亞大관광경영학과 4년)의 추도사순으로 진행됐다。

薛군은 추도사를통해『동료의 가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질러 앞으로 해야할 일이 태산같은 형을 의식화의 제물로 삼았으니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할수가 있느냐』고 흐느끼며 『두번다시 학원에서 독버섯같은 붉은세력의 마수가 뻗치지못하도록 응징하기위해서라도 고인의 영전에 뼈를깎는 아픔으로 학원을 지킬것을 맹세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유족대표인 고張군의 삼촌 張元界씨는 인사말에서 『22살의 높은 긍지와 이상을 꽃피우지 못하고 가버린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사회혼란과 한미이간을 획책하는 천인공로할 용공분자들을 이땅에서 뿌리뽑자』고 말했다。

천도제가 계속되는동안 고張군의 어머니 洪福福씨(54)와 급우들은 북바쳐 오르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시종 통곡했다。

이날천도제는 참석자 전원의 분향을끝으로 40분만에끝났다。

고張군은 張元碧씨(60·사업)의2남1녀중 장남으로 부산 大東고를거쳐 東亞大 상대경영학과 4년에 재학중이었는데 군에 입대하기위해 숨지기 4일전 휴학계를내고 입대전까지 미국유학준비를위한 공부를 하겠다며 부산미문화원 도서실을찾았다가 文富軾일당이 저지른방화로 도서실에서 미처빠져나오지못해 변을당했었다。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희생된 고張德述군의 천도식이 6일상오9시 부산에서 열렸다. 【聯】

金鉉奬에 文소개 당구장主人 연행

【釜山】 미국문화원방화사건을 수사중인 부산경찰은 6일 文富軾의 배후 조종자인 金鉉奬을 숨겨주고 金에게 文을 소개해준 부산中區大廳洞 S당구장 주인 許秀氏(30)를 연행, 이번 사건과의 관련여부를 캐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許씨는 光州사건의 주모자로 전국에 지명수배중인것을 알면서도 지난해9월 부산에 왔을때 2일동안 숨겨주었고 이때 文을 소개해 이를 계기로 文이 지난해12월 原州에서 의식화교육을 받게됐으며 그이후 金과 文사이에 잦은 연락을취해주었다는것。【聯】

가톨릭農民會 실태 調査방침

搜査당국、「오도된 활동」 가려내기로

학원騷擾·放火조종등 중점

64년創設…76년부터 社會참여

이번 釜山美문화원 방화사건을 계기로 가톨릭산하단체의 하나인 가톨릭 농민회의 활동이 오도된 부분이 드러나고있어 수사당국이 실태를 전면조사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釜山방화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金鉉奬(32)과 光州美문화원방화사건의주범 丁淳喆(27)이 수사과정에서 가톨릭농민회소속으로 밝혀진데 이어 학원사태 주동자 朴啓東(30·高大정외과4년제적)등도 가톨릭농민회회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이단체의 변질성여부가 부각되고 있기때문이라는 것이다.

설립취지는 「농민利益」 대변

지금까지의 경찰수사과정에서 밝혀진것이 가톨릭농민회는 美문화원방화사건등과 같은 반국가사범이나 학원소요사태등과같은 반체제사범에 이르기까지 여러경우에개입이 돼있는등 정체가 아리송하다.

가톨릭농민회는 이미 70년대에 그 「모습」을 드러낸적이있는 단체. 지난76년 전남咸平고구마피해보상요구사건을비롯, 79년8월에는 吳元春(당시安東교구靑耕분회장)사건등으로 우리사회에 널리 알려졌었다. 그러나 그당시에는 사건의 성격자체가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순수한 입장도 없지않아 그단체의 실체가 세상에 노출된기회는 없었다.

가톨릭농민회는 어떤 단체인가. 가톨릭농민회가 처음 생긴것은 28년전인 1954년 벨기에에서였다. 이탈리아 西獨등 8개국의 천주교신도들이 모여 천주교산하 18개단체를 발족시킬때 가톨릭농민청년회를 함께 발족시킨것이 그효시. 우리나라에 이단체가 처음 생긴것은 이보다 10년뒤인 64년10월。경북 倭館의 패베네딕트수도원안에서 농촌청년회가 설치되면서부터였다.

이 농촌청년회는 태동기를 거쳐 66년10월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로 정식으로 창립됐고 70년9월 국제가톨릭농민회에 회원국으로 정식가입한뒤 72년4월 가톨릭농민회로 개편됐다. 천주교 내부적으로는 77년 주교회의에서 주교회의 산하기구로 인준을 받은데 이어 81년12월 사목(司牧)담당주교 산하기구로 인준을 받았으나 문공부에 등록된 단체는 아니다.

현재의 본부는 忠南大田市東區城南洞山6 가톨릭농민회관. 천주교大田교구의 黃晃性주교와 李鍾昌신부가 각각 담당주교와 지도신부로 있다. 농민회의 기구는 본부회장밑에 조직교육부등 6개부로 사무국을 두고있으며 각지방에 10개연합회와 1백35개분회(邑·面이상 지역) 및 마을단위의 4개지회(支會)를 두고있다. 회원은 약1천3백52명(비등록회원포함 5천명)에 이르며 현회장은 朴才一씨(44·原州교구사회개발농촌분과위원·서울文理大지리과4년중퇴).

관계당국에 따르면 가톨릭농민회는 설립초기에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으나 76년이후에 와서부터 적극적인 사회참여쪽으로 활동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 즉 ▲농협비료부정사건 ▲농협의 자주성회복촉구 ▲추곡수매가인상요구 ▲민주농정구현촉구 ▲외국농축산물수입중단촉구등을 들수있다.

또 농민회의 농민운동전략은 1단계로 경제운동(기생지주제금지·외곡도입중지·농협의 민주화)단계를 거쳐 제2단계는 민주화운동(교육불평등해소·都農간격차해소) 3단계는 정치운동(지방자치실현·타락정치쇄신·통일문제논의참여)등으로 비약, 본래의 설립목적을 벗어나고있다는것.

농민회는 사회참여의 농도를 더욱 짙게해 지난78년5월에는 구속회원과 근로자를 위한 기도회개최및 구속자석방과 긴급조치철폐를 촉구했고 79년7월에는 「짓밟히는 농민운동」 유인물을 배포, 농민의 의식화운동을 가속시켰다. 그해 8월에는 吳元春씨사건이 터져 한때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기도했다. 吳씨사건은 吳씨가 처자를두고도 다른여자와 정을통해 일어난 가정불화때문에 15일동안 鬱陵島를 여행하고 와서는 『농민운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관원에게 끌려다니며 뭇매를 맞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부등 2명과 함께 구속됐던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10·26사태이후 한때 혼란기를 틈타 가톨릭농민회가 종교단체로서의 활동범주를 벗어나 전국 각지역의 대학생들을 농민회에 가입시켜 의식화운동을전개, 회원들로 하여금 학원소요와 光州사태 그리고 光州와 釜山美문화원방화사건을 저지르거나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도록한것이 아닌가 하는의심을 받고있다는 것이다. 【金薰기자】

地下서클 양성화

2學期접수 登錄기준 대폭완화

문교부、서울·京畿·江原 大學處·課長회의

문교부는 6일하오 서울·京畿·江原지역의 각대학 학생처·과장회의를소집, 전국51개대학의 학생·처과장들이참석, 서울大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문교부는 지금까지 신학기초에만 실시해오던 서클의 신입회원모집과 등록시기를 2학기로 바꿀것과 대학내의 음성화된 지하서클을 적극적으로 양성화시키기위해 서클등록기준을 완화하라고 지시했다.

문교부가 서클등록과 회원모집시기를 2학기로 바꾼 이유는 학기초로할경우 신입생들이 시기적으로 대학생활에 익숙하지못한데다가 서클의 성격과 건전불건전여부를 판가름할수없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문교부는 또 지금까지 미등록된채 방치되어온 지하서클을 완전히파악, 이들을 등록케하고 문제서클은 복수의 지도교수를두어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해나가는한편 양성화되지않은 지하서클은 발붙이지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문교부는 앞으로 학생들이 미등록 서클에 가담, 활동할경우 서클활동결과에 관계없이 강경한 학사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加수사관2명 向韓 文智軾등 신문위해

【터론토5日=聯】 캐나다경찰의 수사관 2명이 全斗煥대통령 위해음모사건수사와 관련, 지난2일 한국으로떠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캐나다경찰의 한 고위소식통은 론·샌들리경위와 로스·오크경감이 2일 터론토를떠났으며 하와이에 2일간머문후 한국을 방문한다고말했는데 이들은 全대통령위해음모와 관련, 서울에서 체포된文智軾을 신문할것으로보인다.

崔신부宿所등 수색 각종서적 百권압수

【原州】 原州경찰서는 6일 崔基植신부와 치악산 서점주인 金英愛양등의 숙소를 수색, 「전환시대의 논리」등 1백여권의 각종 서적을 압수했다。【聯】

내일 성유축성미사

【原州】 천주교 原州교구 교육원장 崔基植신부가 연행된후 첫미사인 성유축성미사가 오는8일상오10시 原州市團洞성당에서 原州교구내의 모든 신부와수녀 신도대표등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각 성당과 공소에서 1년동안 사용할 성유를 축성하기위해 모이는 이날 미사에는 교구관내 27개 본당신부 33명, 수녀49명, 85개공소의 신도대표등이 참석하며 崔신부의 연행대책도 논의될것이라고 교구청관계자가 6일말했다。【聯】

母女 숨지고 어린딸 重態

아들없어 비관 同伴自殺기도

【蔚山】 5일 하오3시께 경남 蔚山市 珍座洞527 김동조씨(41)의 안방에서 김씨의 처 정옥자여인(35)이 아들을 낳지못하는것을비관, 장녀 하숙양(9) 차녀 수진양(6)등 두딸과 동반자살을 기도, 극약을 먹고 신음중인것을 시어머니 김숙례여인(68)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정여인과 수진양은숨지고 하숙양은 중태다.

가족들에 따르면 정여인은 평소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남편 김씨로부터 심한 구박을 받아 왔었다는 것。【聯】

새벽 두戀人 피습重態

3人組 怪漢에 칼찔려

【大邱】 6일 상오 4시30분께 대구 中區 三德洞1街12 앞길에서 길을 가던 시내모대학 3년 박민규군(21·대구 中區 三德洞1街)과 시내 모 산부인과 간호원 정순례양(21·대구 東區 新岩洞)등 2명이 20대청년 3명으로부터 피습을 당해 목 배 허리등 전신을 칼에 찔려 중상을 입고 경북大 부속병원에 입원가료중이나 중태다.

경찰에 따르면 애인인 이들은 이날 새벽 귀가중 뒤에서 갑자기 20대청년 3명이 다가와 『멈춰라』는 말과함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있던 과도로 마구찌르고 달아났다는것이다。【聯】

貸出싸고 사례비 받은 銀行대리등 3명 구속

【釜山】 부산지검 수사과는 6일 수출지원자금 1억3천여만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2백여만원의 사례비를 주고받은 제일은행 부산北지점외환계대리 姜大旭씨(31)를 배임수회혐의로, 주식회사경동무역(수산물수출업) 대표 姜永煥씨(42·부산中區東光洞1街9)를 배임증회혐의로, 이들가운데 끼어 1백70여만원을 교제비로 챙긴 부동산소개업자 姜述根씨(47·부산海雲臺區佑1洞541의10)를 횡령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우산대로 친구失明 고교1年生을 拘束

【忠州】 충북 忠州경찰서는 6일 C상고회학생인 김모군(15·忠州市虎岩洞)을 중상해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3월30일 하오 1시30분께 시내 驛前洞 C고교 정문앞에서 교내 폭력클럽간의알력으로 사이가나빴던 같은학교 1년 박동석군(15)의왼쪽눈을 우산대로찔러 실명케한 혐의다。【聯】

放火사건등 질의 내일부터 國會상임위열어

국회는 8일하오 財務委를열고 정부로부터 金利인하조치에따른 재정운용계획및 景氣浮揚대책등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인다。

또한 經科委는이날 제9차經科委 外米도입 진상규명9人小委를 속개, 그동안의 小委활동을 토대로한 보고서작성문제등을 논의한다。

국회는 또 9일 內務委를 소집, 釜山美문화원 방화사건의 범인검거와 이와관련한 전반적 치안대책등에대한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를 벌일 예정이며 이날 法司委의 개선법률 검토小委는 법제처로부터 정부의 法令개선정비작업현황을 보고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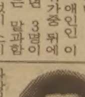
德成女大 학장에 劉貞烈박사 승인

문교부는 6일 공석중인 德成여대학장에 劉貞烈박사(54)의 취임을 승인했다。

신임 劉학장은 서울大약대를 졸업, 지난65년이래 德成여대에 재직해왔다。

陸士38기 졸업식

대통령상崔榮潤소위



육군사관학교제38기졸업 및임관식이 6일상오10시 화랑대에서 全斗煥대통령을 비롯한 3부요인, 周永福국방부장관, 3군참모총장등 군고위장성, 내외귀빈및 가족등이 참석한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영예의 대통령상은 崔榮潤소위(사진·24·光州 송원고졸)가 차지했고▲국무총리상은 徐勇洙소위(23·大邱 상원고졸)▲국방장관상은 羅相元소위(25·光州 제일고졸)▲참모총장상은 崔化植소위(24·舒川고졸)▲유엔군사령관상은 鄭鍾德소위(27·충남보문고졸)▲교장상은 金龍顯소위(24·서울 충암고졸)▲대표화랑상은 李昌衛소위(24·경남 세종고졸)가 각각 받았다。

出動경찰에 暴行 20代 前科者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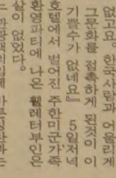
【釜山】 釜山東部경찰서는 6일 폭력을휘두르다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상처를 입힌 李성근씨(29·釜山市東區佐川3洞63)를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폭력전과 7범인 李씨는 지난3일밤 10시께 자기집옆방에 세들어사는 金재수씨(42)와 사소한 시비끝에 상의를벗어 문신을 드러내고 병을깨 소란을피우다 신고를받고달려온 東部경찰서 성남파출소 하동수순경(29)이 연행하려하자 경찰봉을 빼앗아 金순경의 목을 조르고 손을물어 10일간의상해를 입힌 혐의이다。【聯】

「격정꾼」의 기쁨

남편보러 美서 온 휄레터中領 부인

"아름다운 한국文化에 홀딱 반했어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잔걱정이 많은 법이라지만 낯선 나라 싸움터에 남편을 보낸 아내의 「걱정」은 작은것이 아니다.

美 플로리다州 탬파市에 사는 J·A·휄레터부인(사진·42)도 정말 「걱정꾼」인 아낙네의 한사람。남편 휄레터중령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이역만리 한국전선에서 복무중이기때문이다。애석하게도 아직까지 한국이라면 전쟁과 폐허를 연상할수밖에 없다는 휄레터 부인에겐 남편의 한국복무가 지난69년 월남참전때와 차이날것이 없었다。

그러던 휄레터부인의 「생각」이 요며칠사이 확 달라졌다。한국을 와서 보았고, 그땅위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난뒤 생긴 현상이다。

『남편을 만났으니 기쁘기야 말할것도 없고요。한국사람과 어울리게 되고 그문화를 접촉하게 된것이 이렇게 기쁠수가 없네요』 5일저녁 신라호텔에서 벌어진 주한미군가족 초청환영파티에 나온 휄레터부인은 구김살이 없었다。

여느 관광객의입에 바른칭찬과는 뉘앙스가 다르다。남편이 한국은깊고 오랜문화를가진나라라고 편지를 띄워 어렴풋하게 짐작은 했어도 휄레터부인이 한국에 올때는 우선 만날것이 폐허와 거지들이거니하고생각했던 모양같다。

그러나 휄레터부인은 거리의평화로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문화유산을둘러보며 마음을 빼앗기게됐노라했다。미국에서는 상상할수도 없는한민족의 오래된 위대성이느껴졌노라며 침이말랐다。

이번에 고고학을공부하는 큰아들을비롯 3자녀를데리고 온게 퍽 잘한일이라고 말했다。아들은 慶州유적에관해 일주일동안 흠뻑 빠져 버렸다。물론 판문점도 보았다。

휄레터부인은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우리가정을위해서 싸운다。미국을위해서 싸운다。세계의 평화를위해서 싸운다』고 자랑스럽게말하곤했는데, 이제부터는 『친절한 한국인들과 그아름다운 문화를함께지키기위해 싸운다』고 말할것이라면서 표정을 다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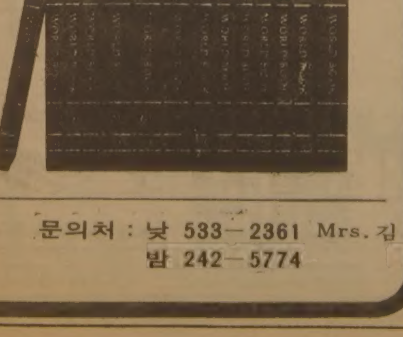
맵고 야무진 남부 미국여성의 끈기를 보는것같아 한국여인과의 「공통점」이 느껴지기도했다。

휄레터부인은 한국에 머무는동안 구경도 해야겠지만 세아들과 함께 한국사람들 틈에 끼여 마냥 걸어보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지키는 나라를 사랑하고 기억하게 만들겠다고 말한다。정말 휄레터부인은 한국에 오길 잘했다。【金晉宗기자】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TORONTO CHANG

● 토론토 장은 노래를 잘하고 항상 손님에게 친절하다고 그러더군요.
● 토론토 장은 세계명문의 제품을 고루 갖추고있으며 교포여러분의 귀국시 선물을 택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저 염가 할인 제공하고 또한 교통편이 불편하신분을 위하여 항상 차편을 준비시켜 놓고 있읍니다.
● 토론토 장은 미도파백화점은 오리엔탈파레스 건너편에 있어 아주 찾기 쉽고, 뒤에 파킹장이 있읍니다.
● 토론토 장은 귀국선물의 품목을 간추려 알려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핸드백, 화장품, 스카프, 넥타이, 섀무코트, 런던포-그바바리, 라이터, 지갑, 벨트, 전기면도기, 전자품, 우황청심환, 녹용, 게부말티, , 각종 부르진 조대쉬, 각종보석류, 피에르가르댕 세타및 티샤쓰, 만싱웨어세타및 티샤쓰, 오메가 및 부로바시계, 남여 선글라스등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분실공고

미스코리아 입장권중

일련No.1001~No.1004(4매)는 분실되어. 이는 무효임을공고합니다. 혹 갖고 계신 표중 이 번호를 갖고 계신 분은 즉시 한국일보로 연락 바랍니다.

한국일보 광고부장

LISBON AUTO COLLISION INC.
●토잉써비스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하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품점

한밭식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서울식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동양식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일식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복식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고려식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신용조합

한인신용조합
641A BLOOR ST. W.(2nd Fl) TOR. ONT. M6G 1L1
전화 : 533-938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약국

돈밀약국
전화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전화 : 368-2746 조 남 오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 문 정

양장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전화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여행사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천우여행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복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운전학교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전화 : 746-0675

이삿짐및 운송

나라운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장의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43, (R) 493-8792 송 창 섭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W.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박

학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743-0752 서 춘 봉

서울한의원
한의사 김 장 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화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전화 : 961-7100

임송하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완인태권도 完八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현명한 광고의 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 사업확장을 계획하십니까?
* 광고국에 문의하십시오.
533~2361~4 (월~토)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일요일에 가게 캐쉬어 하실분
(유경험자 원함) 미씨사가 지역
전화: 828-0242

남자 주방 헬퍼와 여자 웨이트레스 구함.
628 BLOOR ST. W.

Baby Sitter (베이비 시터) 구함
전화: 638-6380, 598-2210 Mr. 김

한국음식(밑반찬)에 조예가 깊으신분 연락바랍니다.
Full Time과 Part Time 가능
전화: 749-0579

맥스 밀크에서 일하실 캐셔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278-4867

Full Time 매니져 혹은 가게를
맡아서 하실분 구함. 스카브로지역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281-5730

매니저 구함
1174 Morning Side Ave. Scarboro. (세파드 × 모닝사이드)
흥미계신분 내방 바랍니다.

지렁이 잡이 경험이 많은, Mrs. 윤 이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합니다. 특별우대함.
전화: 291-4547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남.녀관계없음)
서부지역 전화: 742-0800

자동차를 파실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구 혼

독신남. 대졸. 해군장교예편. 신장 175cm
체중 70kg. 재산있고. 회사 중견사원역임.
독신녀(미혼 혹은 이혼녀) 원함. 기독교인이거나 앞으로 기독교를 믿으실분. 사진. 이력서 동봉.
연락처: 955 WARWICK CRT. #402,
(BURLINGTON. ONT. MR. LEE)

매매및 양도

Soft Icecream기계 팝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랍니다.
전화: 279-8871

★코너에 위치한 상업. 가정집 포함한 드라이크리닝 사업. 13% 몰개지.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드라이크리닝에 필요한 일절 장비 팔고자 함. 동양지역.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Call, Tony ☎: 751-1947 7 a.m-7 p.m.

여자 혼자할 수 있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급매. 시설비만 받고 매매할 예정임.(꼭히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61 Main St.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월~토 (9시 a.m.~ 9시 p.m) 꼭히 관심있는 분의 연락바람.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BECKER MILK 후렌차이즈 매매
꼭히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4746 Dundas St. W. (Islington)

바쁜지역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4,300
리 스: 10 Years
Call: Cliff or Joe for appointment
전 화: 763-5161
Cimerman Real Estate Ltd. Realtor.

성업중인 그로서리 및 버라이어티 딸린
건물 급매
전화: 532-8260

1981년형 16 Feet Fish Master Boat. Almost New. 최신장비 일절 갖춤. 아스킹: $6,500 꼭히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전화: 270-1981(오후6시이후 연락바람)

가게 급매(4 베드룸 건물포함)
주매상: $3,500~$4,500
가격: $84,000 + 스탁 (First Mortgage 13.5%,$51,000
Second Mortgage. Bank에서 $20,000 가능)
전화: 1-383-8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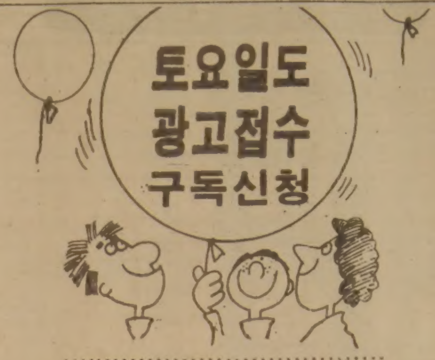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2베드룸 포함한 건물 팝니다. Four Unit. Commercial(Two Unit Rent 하였음). 번화한 지역으로 오타와에서 35Mile 서쪽.(Arnprior).
가격: $135,000 Mortgage: 12¼%
전화: 1-613-623-6896 (월~토)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364-0984 REMA FURNITURE

하우스 렌트

1베드룸. 한국인으로서 미혼직장여성원함
월세$200 Don Mill지역
(언제라도입주가능)전화:449-3071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598-4608
- 한 인 회: 755-9288
- 노 년 회: 755-8079
- 실업인협회: 752-7771
- Y M C A: 536-1166
- 외 환 은 행: 364-2890
- K. A L: 862-8250
- 코리아타운 번영회: 532-2727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486-0397 김 만 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 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백과사전)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 497-0600 (R) 298-855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준성)
전화:633-7892(R)497-8900(B)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532-5394(B), 742-0737(R)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532-7094(B), 248-2437(R)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248-2957(B)
247-6875(R)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8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ANNIE'S BEAUTY CARE CENTER
6093 Yonge St. (영 × 휜치)
전화: 223-7884 Mrs. Lee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김 종 조 종합보험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Sun Life (백 웅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2R1 전화: 759-9505 (5시이후)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전화: 281-1677 이 영 화 (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11 Dawson Ave. Tor.Ont. 전화: 463-8998

불 광 사
288 Hownslow Ave. 전화: 223-9152

선 련 사
46 Gwynne Ave. 전화: 532-3491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전화: 535-7772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534-1085 김 춘 탁

무 지 개 칼 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438-4435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533-2361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598-3732 이 건 영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Albion)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복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425-8585 Mr. 김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식 당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533-3545~6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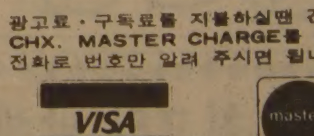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클 링. 턴 하 우 스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김 영 규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광고문의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 한국일보 안내광고 *

2ND CLASS MAIL No. 5248